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UCI]I804:24011-200000233003

2006년 2월
박사학위논문

신체활동 프로그램이 청소년의 여가 선용 및 도덕성에 미치는 영향

조선대학교 대학원
체 육 학 과
사 상 순

신체활동 프로그램이 청소년의 여가 선용 및 도덕성에 미치는 영향

The physical activity program influence on the students' making good use of spare time and the morality

*2006*년 *2*월 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체 육 학 과
사 상 순

신체활동 프로그램이 청소년의 여가 선용 및 도덕성에 미치는 영향

지도교수 : 송 채 훈

*2005*년 *10*월 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체 육 학 과
사 상 순

사상순의 박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대학교 교수	인
위원	대학교 교수	인
위원	대학교 교수	인
위원	대학교 교수	인
위원	대학교 교수	인

*2005*년 *12*월 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체 육 학 과

사 상 순

차 례

ABSTRACT

Ⅰ.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 1
2. 연구의 목적 ····· 6
3. 연구의 가설 ····· 6
4. 연구의 제한점 ····· 7

Ⅱ.이론적 배경 ····· *8*
1. 청소년의 개념 ····· 8
2. 청소년의 신체활동 ····· 17
3. 청소년의 도덕성 ····· 30
4. 청소년의 여가 선용 ····· 47

Ⅲ. 연구 방법 ····· *60*
1. 조사 대상 ····· 60
2. 조사 도구 ····· 62
3. 측정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 ····· 64
4. 연구 모형 ····· 68
5. 자료 처리 방법 ····· 68

Ⅳ.연구결과 및 고찰 ····· *70*
1. 신체활동 프로그램이 성별에 따른 청소년의 여가 선용과 도덕성의 관계 ····· 70
2. 신체활동 프로그램이 지역 특성에 따른 청소년의 여가 선용과 도덕성의 관계 ····· 72
3. 신체활동 프로그램이 학교유형에 따른 청소년의 여가 선용과 도덕성의 관계 ····· 74
4. 신체활동 프로그램 참여빈도가 청소년의 여가 선용과 도덕성의 관계 ····· 76
5. 신체활동 프로그램 참여기간이 청소년의 여가 선용과 도덕성의 관계 ····· 78
6. 신체활동 프로그램 참여유형에 따른 청소년의 여가 선용과 도덕성의 관계 ····· 80

7. 성별, 지역별, 학교유형별, 특성에 따른 신체활동 프로그램이 청소년의 여가 선용과 도덕성의 상관관계 ····· 82
8. 신체활동 프로그램 참여 실태와 환경적 특성에 따른 경로분석 ····· 86

Ⅴ. 결론 및 제언 ····· *90*
1. 결론 ····· 90
2. 제언 ····· 92

참고문헌 ····· 93
부록 ····· 103

< 표 목 차 >

<표 1> 현행 법률상의 청소년 명칭 및 연령 정의 ····· 11
<표 2> 도덕성의 정의 ····· 33
<표 3> 제 관점에서 본 도덕성 개념과 내용 ····· 37
<표 4> 조사 대상의 일반적 특성 ····· 61
<표 5> 여가 선용 하위요인별 개념 및 문항 수 ····· 62
<표 6> 도덕성 하위별 개념 및 문항수 ····· 62
<표 7> 설문지 구성 ····· 63
<표 8> 여가 선용 및 도덕성 신뢰도 분석 ····· 64
<표 9> 여가 선용에 대한 요인분석 ····· 66
<표 10> 도덕성에 대한 요인분석 ····· 67
<표 11> 성별에 따른 여가 선용 차이분석 ····· 70
<표 12> 성별에 따른 도덕성 차이분석 ····· 71
<표 13> 지역특성에 따른 여가 선용 차이분석 ····· 72
<표 14> 지역특성에 따른 도덕성 차이분석 ····· 73
<표 15> 학교특성에 따른 여가 선용 차이분석 ····· 74
<표 16> 학교특성에 따른 도덕성 차이분석 ····· 75
<표 17> 신체활동 참여횟수별 여가 선용에 대한 차이분석 ····· 76
<표 18> 신체활동 참여횟수별 도덕성 차이분석 ····· 77
<표 19> 신체활동 참여기간별 여가 선용에 대한 차이분석 ····· 78
<표 20> 신체활동 참여기간별 도덕성 차이분석 ····· 79
<표 21> 신체활동 참여 유형별 여가 선용 인식 차이 ····· 80
<표 22> 신체활동 참여유형별 도덕성 인식 차이 ····· 81
<표 23> 여가 선용과 도덕성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 ····· 82
<표 24> 여가 선용에 대한 영향분석 ····· 83

<표 25> 신체활동 참여여부와 학생특성에 따른 도덕성에 대한 영향분석 ····· 84
<표 26> 신체활동 여가 선용이 도덕성에 미치는 영향분석 ····· 85
<표 27> 최초 경로분석의 모델적합도 ····· 86
<표 28> 모형 수정 후 경로분석의 모델적합도 ····· 87
<표 29> 신체활동 참여프로그램과 도덕성에 대한 경로분석 결과 ····· 88

<그림 목차>

<그림 1> 도덕적 문제해결의 절차와 접근의 관계 ····· 32
<그림 2> 청소년의 여가 시간 변화 예상 ····· 54
<그림 3> 연구모형 ····· 68
<그림 4> 신체활동 참여 실태 및 환경적 특성이 여가 선용과 도덕성에 대한 경로분석 최초 모델 ····· 86
<그림 5> 신체활동 참여 실태 및 환경적 특성이 여가 선용과 도덕성에 대한 경로분석 수정 후 모델 ····· 88

Abstract

The physical activity program influence on the students' making good use of spare time and the morality

Sa, sang-soon
Advisor: Prof. Song, chae hoon Ph. D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find out in detail the relation between making good use of spare time and having morality, and to offer the materials needed for both the balanced physical activity and the appropriate growth.
The subjects for investigation were composed of the population which was made in the high school students participating in the physical activity program in 2005.

1) The relation between leisure and morality according to the gender in the physical activity

The boy students' average rate(3.48) in making good use of spare time is higher than that of the girl students' average rate(3.10). Also, the boy students were more affirmative than the girl students in three aspects: the body functional, cognizant, and emotional using of spare time. On the contrary, it appeared that the girl students(3.39) were more aware of the morality affirmatively than the boys(3.21).

2) The relation between leisure and morality according to the regional feature in the physical activity

The urban students' average in making good use of their spare time in region (3.43) is higher than the rural students' one (3.14). The result is that the urban students' average(2.57) was higher than the rural students' average(2.47). Opposite to this, with the regard to the responsibility, the latter is higher than the former.

3) The relation between leisure and morality according to the type of school in the physical activity

There was a meaningful difference in making good use of spare time according to the type of school: the academic high school average (3.39) was higher than that of the technical high school (3.17). On the recognition of the morality, the academic school was also higher than the technical one.

4) The relation between spare and morality according to the participation frequency in the physical activity

The subordinate variable of the physical activity participation frequency appeared high in the students taking part in their leisure 3 or 4 times a week. The average on the morality recognition(3.35) is the highest when the number stays below one time a week, while the average of morality was 3.29 under the condition of 2 times participation a week and was 3.24 under the condition of more than 3 times participation a week.

5) The relation between leisure and morality according to the participation period in the physical activity

The longer the participation period on making good use of spare time is, the higher the morality appeared. That is to say, the average of morality under the below of 6 months was 3.23, but that of morality under the above of 6 months was 3.36.

6) The relation between leisure and morality according to the participation type in th physical activity

In the case of participation type, the students attending the club activities were the most affirmative in the field of the morality. The next was the students attending the lifestyle athletic activities and then the students attending the aptitude program.

7) The co-relation between leisure and morality according to gender, region, and school type in the physical activity

The co-relation between making good use of spare time and having morality was 0.416. Above all, the responsibility and the kindness appeared high. The more the participation frequency was, the higher the morality was. Also, the morality appeared higher to the boy students than to the girls. The students both attending the academic high school and living in the urban area responded more affirmatively to the morality.

8) The participation state and the analysis of the morality course as for the environmental factors affecting students′ using of their spare time

The body functional using of leisure responds in proportion to both the participation frequency of the physical activity and the participation term. It works appropriately to the students in the academic high school living in the urban area, of course, and does better to the girl students.

In the case of the emotional use of spare time, it works affirmatively to the boy students attending the academic high school especially living in the town.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 사회의 물질적 풍요와 급속한 변화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급격한 성장 단계에 있는 청소년기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미쳐 이들의 사고방식, 생활양식은 물론 문화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기성세대인 교사와 부모들은 과거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청소년들을 이해하려할 뿐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와 입시위주의 교육 상황 속에서 개성세대, 소비세대, 영상세대, 통신세대라고 일컬어지는 청소년들이 겪는 스트레스와 고민, 의식, 생활·문화 실태를 이해하는데 소홀한 실정이다(한국교육개발원, 2003).

청소년은 우리나라 미래를 이끌어 나갈 세대들이다. 가정이나 국가사회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도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해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며 청소년 자신에게도 최우선의 과업이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들이 여가 시간을 창조적으로 선용하지 못함으로써 성 문란, 퇴폐·향락문화, 물질만능주의, 전국대학입시 수학능력 시험에 계획적으로 일어난 부정시험 등 청소년 비행과 일탈로 드러나고 있다.

도덕적 위기 상황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사회 구성원들이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실정이며, 정직하게 살면 손해 볼 것 같은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다. 이 현상이 우리 사회의 위기 상황을 가늠케 해주는 징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의 도덕적 위기 상황에 대한 사회 각 부문 구성원들의 반성과 개선 노력의 필요성이 제기된다(한국교육개발원, 2000).

인간은 한 사회의 구성원이면서 그 속에서 주위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성장하게 되는 것이므로 청소년기에 이르면 하나의 독립된 인간 개체로서의 모든 욕구가 증대되고 여러 가지의 지적, 감성적, 정서적 작용이 다양해진다. 논리적 사고가 결여된 까닭에 많은 갈등과 강한 욕구에 사로잡혀 정신적 방황을 자주 경험하게 된다. 이 기간에는 청소년들에게 적절한 신체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그들의 체력증진은 물론

여가를 이용하여 건전한 신체활동에 몰두하게 함으로써 협동과 단결, 우정과 인내, 봉사정신 등을 기르도록 하여 전인적 인격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신체활동은 생존뿐만 아니라 안전능력, 정신적 성숙 및 사회성 발달의 향상을 위한 필수적인 활동이다. 신체활동을 통하여 자기 중심화에서 탈피하면서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맺게 된다. 함께 운동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게 된다. 규칙 지키기, 협동하기, 스포츠 정신 등의 운동의 기본원리를 바탕으로 타인과의 상호협조, 자율성, 활동성과 같은 긍정적 성향의 인성이 발달되는 것이다. 청소년들은 신체활동을 통하여 움직이는 능력을 확대하고 신체의 인지능력 및 정교한 신체의 사용방법을 통하여 긍정적, 창조적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정신적 성숙과 사회적 발달을 촉진시키게 되는 것이다(하지원, 1993).

청소년이 장차 국가와 사회에서 주동적 역할과 위치를 담당하게 될 재원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청소년의 중요성은 자명하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들의 전인적인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은 사회의 중요한 책임이다.

오늘날의 청소년들은 정상적인 성장과정 속에서 자신의 희망과 적성에 자율적으로 자신의 생활을 개척해 나가기보다는 부모 및 학교에서 의해 인위적으로 짜여진 발달과정의 틀에 구속된 채 획일적이고 기계적인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 청소년들에게 그들의 청소년기를 인정해 주고, 생활의 폭을 넓혀주며, 활동경험의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하며 보다 나은 삶을 영위토록 하기 위해 스포츠와 같은 활동을 보장해 주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한국청소년개발원, 2001).

청년기에 익힌 놀이는 단순한 놀이의 형태가 아니라 유효하고 자기 충실을 위한 일종의 진지한 놀이로 이것은 어른이 되기 위한 새로운 경험, 성숙, 타인의 인식 및 참가 등의 기본적 욕구를 만족시키는 기회이며, 그 자체가 청소년을 열중시키는 요인을 지니고 있고, 각 요소들은 청소년들의 인격발달과 신체적, 도덕적 가치를 기르며 모든 일상생활에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최규순, 1986).

청소년이란 세대는 단순한 연령층으로서의 의미보다는 세계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형성 되는 세대로서 간주된다. 때문에 청소년기는 신체 활동이 가장 필요하며 신체와 정신의 발달 그리고 사회성의 발달 등 하나의 전인적 인간으로 성장하는데 중요한 시기이다(박상욱 외 1998).

청소년의 신체 활동 효과에 대한 근거는 신체 활동이 긍정적인 가치와 태도, 사회적 적응력을 길러 준다는 주장과 학교에 대한 관심과 소속감을 갖게 해 주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점(Figler, 1981). 사회적 통제의 메커니즘 역할 등을 들 수 있으며 체육은 신체적인 능력을 향상시키고 겸양심, 표현력, 자신감과 같은 정서함양에도 큰 도움을 준다(Loy & Ingham, 1973). 지속적인 신체 활동이 정신적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긍정적인 심리적 안녕과 정신 건강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면서 신체활동에 대한 가치가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김신숙, 2001).

신체활동은 성장기 청소년의 인격 형성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성숙한 개인의 완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또한 신체활동은 가상 세계이고, 신체적 기능과 전술이 결합된 형태로 규칙의 지배를 받는 경쟁적 활동의 표현이라 할 수 있고, 신체활동의 참가 경험은 대인관계, 리더쉽, 집단생활 및 합리적 사고 등과 같은 사회가치를 학습하며, 사회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한 공동체 의식을 배우게 된다.

실제로 스포츠 활동의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규칙의 준수와 스포츠맨 쉽, 페어플레이 정신 등은 자기 통제 및 자기 수양을 유도하며, 경기상황에서 필요로 하는 협동과 역할분담은 자신과 타인을 존중할 줄 아는 가치 및 태도를 형성시키게 한다(오순근, 1994).

학교 체육의 목표는 운동 능력 신장과 긍정적인 자아형성을 위해 체력을 기르고 신체활동을 통한 표현과 감상 능력을 기르는데 있다. 학교 체육은 증가하는 여가시간을 건전하고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평생 체육의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고 운동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여 이를 생활화할 수 있으며 바람직한 사회적 태도를 함양시키는데 있다(한상용, 2000).

청소년의 체육 활동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규칙의 준수와 스포츠맨쉽 등은 자기통제 및 자기 수양을 유도하며, 경기상황에서 필요로 하는 협동과 역할 분담은 자신과

타인을 존중할 줄 아는 가치 및 태도를 형성시킴으로써 도덕성을 함양한다(임번장, 1986).

특히 일반 대중의 스포츠 활동에 대한 관심 및 요구가 증대되고, 여가 시간의 상당 부분을 스포츠 활동에 할애함으로써 스포츠의 대중화 및 보편화 현상이 가속화 되어가고 있다. 일반 대중의 스포츠 활동에 대한 인식 변화 및 참여 욕구의 증대는 생활 체육이라는 범국민적 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는 스포츠가 현대사회의 대중문화 및 대중여가에서 주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제도의 일부분으로 발전 및 정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런 사실은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청소년에게 있어서는 지극히 예외적인 현상으로 보여 진다. 현재 중·고등학교에 진학 중인 청소년들은 가정, 학교에서의 모든 평가가 기성세대의 기준에 의해 이루어지는 현실 속에서 성장하고 있다. 지나친 엘리트위주의 출세 주의적 자녀관, 학과 위주, 대학 입시 위주의 교육 현실 등의 제약은 청소년들을 압박하고 있다. 이런 사실은 청소년 비행의 양적·질적 증가 추세와 무관하지 않다(이승훈, 1996).

신체활동 참가는 청소년의 불안과 긴장을 건전하게 해소하고 잠재능력을 개발한다는 의미에서 자아를 발견하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즉 신체적·정신적으로 급격한 변화기에 있는 청소년들이 기성세대나 성인들의 간섭과 압력에서 벗어나 여가 시간을 통하여 독자적인 세계를 구축하고 자기의 행동에 대해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기 때문이다.

신체적 교류를 통해 집단구성원을 이해하고 여가 활용, 문화적 감성을 제고 시킬 수 있으며 새로운 자아를 탐색하고 자신들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능력을 발견하여 자신의 건전한 인간적 특성을 배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체육과학연구원, 2001). 한국사회는 주 5일제 근무로 인한 노동시간이 단축되고 여가시간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특수층만이 아닌 국민 모두가 여가 활동을 향유할 수 있는 여가 대중화 시대가 되었다.

청소년은 주말에 여가 활동으로 컴퓨터 게임이나 전자·오락을 가장 많이 하며, 그 외에 텔레비전 또는 비디오를 보거나, 쇼핑이나 시내구경을 하거나, 별다른 활동 없이

그냥 쉬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가 생활을 주로 혼자 보내거나 학교 친구들과 보내고 있으며, 여가활동과 관련하여 자주 가는 장소는 노래방(33.8%), 오락실(31.2%), 영화관(28.2%)이다. 또한 건전한 놀이 및 여가문화가 이루어지기 위해 청소년 전용카페(47.7%)나 공원(42.6%), 체육운동 시설(40.5%)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청소년들은 돈이나 시간 등과 같은 충분한 여건이 주어지면, 바둑, 당구, 노래방, PC방과 같은 놀이・오락 활동(46.5%)이나, 관람・감상활동(41.9%), 스포츠 활동(23.2%)을 하고 싶다고 응답했다(한국교육개발원, 2003).

교육은 국가 미래를 결정하는 초석이다. 어느 국가나 교육의 중요성을 외치며, 전인교육을 강조하며, 다양한 시책을 강구해오고 있으나 우리나라 학교 교육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되고 있는 입시준비 위주의 관행은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으며, 실제적인 전인교육은 꿈도 꾸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오늘날의 청소년들은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성장 과정 속에서 자신의 희망과 적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스스로의 생활을 개척해 나가기보다는 주위 환경에 의해 인간으로서의 삶을 강요당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삶의 기회를 주기위해 스포츠를 통한 올바른 도덕성과 여가 선용을 형성시키는 것은 중요한 것이다.

본 연구는 청소년에 대한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성장발달에 맞는 교육적이고도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신체활동 프로그램에 따른 청소년들의 여가 선용과, 도덕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또한 여가 선용을 통해 도덕성을 조사・분석함으로써, 균형적이고 효율적인 신체활동 활성화와 청소년이 올바르게 성장해 가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결과는 학교 교육을 개선하고 변화시키기 위한 교육적 대책을 수립하는 데에도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목적

여가 선용에 따른 도덕성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일은 청소년 이해는 물론 생활 지도가 요구되는 여러 교육적 상황에서 꼭 고려되어야할 중요한 교육적 정보이다. 급속한 사회 변화에 따른 생활환경 변화는 청소년들의 의식 및 행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어 그러한 변화에 대한 정보를 파악함으로써 청소년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연구의 결과는 올바른 교육적 대책을 수립하는 데에도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3. 연구의 가설

가설*1*> 신체활동 프로그램이 성별에 따른 청소년의 여가 선용과 도덕성의 관계에 대해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2*> 신체활동 프로그램이 지역 특성에 따른 청소년의 여가 선용과 도덕성의 관계에 대해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3*> 신체활동 프로그램이 학교유형에 따른 청소년의 여가 선용과 도덕성의 관계에 대해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4*> 신체활동 프로그램 참여빈도가 청소년의 여가 선용과 도덕성의 관계에 대해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5*> 신체활동 프로그램 참여기간이 청소년의 여가 선용과 도덕성의 관계에 대해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6> 신체활동 프로그램 참여유형에 따른 청소년의 여가 선용과 도덕성의 관계에 대해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7> 성별, 지역별, 학교유형별, 특성에 따른 신체활동프로그램이 청소년의 여가 선용과 도덕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8> 신체활동프로그램 참여 실태와 환경적 특성이 청소년의 여가 선용활동을 거쳐 도덕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연구의 제한점

가. 본 연구는 전라남도 남·여 고등학생의 신체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으로 제한하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 지역 청소년의 경향으로 해석 하기는 어렵다.

나. 신체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남·여 고등학생들이 현재의 교육환경 및 신체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오차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Ⅱ. 이론적 배경

1.청소년의 개념

가. 청소년의 개념

청소년(Youth)이란 용어는 성장한다(to grow up) 또는 성숙에 이른다(to come to maturity)란 의미의 라틴어로써, 이 시기가 신체적, 심리적, 그리고 사회적 성장이 급속하게 진행된다는 전환기적 의미를 암시하고 있다(Adelson, 1980).

인간의 전 생애 발달과정 중 청소년기에 대한 관심은 고대 그리스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고대 그리스의 대표적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는 기원전 300년에 '소년들은 이미 격정적이고 성급하고 자기 충동에 따라 행동하기 쉬운 집단이다. 그들은 자신이 전지전능하다고 생각하며 무엇이든 도에 지나치기 때문이다'라고 청소년의 본질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리고 청소년기는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언급하였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해답을 모색하지만 여러 갈등적인 시기와 인식으로 인하여 이러한 작업이 쉽게 진행되지 않는 이른바 정체감의 혼란을 겪게 되는 시기이다(김성태, 1990).

Erikson(1963)은 인생초기의 경험이 중요하기는 하나 성장과정동안의 사회문화적 경험이 인격형성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여 청소년기에도 인성은 변활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최성열 2001) 청소년기의 자아정체감 확립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한편, 청소년기는 대체로 중학교에 입학하여 고등학교를 졸업하기까지의 시기로 볼 수 있다. 청소년 육성법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12세에서 24세 사이의 사람을 청소년이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우리는 인생의 성장과정 중 사춘기를 청소년 시기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청소년기와 관련된 특징적인 개념은 연령적, 사회학적, 심리학적 기타 지적인 기준으로 그 범주화가 가능하지만 연령적 범주 이외의 기준들은 자의적인 성격이 강하

기 때문에 연령을 기준으로 접근하는 것이 보다 객관적이다. 청소년기의 연령적 특징은 연령이라는 귀속적 요인에 의하여 제약을 받는 특수한 연령층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청소년들이 가족이라는 귀속적 틀에 묶여 성인사회로 이행해야 하는 지위로서 사회에 의해 규정되기 때문이다(구창모, 1994).

청소년이라는 용어는 청년과 소년을 총칭하는 용어로서 이는 아동과 성인에 대한 세대 개념이며 남녀 구별 없이 '젊은이'와 공용되고 있다. 청소년은 사춘기에서 성인에 이르는 과도기 또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칭하며 개인적 혼란으로부터 사회적 질서로 옮겨가는 새로운 삶의 단계에 놓여있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청소년은 비록 신체발육정도, 정신적 성숙도, 그리고 사회적 행동 양식에서 볼 때 아동기를 벗어났다고 하지만 아직도 더 성숙화, 사회화될 것이 요구되는 상황에 놓여있는 세대이다. 또한 청소년은 그 자체로서 다양한 심리적 특성과 복잡한 사회문화적 환경, 그리고 매우 광범위하고 이질적인 사고와 형태를 지닌 하나의 사회적 범주이다. 청소년기는 대체로 사춘기로부터 시작된다. 사춘기의 특징은 주로 신체적 변화에 기인하기 때문에 청소년기의 발달은 신체적 변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이장호, 1982). 한편 청소년은 신체적인 성장발달과 변화에 따른 갈등적 경험에서 청소년기의 행동특징이 표출된다. 즉, 아동기까지 동일시의 대상이었던 권위자 또는 권위체에서 이탈하여 연배 집단을 더 동일시한다. 그리고 권위자나 권위체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냉소적인 경향을 띠며, 이성에 대한 강한 호기심과 아울러 다른 사람들과 경쟁의식을 갖게 되며 자기 자신에 탐닉하는 경향을 드러내기도 한다(박영민, 1986).

학문적 입장에 따라 다소 논의의 차이는 있지만 청소년과 관련된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청소년의 본질의 자아, 정체성의 위기, 반항성, 소속에서의 이탈, 신체적 급변과 정서적 가변성, 사회적 미성숙 등임을 지적하고 있다(도정수외, 1994).

또한, 오늘날의 급격한 과학문명의 발달과 경제성장과 서구화의 물질 속에서 전통적 가치체제가 붕괴됨에 따라 청소년의 사회적 이탈은 심화되고 젊은이와 기성세대간의 가치관의 차이가 현격히 벌어지는 가운데 청소년의 비행이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이종영, 1996).

특히, 청소년기의 매사에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이므로 건전한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건강하고 밝은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이제는 청소년 교육에 관한 책임을 학교에만 전가 하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교육의 장을 가정, 학교, 사회로 골고루 분산화 시켜야 한다. 그리하여 청소년 지도에 최선의 교육장소가 되는 생활의 장인 사회전체가 교육의 장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학습사회의 구현을 도모하여야 한다.

청소년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가정의 교육적 기능약화, 학교교육의 불건전한 풍토, 사회의 비교육적 환경 들을 지적할 수 있다. 가정의 핵가족화 결손가정의 증가, 부모의 교육에 대한 무관심 등 가정교육 기능 약화와 입시위주의 지식주입식 교육, 불건전한 학생 써클의 증가, 교사의 학생에 대한 지도력 약화 등이 학교교육의 불건전한 풍토를 조성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그리고 사회의 비교육적 환경요인으로는 출세지향주의 만연, 유흥숙박업소의 무책임한 영업행위, 매스컴의 교육적 역기능, 여가 교육의 부재 및 욕구발산 기회의 부족 등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 같은 각종문제 요인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여러 각도에서 접근이 가능 하지만 청소년 문제의 해결은 창조적인 여가활동 향유 능력의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즉, 육체적, 정신적 성장과정에 있는 청소년에게 신체활동을 통한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줌으로써 이들의 신체 및 운동능력의 발달, 공격적 성향의 해소, 건전한 사회적 성격의 형성, 공동체 의식의 함양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위성식, 이제홍, 1995).

이상과 같은 도시 산업사회로의 진전에 따른 사회적 병리현상으로 야기되는 청소년 문제를 예방하는 수단으로서의 신체활동 또한 그 필요성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이렇게 신체활동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는 것을 계기로 청소년을 위한 신체활동을 활성화하는 것은 시기 적절한 일일 것이다.

<표 1>현행 법률상의 청소년 명칭 및 연령 정의

명 칭	연 령	규 정 법 률	준 용 법 률
청소년	19세 미만	°청소년 보호법(연령을 정의)	
	9～24세	°청소년 기본법(연령을 정의) °연령 정의 없이'청소년'명칭사용 -방송법, 종합유선방송법 -외국 간행물 수입 배포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청소년 기본법 -육성·지원의 폭을 확대 °UN권장 사항 -15～24세를 청소년 규정
소 년	20세 미만	°소년법	
아 동	18세 미만	°아동복지법	
연소자	18세 미만	°영화진흥법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법률 °공연법	°공연법상에는 연령규정 없이 연소자로만 규정
미성년자	만20세미만	°미성년자 연령을 정의 법률 없음 -사유 : 민법의 성년개념반대해석 °연령 정의 없이'미성년자'칭사용 -공중위생법 -식품위생법 -정기 간행물의 등록에 관한 법률	°민법 -민법 제4조(성년기) 만20세로 성년이 된다.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원용
-	19세 미만 18세 미만	°국민건강 증진법 °향정신성의 약품관리법	°명칭 없이 연령만 규정
청소년, 미성년자,18세, 20세 미만자 혼용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종류에 따라 출입제한 연령을 상이규정

나. 청소년의 특성

일반적으로 소년기와 청년기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기도 하며 아동 후기부터 청년 중기에 있는 사람 또는 아동기와 성인기의 과도기에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청소년들은 자아를 발견하고, 자신의 삶의 의미와 보람을 스스로 찾으려는 강한 내면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미래의 삶을 개척하기 위한 각종지식을 습득함과 동시에 올바른 생각 및 생활방식을 터득하며 성장 발전해 나가는 때이다(허남걸, 1999).

따라서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는 일은 나라의 장래와 직결됨과 동시에 중요한 과업이라 할 수 있으며 가정, 학교, 사회, 국가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청소년으로 하여금 명랑하고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정서적으로는 물론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줌으로써 국가 발전에 필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1) 신체적 특성

청소년기는 신체의 내부 기관의 급격한 발달로 인해 생식기와 생식기능이 발달하고 체격이 발달하여 신체 윤곽과 운동능력이 발달하는 이른바 제2차 성장이 일어나게 된다. 이 시기에 발달한 신체와 운동 능력, 그리고 성적 발달은 사람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활동하게 되는 모든 활동에 중요한 의의를 가지게 된다. 즉, 신체발달이 빠른 청소년들은 발달된 신체에 따르면 새로운 자아개념을 형성하게 되고 신체의 건강이나 결함, 운동능력의 우열 등은 지적, 정서적, 사회적 등 여러 면에서 활동에 영향을 주며 특히 빠른 성적 발달은 그들의 정신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다(한국청소년개발원, 1993). 2차 성장의 발현과 성숙은 사춘기 청소년들의 성에 대한 태도와 가치관 확립에 다음과 같은 영향을 끼친다.

첫째, 자신의 성적 변화의 수용 상황에 따라 자신의 성격 형성의 방향이 결정된다.

둘째, 외모에 따라 열등감 또는 자신감을 가지게 된다.

셋째, 성적인 조숙과 만숙이 성격 형성에 영향을 준다. 조숙아는 비협동적이고 우월

감이 형성되고, 만숙아는 의존적이고 주위의 관심을 집중시키려는 성격이 형성된다.

넷째, 이 시기의 발달과업 성취 여하에 영향을 준다. 즉, 성취도가 강하면 밝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게 되고 약하면 열등감과 배타적인 사고를 갖게 된다. 또한 청년기의 키, 몸무게, 그리고 남성, 여성의 성적인 성숙 등과 같은 신체적으로 현격한 변화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박아청, 1987), 정서적, 사회적으로도 변화, 이행의 과도기적인 존재로서 불안감이 교차하여 내면적 동요를 겪게 된다.

(2) 심리적 행동특성

청소년기에 들어선 학생들의 행동은 아동기나 성인기에 비해 과민하고 동요가 심하며 흥분을 잘하는 정서적 불안정성을 갖고 있어 이 시기를 질풍노도의 시기(A time of storm and stress)로 칭하기도 한다. 즉, 부모나 친구, 교사 등의 사소한 언동이 그들을 즐겁게 하기도 하고 슬프게 하기도 하며 분노케 하기도 한다. 동일한 상황에서도 자신감을 갖기도 하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으며, 자기를 영웅시하여 당당할 때도 있으나 동시에 열등감에 사로잡힐 때도 있다. 희망과 절망, 고민과 행복이 상반된 정서적 불안정 속에서도 인생의 눈을 뜨는 시기이며, 동시에 양심과 충동의 갈등 속에서 자아의식이 싹트는 과도기적 시기이다.

이와 같이 아동에서 성년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시기에서 청소년기가 겪고 발달하는 모습을 레빈(K. Lewin, 1935)은 심리적 면에서 다음과 같이 특성을 분류하고 있다.

첫째, 집단, 소속 또는 동일화가 완전히 달라지는 변화가 생긴다.

둘째, 단순한 상상이나 기계적, 단편적인 지식습득만으로 만족했던 아동기와는 달리 청소년기에는 복합적인 동기와 적응과정에서 심리적인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셋째, 자아발견, 자아각성의 동일화가 나타난다.

넷째, 신체의 모습, 체격 기능에 대해 복합적인 새로운 심리화가 일어난다.

다섯째, 시간과 실제 간의 상호 관계의 이해에 돌발적인 변질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청소년기에 일어나는 급격한 신체발달에 따라 청소년들은 이전과는 달리 다른 사고를 가지게 되며 이에 따른 행동양식의 특성을 보이게 된다. Piaget(1932)는 이 시기의

인지 변화는 인지 기능이 단순한 양적 증가보다는 정신능력의 특성자체가 질적으로 변한다.

인지란 지식의 구성, 획득, 유지와 활용 등을 포함하며, 이외에 사고, 상상력, 창의력, 추리력, 문제 해결력, 개념화, 범주화와 같은 고등정신과정으로 정의된다. Piaget(1932)의 인지발달 이론을 보면 청소년 시기는 형식적 조작기에 속하는 것으로 이 시기의 특징은 연역적 추론 과정이 가능하며 조합능력이 생기고 따라서 3차적인 추상화, 즉 논리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실제 현상과 그 이전 단계와는 달리 가설을 다룰 수 있으며, 가설을 다룰 때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성하여 증명할 수 있다. 때문에 청소년기의 사고는 가능성 지향적이며 이는 자신에게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미래에 대한 설계를 하는 등 청소년기의 행동 특성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더불어 조합 능력이 생성된 가설 검증시 체계적으로 검증하며 응집성과 일관성이 있는 논리체계가 가능해지는 시기이다.

(3) **사회적 행동특성**

청소년기에 사회 속에서 겪게 되는 인간관계는 가족관계, 또래관계, 학교관계, 일터관계 등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중 청소년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관계는 또래 관계이다. 인간관계가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특징은 다음과 같이 여섯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첫째, 가족관계는 이전의 시기까지는 아동에게 큰 비중을 차지하나 청소년기에 들어서면서 급격한 신체적 성숙을 수용하지 못하는 부모와 사회에 대해 대립적 갈등과 세대 차이에 따른 심리적 거리감을 느끼게 되며 자아의식의 발달로 부모로부터 정서적 독립과 자율성을 추구한다. 이 시기에는 또래관계가 영향이 크긴 하지만 인간발달에 영향을 끼치는 환경 중 가정환경의 영향은 지속적이고 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가족관계가 원만치 못한 청소년들의 대부분이 심리적 고통과 갈등이 커지고 이를 해결하거나 도피하기 위해 밖으로만 돌고 또래관계로만 지나치게 집착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 비행과 일탈행위로 쉽게 빠질 수 있어 가족관계는 청소년에게 상당히 중요

하다.

둘째, 또래관계를 보면 가족관계가 상하의 종속적인 관계라면 또래관계는 평등한 인간관계를 경험하게 되어 부모와의 동일시가 소원해지면서 또래관계를 통해 청소년의 자아형성과 사회화에 큰 영향을 끼친다. 친구는 목적이나 형식적 구애 없이 자연발생적인 상호작용에 의해 우정과 호감으로 결속된 집단 구성원이다(김형태, 1989). 또래집단의 종류로는 단짝(chums orpeers), 끼리끼리(cliqus), 패(crowd), 패거리(gang)가 있다. 또래집단의 기능은 성인들에 비해 청소년들은 활동력이 왕성하기 때문에 놀이 중심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형성하기 때문에 유희성을 충족시키는 기능을 한다. 유희성은 또래집단의 크기가 클수록 더 적극적이고 활동적이므로 패거리 집단이 유희성을 더 추구할 가능성이 크며, 여자아이들보다도 남자아이들이 패거리 집단 형성이 더 많다.

셋째, 정체성 확립을 들 수 있다. 청소년들은 성인과 아동의 중간적인 위치에서 오는 정체성 위치를 극복하기 위해 자신을 특정 집단에 소속시키려는 경향이 있는데 청소년의 또래집단은 청소년이 가족으로부터 분리되어 나오는 과정을 도움으로써 정체성 확립에 큰 구실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넷째, 사회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 가정에서 보호만 받던 청소년이 상대방과 대등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곳이 또래집단이며 따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어 나중에 성인이 되어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에 대한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섯째, 학교에서의 관계가 있는데 대부분의 청소년 시기에 속하는 청소년들은 학업을 수행하는 위치에 놓여져 있다. 따라서 학교관계에서의 인간관계는 성적의 압박 속에 교사, 반 친구들과의 관계가 가장 크게 부각되는데 이때 입시에 대한 스트레스로 심리적 부적응이 나타나거나 정신건강이 나빠질 수 있으므로 특별활동이나 심리 상담이 필요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인교육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일터에서의 인간관계가 있는데 이에 속하는 청소년들은 일찍 사회에 진

출하거나 학교를 다니며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이다. 이들은 경제적인 독립 능력과 노동주체로서의 자부심이 강하나 경제적 곤란과 사회계층 갈등 문제와 우리나라의 학력 위주의 사회 분위기 속에서 기인한 고등교육 진학의 좌절로 인한 고민이 많다(청소년개발원, 1993).

(4) 청소년의 지적 특성

지적 발달은 청소년기에 현저하며 사고에 있어 논리성과 합리성, 추상성이 신장되어 생활에의 효과적 적응의 토대가 된다. 그러나 사고가 논리적·합리적이라 하더라도 현실로 인해 유린된 점이 많아 감정에 흐르기 쉽고, 현실에 대하여 비관적이며 자기주장에 집착되어 이상론에 빠지기 쉽다

2. 청소년의 신체활동

가. 신체활동의 중요성

청소년기는 신체 및 정신발달의 측면에서 보듯이 일생의 체력과 건강의 기틀을 다지는 가장 중요한 시기이며 왕성한 의욕과 정력으로 자기의 능력을 시험하고자 하는 강렬한 신체활동의 욕구가 발생하는 때이기도 하다. 이러한 성장기의 청소년에게 오늘날의 우리사회는 학업과 수험준비에 매달리도록 일방적으로 힘겨운 학습만을 강요하고 있다. 이러한 지루하고 반복되는 단순작업의 과정 속에서 청소년에게 균형적인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이러한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다양함이 있는 새로운 세계로의 유도가 필요하다. 따라서 청소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덕·체가 고루 갖추어 질 수 있는 전인적 활동의 경험이라고 하겠다.

청소년기의 스포츠 및 신체활동에의 참여는 신체적, 정서적 발달은 물론, 자율적 인간의 형성, 준법정신과 공정성의 함양에 기여할 수 있는 바람직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인격 완성에 크게 이바지하며 여기에서 얻어지는 경험에 대하여 이들 대부분의 연구들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스포츠가 단순한 운동기술 습득과 향상에 그치지 않고 청소년들에게 그들 생활의 다른 측면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사회 심리적 가치들을 학습하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Leonard 1980).

체육은 신체활동을 통한 교육으로 '계획적인 신체활동을 통한 인간행동의 변화' 라고 정의될 수 있다. 우리 인간은 신체 활동이 없어서는 삶을 영위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생활에서 불가결한 신체활동의 중요성과 가치를 망각하는 경우가 허다하며, 체육이라는 학문에 대하여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평소에 신체활동의 부자유에서 오는 고통을 느끼기 전까지 그 값어치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김종선, 1985).

청소년시기의 체육활동 주체는 바로 중·고교생들과 근로청소년들이며 이 시기에는 신체의 각 부위들이 급격하게 성장하는 때이며, 지적 정서적 사회적 운동 면에서도 역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로, 여러 측면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한 인간이 지닌 선천적, 후천적 요인들에 의해 성장과 발달이 한계성을 지닌 하나의 가능성이라고 볼 때, 그 잠재적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발현하게끔 의도적으로 자극을 주는 것이 바로 교육이다. 교육 중에서도 신체를 통한 교육이 체육이라 할 때 체육의 중요성은 쉽게 이해된다(위성식, 이제홍, 1997).

인간이 갖고 있는 투쟁적인 충동과 그 표현은 중요한 본능적 활동 중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인간이 이러한 충동에 대하여 만족을 구하려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며, 청소년의 폭력행동이 그 한 예이다. 스포츠 활동은 이러한 인간의 본질적 욕구를 합법적으로 표출시키는 수단이므로, 스포츠 참여의 기회는 투쟁 본능의 충족을 위한 욕구에 대해 건설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바람직한 기회가 된다.

인간의 신체활동은 신체적 요소뿐만 아니라 지적·정서·심리적 요소를 포함하고 나아가, 사회적 요소도 포함하게 되므로 신체활동은 인간으로서의 활동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청소년기는 신체활동이 가장 필요한 시기로서 신체 정신의 발달, 사회성의 발달 등 인간능력이 왕성해지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결론적으로 신체적 가치 면에서 인간은 어린 시기부터 청년기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간에 걸친 신체활동이 필요하며. 특히 청소년기는 이에 대한 필요시간이 가장 많이 요구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강한 신체적 욕구충족은 학교체육 활동에만 기대할 수는 없다.

학교체육을 통하여 배운 건전한 체육 프로그램을 가정이나 지역사회의 체육공간에서도 실천하는 것이 청소년들의 심신발달을 위해서는 매우 바람직하다. 체육활동은 유희적, 오락적 기능을 갖고 있으며 정서적 휴식이나 창조성을 제공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스포츠 활동에서 학습되는 경험들은 일상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청소년은 어떤 형태로든 스포츠 활동에 참가할 필요가 있다.

나. 청소년과 스포츠 활동

신체활동은 인간으로서의 종합적인 행위인 것이다. 과거에는 신체활동이나 운동을 대근활동이라 불렀는데 근래에 들어 이에 대한 개념의 폭이 넓어졌으며, 따라서 대 근육만의 활동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정서적·심리적 요소 등을 모두 포함하고 나아가 사회적 요소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임번장, 1986).

청소년기에는 신체활동이 가장 필요한 시기로서 이는 신체의 발달뿐 아니라, 정신의 발달 그리고 사회성의 발달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동시에 인생에 대하여 스스로 깨닫고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청소년기 신체활동의 중요성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1) 신체의 발육이 가장 왕성하고 신체적으로 완성되는 이 시기에 신체활동 및 레크리에이션은 기분을 전환시켜 줌으로써 심신의 균형적 발달을 꾀한다. 신체적인 잠재능력을 충분히 신장시켜 체계적으로 원만한 발달을 이루며 충실한 체력을 양성해 준다.
2) 지적활동이나 능력 발달에만 치중하기 쉬운 이 시기에 스포츠 활동은 심신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 심신의 균형적 발달을 도모한다.
3) 스포츠 집단이나 클럽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사회생활에 절대 불가결한 질서 잇는 집단생활,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 희생정신을 배우게 된다.
4) 견디기 힘든 기후조건이나 어떤 상황에서도 사기를 잃지 않고 경기에 지지 않으려고 할뿐만 아니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인다. 이 시기에서의 이러한 정신노력의 경험은 인생에서의 어려운 장면을 견디기 위한 기초로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5) 인간생활에서 필연적으로 인간관계가 형성되기 마련인데 신체활동을 통하여 자기의 욕구를 억제하고, 보다 고차원적인 인간관계 및 역동적인 인간관계를 체험한다(Fisher, 1981).
6) 청소년기에 습득된 신체활동의 기능이나 습관, 태도는 평생 인간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기반이 된다(Synder and Spreitzer, 1983).

다. 신체활동 프로그램

(1) 특기 · 적성

적성이란 어떤 지식이나 기능 또는 특정의 반응 방식을 훈련이나 경험에 의하여 획득하기 이전에 예측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될 만한 징후나 징후 군을 가르친다. 직업적성을 그 예로 들어보면 특정 직업에 종사하여 그것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나 성격특성이 그 직업에 종사하기 이전이나 특별한 훈련을 받기 이전에 잠재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상태를 직업에 대한 적성이라고 한다. 또 적성의 개념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먼저 넓은 의미의 적성이란 미래의 어떤 직업이나 분야에 있어서 성공을 예언할 수 있는 것으로 현재의 한 개인이 갖고 있는 지적, 정의적, 신경 운동적 기능을 말한다. 그리고 좁은 의미의 적성은 미래에 있어서 학습을 해낼 수 있는 인간의 지적 요소만을 의미한다. 특기는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기능이나 뛰어난 기술을 뜻하는 것으로 적성보다는 좁은 의미로 사용 되어 진다.

요즘 들어서 강조되고 있는 특기·적성 교육은 사실 새로운 개념이나 과거와 다른 형태의 색다른 교육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특기·적성 교육은 인간의 잠재 가능성을 계발하고 실현해 나가기 위한 교육으로 선진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각 개인의 소질과 특기·적성을 살리는 교육으로 실시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새 학교 문화 창조) 라는 목표와 새로운 교육으로서 패러다임을 위한 대안적 모색으로서 특기·적성 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그 동안의 입시 위주의 획일적, 기계적, 단편적 교육에서 다양성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으로 활발히 논의되어져 왔다.

개인이 만족스럽고 생산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진로에 대한 방향을 세우고 선택하며 그에 대한 준비를 하고 선택한 진로에 들어가 계속적인 발달을 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제공되는 교육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지향적인 사회 가치에 친숙하게 하여 이 가치들을 자신의 인성적인 가치 체계 속으로 통합하여 일을 통해 보람과 만족

을 느끼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공교육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직업이나 진로에 대한 준비과정이나 생계유지의 수단으로서 특기·적성 교육을 접근할 것이 아니라 직업과는 무고하게 자신의 취미나 여가 생활을 통해 더 높은 수준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노력으로 인생을 향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교육으로 그 의미가 바뀌어져야 할 때이다.

후기 산업 사회에 기초한 특기·적성 교육의 철학적 바탕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사람은 누구나 독특한 존재로 태어나며 각자 독특한 존재로서의 삶을 추구할 수 있다. 둘째, 사람은 누구나 필요하고 존엄한 존재로서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다는 사상에 기초한다. 따라서 특기·적성 교육은 누구나 타고난 잠재능력을 기본으로 자기의 소질, 능력, 흥미, 적성, 인성에 알맞은 방향으로 자신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철학적 바탕에서부터 출발한다.

교육은 궁극적으로 개개인의 행복을 증진시키도록 돕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학생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개성과 능력 그리고 취향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모색하는 일이 중요하게 된다. 최근 일부 교과나 교수 이론에서 학생의 능력에 따라 개별적인 교수 방안이나 학습 이론이 제안되고 있고, 또 새 교육과정에서 학교나 학생의 재량에 따른 선택의 기회를 확대하고 있지만, 교과학습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각 학교에서는 방과 후 학생의 흥미, 취미 와 학교 실정과 특성에 알맞은 각종 교육활동을 최소한의 수익자 부담으로 할 수 있다. 또한 특기·적성교육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유상의 특기·적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교육부, 1995).

특기·적성교육을 통해 학습자의 다양한 개성을 존중하고 인성 및 창의성을 최대한 신장시키는 교육 체제를 갖추고 모든 학습자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계발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세계 교육의 대세는 교육을 공공사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공교육 투자의 비용을 늘려가는 것이며, 날로 성행되어 가는 과외시장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거나 특기·적성교육으로 흡수하는 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2) 클럽활동

1980년대 초반부터 대학가에서 적극 회자되던 동아리란 말은 현재 중등학교에서도 그대로 사용하는데 곧잘 클럽활동(C.A, Club Activity)과 같은 뜻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본다면, 클럽활동이란 동아리 활동만을 일컫는다. 즉, 지역단위 혹은 전국과 국제단위 등의 청소년단체나 외부 청소년기관의 동아리활동을 제외한 학교 내에서 자발적으로 형성된 소모임이 클럽활동이며(김민, 1999:8, 재인용), 클럽활동은 학교 시간표상에 배정된 시간에 이루어지는 교과 외 학생 집단 활동이다.
클럽활동에 관한 교육과정 지침과 실제를 보면 현재 입시위주의 교육풍토로 인하여 학교 행정가, 교사, 학생, 학부모들의 무관심 속에서 형식적이고 파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평가도 대단히 형식적이다.

클럽활동의 목표는 관심과 취미가 있는 활동분야에 참가하여 소질을 계발하고 신장시키며, 학습한 지식과 기능을 실체 활용하는 기회를 가지게 하여 학습효과를 심화 확대하게 하며, 다양한 개성을 가진 학생들과 집단 활동을 통하여 사회성과 협동심을 기르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가지게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구체적인 모습은 어린이들의 놀이집단, 소꿉장난의 모습에서 찾을 수 있다.

클럽활동의 성격은 학교생활에서 학년이나 학급의 울타리를 떠나서 무학년제에 의한 동호인 집단으로 구성된다는 점과 공통의 흥미나 관심에 따라서 자주와 자율을 요구하는 활동이라는 점에서 그 독특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클럽이 자기발전을 목표로 하는 집단임을 감안한다면, 다소 무질서한 경향이 있다 하더라도 규율이나 규제보다는 의욕신장과 개성존중을 지도의 기본적인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클럽활동의 의미는 흥미와 관심을 같이 하는 학급이나 학년의 소속을 떠나 클럽을 만들어 공동의 관심을 발전시키며, 자발적인 참여를 통하여 개성과 소질을 계발·신장하고, 협동심을 기르며,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다. 클럽활동은 학예활동, 체육활동, 취미활동, 청소년 단체 활동의 5개영역으로 구성된다. 또한 전일제 클럽활동은 월 1회(4주) 또는 3주마다 토요일을 기하여 학과수업이 학교와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책가방 없는 날로 정하여 운영하는 클럽활동을 의미한

다(김학진, 1997:6).

특별활동 영역으로서의 클럽활동은 공통의 흥미와 관심을 같이하는 학생들의 모임으로 그 흥미, 관심을 추구하기 위해 자발적이고 협동적으로 영위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으며 클럽의 구성원들은 자발적, 협동적인 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흥미와 관심사를 추구하고 개성을 신장하며 삶을 풍요롭게 가꾸고자 노력한다. 따라서 클럽활동은 학교교육의 일환으로서 학교의 교육목적을 통합하여야 함과 동시에 학생들에게 건전한 즐거움을 제공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클럽활동의 특징은 첫째, 클럽활동은 흥미나 관심을 같이하는 학생들로 자발적으로 조직하고 자주적인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특정한 기술이나 기능을 기르려고 교사가 일방적으로 지도해서는 안 된다. 둘째, 클럽활동은 학년이나 학급의 테두리를 떠나 활동 하는 것으로 문화적, 체육적, 생산적인 활동을 하게 되며, 성인 생활에서의 문화 활동에 크게 공헌하게 된다. 셋째, 여유 있는 시간에 자신의 개성에 맞는 취미, 교양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자기 생활을 충실하게 키워 갈 수 있는 생활태도가 형성되는데 이것이 바로 클럽활동이 의도하는 목표요, 특징이다 (함종규, 1994).

클럽활동은 특별활동에서 가장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며 그 의의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클럽활동의 교육적 의의를 교육과정 해설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실생활과 괴리되기 쉬운 교과 중심 교육의 단점을 보완함으로써 학생들의 조화로운 인격형성의 기회를 가지도록 해 주는 활동이다.

둘째, 집단생활 속에서 자신의 의사를 올바르게 표현하고 타인의 인격과 의사를 존중하는 가운데 공동의 의견을 모으고 역할을 분담하여 수행함으로써 민주적 시민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이다.

셋째, 클럽활동은 교과교육 내에서 이루어지기 힘든 개성 신장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아실현의 기초를 닦아주는 활동이다.

넷째, 클럽활동은 활동을 통해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발견하고, 흥미 있는 활동을 찾아 스스로 평생 동안 깊이 있게 연구하는 과정에서 보람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생애

교육의 기초를 닦아주는 활동이다(교육부, 1995).

과외 자율 체육활동의 한 형태로서의 클럽활동은 정규체육수업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는 훌륭한 대안의 하나로서 그 기능을 발휘한다. 모든 학생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고 운동기능을 신장시킬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며 선배와 후배 그리고 동료가 한 자리에 모여 사회적인 접촉을 하고 체육클럽 공통의 관심사를 적극적으로 추구함으로써 자주적인 개성의 형성과 민주적, 협동적인 정신의 육성에도 이바지한다.

그리고 체육클럽활동은 전이적 효과도 있어 교과학습에도 도움이 된다. 즉, 체육 클럽활동은 학교생활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므로 여기서 얻어진 활력, 의욕이 정과체육수업의 바탕을 이루게 되어 수업내용의 학습에 더욱 열의를 올리게 된다.

따라서 과외 자율 체육활동의 한 부분으로서 체육 클럽활동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

(3) 생활체육

생활체육은 한 개인이 전 생애를 통하여 능동적이고 지속적으로 체육활동에 참가함으로써 자신의 신체적·정서적·사회적 발달을 촉진하고 급격한 현대사회의 변동에 건강하게 대처하며 다른 사람과 더불어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키는 체육을 의미한다.(임번장, 1992). 개인이 지니고 있는 잠재적인 신체활동의 욕구를 최대한으로 신장시키고 체육을 통한 복지사회의 이념구현을 목적으로 하는 생활체육은 최근 Sports for All의 의미 그대로 유아체육·아동체육·청소년체육·성인전기 체육·노인체육 등의 수직적 영역과 가정·학교·직장·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수평적 체육활동의 전 영역으로 크게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생활체육 활성화 현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현대 한국사회에서의 생활체육의 의미와 필요성 및 역할 등을 알아보고 사회관계 및 사회적 지지와 연결하여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가) 현대사회와 생활체육

현대사회를 일컬어 자동화시대, 정보화시대, 여가 시대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으며 특히 과학기술의 발달에 의하여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현대 과학기술의 발달은 사회질서의 급속한 변화를 가져옴과 동시에 인간생활에 편리함과 풍요로움을 제공하는 반면, 여러 병리적 현상, 즉, 운동부족, 소외, 환경오염, 생활공간의 협소, 성인병 증가, 퇴폐향락 풍조 등을 초래하게 되었다. 특히 산업화의 진전에 따른 노동구조의 변화로 인하여 산업시대가 도래하면서부터 인간의 육체적 활동이 감소되고, 여가 시간이 증가하게 됨에 따라 운동이나 스포츠에 대한 인간의 활동욕구가 증대되어 체육이 현대인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맺기에 이르렀다.

이 처럼 생활체육을 현대인의 중요한 생활영역의 일부분으로 정착케 하는 사회적 환경과 여건으로는 경제발전에 따른 생활의 질적 향상, 사회발전에 따른 생활기회의 확대, 그리고 복리 증진에 따른 생활조건의 개선 등을 들 수 있다.

(나) 경제발전과 삶의 질

경제발전은 궁극적으로 보다 나은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주고 인간의 행복과 복리를 증진시키는 근간이 된다. 특히 경제발전은 노동시간의 단축을 통하여 구체화된다. 즉, 동일한 수량의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노동시간이 단축되었을 때 경제발전의 가능성이 배태된다. 단축된 노동시간은 두 가지 용도로 활용되는데 하나는 물질적 행복의 증진을 위하여 보다 많은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는 데 투입되고, 다른 하나는 정서적 행복의 증진을 위하여 그 시간을 인간성 본연의 실현에 투입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경제발전에 따른 국민소득수준 및 여가의 증대는 일반대중으로 하여금 양적 팽창이 삶이 아니라 질적 향상의 삶을 추구하고 충족시킬 수 있는 사회복지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를 수반한다.

결국, 생활체육은 건전한 체육활동을 통한 모든 국민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의 추구를 기본 이념으로 한다는 점에서 경제발전에 의하여 증대된 국민의 삶의 가치 구현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기본 조건이 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하여 보다 풍요로운 삶을 향유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주고 있다.

(다) 사회발전과 삶의 기회

사회발전은 일반 국민이 보다 다양한 삶의 기회를 제공받고, 삶의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 특히 사회발전에 따른 생활양식의 다양화, 인구구조의 변화, 그리고 도시화 등은 일반 국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회정책의 필요성을 수반한다.

인구의 도시 집중과 생활양식의 변화는 체육인구의 증대를 수반하기 때문에 생활체육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다. 체육인구의 증가에 따른 생활체육 활동의 다양화 및 질적 향상에 대한 요구는 레저 스포츠의 수요를 급증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 특히 신체활동의 절대 부족에 따른 건강의 위협에 대처할 뿐만 아니라, 생산적이고 건전한 여가 선용의 방편으로서 레저 스포츠의 수요가 현저하게 늘어남에 따라 레저 스포츠 산업이 발달하게 되며, 상업체육시설이 질적·양적으로 확충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생활체육이 활성화되는 원동력이 된다.

따라서 생활의 기회를 확대시키기 위한 사회정책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사회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생활체육은 사회발전에 의하여 향상된 국민의 생활기회 및 생활양식을 효과적으로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사회 정책적 배려의 대상이 된다.

(라) 생활체육의 필요성

현대사회에 있어서 체육 및 신체활동은 단순히 건강유지 및 체력단련의 차원을 초월하여 신체 활동적 레크리에이션 영역으로서 오락적 기능 및 사회관계의 한 연결고리로서의 사회 연결망 기능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다. 특히 경제발전에 따른 급속한 산업화 및 고도의 경제성장은 과학기술의 발달 및 노동시간의 단축과 함께 생활수준의 향상, 여가의 증대 등을 수반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스포츠의 대중화 및 보편화 현상

을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왔다. 이는 체육 및 스포츠 활동이 과거의 수단적 신체활동이라는 체력육성 차원의 소극적 인식에서 체육 및 스포츠 활동을 통한 보다 나은 삶의 영위라는 인간의 궁극적 행복을 매개하는 신체활동이라는 새로운 인식으로 변화한 것임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일반대중의 체육 및 스포츠 활동에 대한 인식 및 현대사회의 특징으로 인한 신체활동욕구의 증대는 생활체육이라는 범국민적 운동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으며, 이는 체육 및 스포츠가 현대 사회의 대중문화 및 대중여가에서 주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회제도의 일부분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스포츠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이해와 관심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체육은 업적주의와 경기력 향상에 입각한 엘리트 위주의 스포츠 풍토로 말미암아 스포츠 참여기회와 시설, 프로그램의 혜택이 일반대중은 물론, 저개발 지역이나 빈곤층, 노인층, 여성 및 장애자 등 사회적 소외집단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에게 균등한 배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임번장. 1993). 뿐만 아니라, 과다한 노동시간 및 경제적 궁핍으로 인한 스포츠의 대두 등에 따른 관람 스포츠의 양적 팽창, 근린 체육시설 및 광역 체육시설 미비에 따른 스포츠 참여 공간의 부족 등과 같은 구조적 모순으로 인하여 선수나 특정 계층에 속하는 일부 사람만이 직접 참여하게 되고 대부분의 일반 국민은 관람스포츠를 즐기는 데 그치는 불균형적인 스포츠 참여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체육이 보다 발전된 모습의 복지사회 체육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특정 계층 및 선수 중심의 엘리트 스포츠와 관람 스포츠위주의 스포츠 참여 풍토에서 탈피하여, 평생체육의 차원에서 국민의 건강유지와 체력증진은 물론 사회·정서적으로 안정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민 모두에 대한 직접 참여 운동으로의 전환이 필연적으로 요청된다. 다시 말하여 관람스포츠 및 전문체육 중심의 스포츠에서 대중 및 직접 참여 스포츠에로의 변화는 국민의 체육을 향유할 권리를 평생을 통하여 보장하여 주고, 나아가 체육의 가치를 전사회적으로 내면화하며 극대화시키고자 하는 체육복지의 요청이라 할 수 있다.

(마) 생활체육의 역할

생활체육이 단순한 신체적 활동이 아니라 사회·심리적 건강을 통하여 행복을 추구하려는 현대인에게 있어서 생활의 핵심적 요소가 되며, 활력 있는 생활양식을 제공하는 역할을 지닌다는 점에 있어서 생활체육 관련 학자들은 대체적으로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생활체육은 신체적으로는 물론 정신적, 사회 문화적으로 유용한 여가활동으로서 개인의 생활양식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와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생활체육이 사회에 존재하는 정당성은 이와 같이 생활체육이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이나 집단 혹은 전체 사회를 위하여 바람직한 역할을 한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현대사회에 있어서 사회제도의 일부분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는 생활체육은 개인의 삶과 사회의 안정 및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① 건강 및 체력의 유지·증진

현대인은 기계 문명이 고도로 발달한 현대 산업사회에서 안락하고 편안한 문화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반면에 자연적 신체활동이 극도로 제한되어 운동부족 현상이 발생되고 더욱이 좌업 중심적인 생활에 의해서 신체활동량이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현대인의 이 같은 운동부족은 스트레스의 증가와 함께 심장병, 당뇨병, 요통, 신경과민, 비만, 정신신경증 등 각종 성인병 유발의 원인이 되고 있다. 많은 의학적 보고에서 현대인들이 과거에 비해 심장병, 당뇨병, 신경성질환, 비만, 소회기 장애 등 성인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졌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예방책과 치유책으로 적절한 운동과 신체활동을 강조하고 있다. 인간의 신체는 적당히 사용하면 그 기능이 향상되지만 사용하지 않으면 그 기능이 저하된다. 따라서 적절한 운동을 규칙적으로 행하는 것은 근육·뇌·심장·호흡·순환계 등에 자극을 주어 그 기능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한다. 또한 체중증가 및 지방축적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심장질환이나 동맥경화증과 같은 성인병을 예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운동을 규칙적으로 이행하는 사람은 신체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에 비하여

건강을 보다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생활체육은 적정량의 신체활동 무대를 제공하여 강인한 체력을 육성함으로써 각종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길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임번장, 1989).

② 긴장 해소 및 정서적 안정

도시화, 산업화, 기계화를 특징으로 하는 현대사회에서 현대인들은 주어진 일상 업무에 따라 움직이는 기계의 부속품과 같은 생활을 반복하면서 무엇보다 스트레스로 인한 정서적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현대인들에게는 사회성원의 일원으로서 자신과 사회의 존속을 위하여 주위환경에 잘 적응하고 생존을 지속할 수 있는 정서적 균형 및 안정을 취할 필요가 있다.

정서적 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긴장과 갈등의 해소가 요구되는데, 이는 스포츠 활동의 정화기능과 관련이 있다. 스포츠 활동은 일반적으로 긴장, 공격성 및 좌절과 같은 파괴본능을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으로 방출시키는 수용력을 지니고 있다(Leonard, 1986). 긴장이나 갈등의 감정을 무해한 방향으로 분출시키지 않는다면 자신이나 타인에게 정서적, 심리적 나아가서는 신체적 가해를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을 지니게 되는데, 스포츠는 바로 이와 같은 극단적 감정인 즐거움, 미움, 슬픔 등과 같은 정서적 앙금을 발산시키기 위한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스포츠 경기에서 배태되고 표출되는 격렬한 감정은 종교적 열망이나 의식에서 느끼는 신비한 감정과 마찬가지로 강한 정화효과를 유도한다. 나아가서 스포츠에 직접 참가하지 않는 관중에게도 그들이 관람하고 있는 스포츠에서 나타나는 공격성과 정서의 대상 동화를 매개하여 감정의 정화작용을 일으키도록 한다. 스포츠는 경기자나 관람자에게 공격적 충동을 무해하게 방출하여 해소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여 준다(임번장, 1989). 이와 같이 생활체육은 참가자의 공격성과 좌절감 그리고 소외감 등을 효과적으로 정화시킴으로써 개인의 심리적 적응과 안정에 기여하는 정서적 역할을 담당한다.

3.청소년의 도덕성

가. 도덕성 개념

도덕의 의미를 어원적으로 살펴보면, 동양에서는 「道」와 「德」의 결합으로 형성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道는 인간이 추구해야 할 도리요, 로고스(logos)이며, 사리이고 방식이기도 하다. 德은 곧 得을 통하여 道를 반복적으로 실천함으로써 내면적으로 형성된 도덕적 능력이다. 서구사회에서의 도덕, 즉'morality' 또는 'morals'라는 말은 '빛이 나고 남보다 드러나 보이는 사람의 겉모양'을 뜻하는 라틴어의 복수형 'mores'에서 유래한다. 이렇게 볼 때 도덕이란 인간행동과 인간관계에 관한 행동규범, 그리고 행동규범을 구체적인 실천행동으로 유인하는 근원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행위에 대해 도덕적이거나 비도덕적이라고 말할 때에도 어떤 대상, 즉 타인들과의 상호관계성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도덕교육이 도덕적인 인격형성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규범을 준수하는 습관만이 아니라, 도덕적 가치의 수용 및 이를 실천하려는 굳은 의지와 신념의 형성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한 사람이 도덕적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도덕성을 함양하고 있음을 전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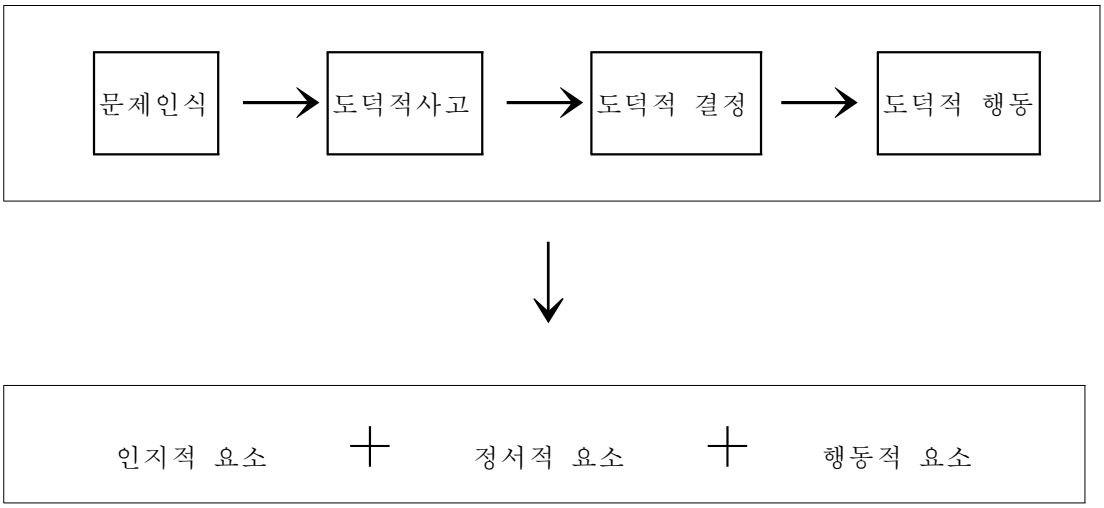
도덕성이란 도덕과는 달리 개인의 내재적 속성으로서 한 사람의 인격성을 구성하는 요소라고 말할 수 있다. 인격성으로서 도덕성을 지니고 있을 때 타자들(others)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대립·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비로소 도덕적 행위가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도덕이란 도덕성의 행동화 현상이며 도덕교육의 내용은 도덕이라기보다는 도덕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남궁달화, 1988). 즉 도덕교육은 인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인간교육으로서 도덕성을 주제로 삼고 있는 것이다.

도덕성의 개념에 대한 이해는 도덕성 연구를 위한 도덕성 측정에 있어서 필수적 요건이다. 그러나 도덕성은 매우 복잡한 심리적 특성으로써 한마디로 규정하기는 매우 어렵다. 도덕성은 도덕생활의 근본이 되는 정신 상태로서 인간을 도덕적으로 행동하도록 만드는 경향성을 의미한다. 우리가 도덕교육을 통해 사회의 질서를 잘 유지시키려

고 한다면 중심문제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 도덕성이다. 도덕교육이란 결국 도덕성을 도야하여 도덕을 수용하여 내면화시키는 일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정인석, 1985). 도덕교육의 문제를 접근함에 있어서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는 한 가지 사항은 성장 발달기에 있는 청소년들의 발단단계상의 특징들을 고려해야 하는 일이다. 청소년기는 아동기와 성인기 사이에서 신체적 사고체계, 사회적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청소년기에 있어서 도덕성의 함양은 책임의식을 형성시켜 독립적인 행동과 올바른 민주시민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도덕적 기질(moral dispositions)이라는 말로 도덕성을 표현하여 인간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의무들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도덕성은 어디에서나 동일한 것으로 보았다. 즉, 명백히 도덕성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여러 가지의 특정 경우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적인 인간관계 속에서 일반적으로 도덕적 행동을 행하도록 자극해주는 도덕적 기질인 것이다.

한편, 도덕성이란 젊은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특정 사회의 일련의 관습이라기보다는 도덕적 문제를 대응하는데 적합한 어떤 절차라고 할 수 있다. 즉, 절차로서의 도덕성이란 광범위한 도덕적 문제 사태에 적용 가능한 것으로서, 절차가 의미하는 바는 그 절차를 운영 또는 활용하는데 수반하는 모든 능력을 포함한다. 도덕적 문제해결의 절차를 바탕으로 도덕교육의 접근은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요소가 도덕적 문제해결의 과정에서 통합적으로 형성되어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종합하여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1> 도덕적 문제해결의 절차와 접근의 관계

오순근(1994)에 의하면, 도덕이 인간관계 내지 사회적 관계를 기반으로 형성되므로 도덕성은 외부에서 부과되는 사회적 요소와 기대에 따라 바람직한 행동을 수행하려는 개인 내부의 심리 성향이며, 개인 내부에서 형성되는 다른 심리 성향과 관련하여 형성되고,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요소가 일련의 유기적 관계를 가지면서 구체적인 사회적 사태에 작용하고 표현된다. 따라서 도덕성은 다른 가치관, 신념, 태도, 동기 등과도 일련의 관계를 구축하면서 도덕적 행동이 구현된다고 하였다.

도덕성은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 제기되는 연구 과제로써 이에 대한 정의는 매우 복잡한 심리적 특성이 존재하여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표 2>는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도덕성의 정의를 기술한 것이다.

<표 2> 도덕성의 정의

연 구 자	정 의
교재편찬위원회 (1973)	도덕률에 합치하려는 인간의 마음과 판단하는 지식 및 도덕률에 따라 행동하는 도덕적 습관
이강주(1983)	개인의 정의적 차원, 인지적 차원, 행동적 차원이 통합된 행동
이돈희(1985)	도덕적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과 성향
박익종(1986)	사회적·문화적으로 결정된 행위의 규범을 내면화한 상태
김대영(1987)	인간관계에서 요구되는 규범을 행동 또는 신념, 태도, 언어 등의 준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는 능력 또는 성향
정순근(1990)	책임감이 충만한 양심이나 자기통제력 또는 도덕적 품성. 즉, 기대된 규범이나 행동양식에 일치하는 심성
이종철(1995)	도덕적 행위에서 요구되는 구성원들 각자의 이득과 본래적 가치를 차별 없이 고려할 수 있는 능력 또는 성향
신윤희(1996)	사회에서 도덕적으로 평가되는 인성의 특성 군과 덕성의 총화

이상과 같은 정의를 종합하여 양병한, 김종구(1994)는 도덕성을 인지적 능력의 측면과 인성적 능력의 측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였다. 또한 도덕성을 어느 한 측면으로 인간의 도덕행동 전반을 모두 설명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두 견해를 모두 포괄하는 의미로 재규정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도덕성을 선·악, 정·사를 판단하는 인지적인 능력과 선행 및 정의를 실천하고자 하는 개인의 심성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였으며, 이를 인성적 도덕성을 포괄하는 보다 넓은 개념의 도덕성인 것이다. 즉 도덕성을 도덕적 감정, 도덕적 판단, 도덕적 행위의 세 가지 요소가 조화 또는 통일된 성향이라고 정의하면서 인성의 하위개념으로 분류하였다.

나. 도덕성 개념에 대한 재접근

도덕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보는 사람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정의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정서적 요소를 강조하는 프로이드는 도덕성을 그 사회의 규범을 내면화하고 그것에 따라 바람직한 행동을 하려는 개인의 내부 심리적 성향으로 보며, 피아제나 콜버그와 같이 인지적 관점에서는 옳고 그름에 대한 사고 능력, 판단 능력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뒤르껭처럼 사회학적 관점에서 보면 도덕은 사고적 영역이라기보다는 삶의 실제적인 영역의 문제로, 사회의 필요에 의해 역사적으로 형성된 일련의 행위규칙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뒤르껭이 자율성을 중시하고 규율정신과 사회집단에의 애착을 강조하는 것도 이러한 이해에 기초한다. 그런가 하면 아리스토텔레스로 대표되는 덕, 윤리학적 관점에서의 도덕성은 이성관 정념·느낌은 엄격히 구분되지 않으나, 공리주의나 칸트적 입장에서 보면 이원론적으로 구분되는 것이기도 하다. 이 밖에도 자유주의적 사고에 반대하고 공공선을 강조하는 공동체 주의적 관점이 있으며, 인(仁)으로 대표되는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유교적 관점이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하게 이해되고 있는 도덕성의 개념을 하나의 합일된 수준의 것으로 정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인의 도덕성 수준을 보고자 하는 본 연구에서 하나의 특정 관점을 취한다는 것도 적합지 않다. 본래 이 연구는 최근 한국 사회에서 '도덕성'이 문제시된 사회적 맥락에서부터 그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따라서 이하에서 정리하고 논의하게 될 도덕성 개념은 이론적으로 쟁점이 되는 부분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현재 제기된 한국인의 도덕성의 문제를 염두에 두면서 도덕성을 지표화하기 위한 하나의 개념 규정의 단계로서 수행되는 것이다.

도덕성이 무엇인가를 검토함에 있어서 우선 사전적 정의를 살펴 볼 수 있다. 한자말인 도덕에 대해서 중국교육백과전서(1991)는 사람과 사람, 개인과 사회 사이의 관계를 조정하는 행위 규범의 총화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도덕성은 개인의 사상 품덕, 선악에 대한 평가, 수양 정도, 풍속, 습관 등을 의미하기도 하고, 도덕 품성으로 표현되

기도 할 뿐 아니라 품덕(品德), 혹은 덕성이라고도 한다. 이는 일정한 사회 규범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개인 사상과 행위 중에 체현되는 것이고, 비교적 일관되게 나타나도록 형성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세 가지 특징으로 정리될 수 있다. 즉, 첫째, 도덕 품성과 도덕 행위는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것이나, 도덕 행위는 도덕 품성의 객관적 내용이다. 둘째, 도덕 품성의 형성은 일종의 자각적인 의지의 행동 과정이다. 셋째, 도덕 품성은 도덕 행위의 전체 표현 속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특징과 경향이다.

또한 일본 사전에서 『廣辭苑』(1995)는 '도덕'을 인간이 행해야 하는 도(道)로서 어떤 사회에서 그 구성원의 사회에 대한, 혹은 구성원 상호간의 행위의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일반적으로 승인되고 있는 규범의 총체이며 법률과 같은 외면적인 강제력을 동반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내면적인 원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오늘날에는 이와 같은 도덕성의 의미에 자연이나 문화재, 기술품등 사물에 대한 인간이 가져야 할 태도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기술되어 있다. 또한 '도덕성'은 도덕의 본질과 도덕 법칙에 견줄 수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한 견해 중 칸트의 정언명법적 설명과 헤겔의 객관적 윤리 입장이 소개되어 있다.

민주주의와 교육의 문제를 '도덕' 문제로 종합하고 있는 듀이는 도덕성이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행동 전체로서, 이는 인격 전체를 지칭한다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 말한 인격 전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구체적인 구성과 특성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 사람 전체를 의미한다. 물론 인격 특성 중에는 대인 관계와 관련성을 갖고 있어서(예를 들면 성실, 정직, 정절, 우애 등) 그것을 특별히 '도덕' 이라고 강조하기도 하지만, 그는 이들 덕목들이 우리가 도덕이라고 인식하지 않고 심지어는 이름조차 붙일 수 없는 수많은 태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따라서 도덕은 인격 전체, 삶의 행위 전체라는 점을 강조한다. 그런가 하면 일본의 도덕 교육론자 엔도 아키히코(遠藤昭彦, 1993) 도덕성이란 인간으로서의 본래적인 모습과 보다 좋은 삶의 방식을 목표로 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도덕적 행위를 가능케 하는 인간적 특성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한편, 한국 사회에서 '도덕' 이나 '도덕성'은 현재는 매우 일상적인 용어가 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 전통 속에서는 앞의 중국 사전의 정의가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도'와 '덕'

은 각기 다른 의미로 사용되어 왔으며,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도덕'이나 '도덕성'의 의미는 '덕'이나 '덕성'이라는 말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덕성을 현대어로 표현하면 '도덕성(morality)'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고 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이다. 그는 '덕성'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도덕성을 내용이냐 아니면 도덕적 판단의 준거냐 하는 논의를 계속하고 있는 형편이지만, 도덕성이란 도덕적으로 삶의 상황을 파악하고, 도덕적으로 사고하고, 도덕적으로 행위 하려는 경향성을 의미한다(이계학, 1993).

사실 도덕의 문제는 학문에 있어서 가장 오래된 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 시간적 길이만큼이나 다양한 접근과 이해가 행해져 왔으며, 도덕성이 무엇인가를 본격적으로 논의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 시간적 길이만큼이나 다양한 접근과 이해가 행해져 왔으며, 도덕성이 무엇인가를 본격적으로 논의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도덕성에 대한 많은 이해와 다양한 접근은 광의적 관점에서 보면 아주 다른 것으로 구분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이상적인 인간상을 구성하는 어떤 성향일 것이기 때문이다. 위에 설명하였던 도덕성 개념에 대한 재접근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한국교육개발원, 2000).

<표 3> 제 관점에서 본 도덕성 개념과 내용

입장		대표학자	도덕성	도덕적 인간	도덕성 형성과정	도덕성의 내용
심리학적 접근	정신분석학	프로이드융	사회의 지배적 행위규범을 내면화하고 그것에 따라 바람직한 행동을 하려고 하는 개인 내부의 심리적 성향	사회의 규범을 받아들여 충실히 실천해 가는 사람	동일시와 내면화를 통해 건전한 초자아가 성립하는 과정에서 형성됨	도덕적 가치 규범과 법질서를 따르고자 하는 내적 자제력, 양심과 죄책감
	행동주의	파블로프 스키너	사회적으로 규정된 가치 및 행위 규범을 내면화하여 충실히 실천하는 성향	그 사회의 지배적인 규범을 잘 받아들여 내면화하고 사회의 요구와 기대에 맞는 행동을 하는 인간	보상이나 벌과 같은 강화를 통해 도덕적 행동과 성향을 학습함	사회의 지배 규범
	인지발달론	피아제 콜버그	도덕적인 삶과 관련하여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을 마땅히 해야 하거나 하지 말아야 하는지, 그 이유와 정당한 근거가 무엇인지를 사고하고 판단하는 능력, 즉 도덕적 사고능력, 판단능력	자기 내부의 반성적 검토를 거쳐 보다 높은 원리에 일치하는 행위를 스스로 판단, 선택, 실천하는 인간	도덕적 토론을 통해 사고력과 판단력을 길러 높은 도덕 단계로 나아감. (타율적 도덕성에서 자율적 도덕성으로 발전)	도덕적 자율성 존경과 복종 협력, 상호존중 이타성, 사회에, 평등, 공감적 연민, 정의, 공정 자율성과 창의성 -정의 상호성, 공정성, 정의, 평등

<표 3> 계속

입장		대표학자	도덕성	도덕적 인간	도덕성 형성과정	도덕성의 내용
사회학적 접근		뒤르껭	도덕은 행위를 미리 결정하는 행동 규칙의 체계로 도덕성은 이러한 행동 규칙의 체계에 자신을 조화시키는 자율성을 획득함으로써 발달되어감	사회 규범에의 존중과 사회 집단에 대한 애착을 가진 자율적인 인간	규율정신, 사회집단에의 애착, 도덕적 자율성으로 발달함.	-자율성 -규율성 : 규율 준수 권위존중 :규칙성에 대한 선호와 의무수행 절제와 극기 -사회집단에의 애착 타인 배려감정, 이타심(자애), 동정심, 공감 공동체 정신
철학적 접근	덕 윤리학	아리스토텔레스	인간 이성의 기능과 활동이 가장 잘이루어지는 덕의 상태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공동생활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덕들을 구비하면서 개인의 자아를 실현하는 인간	실천과 노력을 통한습관화, 정념의 단련, 이성의 훈련으로 도덕적 덕과 지적덕을 획득함.	용기, 관용, 절제의 도덕적 덕, 실천적 지혜, 철학적 지혜
	의무 윤리학	칸트	도덕법칙을 이성적 판단에 의해 의무로서 준수하는 것	도덕법칙이 명령하는 바를 존중하고 따르는 사람	도덕적 훈육과 도야를 통해 도덕적 입법자가 됨	·도덕 법칙 준수 ·선의지 ·합리적 자율성
	공리 주의	밴담, 밀	공리를 해치지 않고 최대행복을 가져오는것		행복 추구를 위한 동등한 권리를 전제로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추구함	·이타심 ·공정과 평등 ·의무감

<표 3>계속

입장		대표학자	도덕성	도덕적 인간	도덕성 형성과정	도덕성의 내용
철학적 접근	공동체주의	맥킨타이어, 왈쩌 등 신공동체주의자	다원적 도덕성에 대해 개방적 태도를 가지고 의사소통하며 비판적 태도로 자기를 성찰함으로써 사회의 공공선을 추구함	다양한 공동체와 구성원의 다원적인 합리성과 도덕성을 인정 수용하면서 각자의 공동체 안에서 공공선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	개방성과 비판적 이성의 능력 합리적 의사결정 공공선 실현을 위한 규칙 준수 참여와 협력 타인의 복지에의 헌신	-일반적인 도덕적 가치 : 정직 -다양성 존중에 필요한 가치 : 다양한 사고와 행동 방식의 허용, 인간 존엄성 존중 -시민의 덕 : 자기절제, 법과 규칙의 수용, 타인 권리 존중, 공동과업에의 헌신 등
	유교	공자 맹자 주자 퇴계 율곡	선한 본성이 발현하여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	본연의 성을 온전하게 보존하고 이를 드러내는 인간	학문과 수양을 통한 내면적 성찰과 인간관계, 덕목을 예에 맞게 실천함	・자기 수양 ・인, 효, 자(慈) 제(悌) ・예 ・오륜(五倫)등

다. 도덕성과 스포츠 활동

스포츠가 도덕성 발달에 공헌하느냐 아니면 도덕성의 발달을 저해하느냐는 실증적인 연구 결과를 가지고 따져보아야 한다.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의 도덕적 추론 능력은 참여하지 않는 사람과 차이, 스포츠 활동에서 도덕적 추론 능력과 도덕적 행동과의 관계, 스포츠 상황이 도덕적 판단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스포츠 활동을 도덕성 발달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방법은 없는 지와 같은 문제를 살펴보아야 한다.

스포츠 활동과 도덕적 추론 능력 발달과의 관계를 고려 할 때 첫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선수와 선수가 아닌 사람들의 도덕적 추론 능력은 차이가 나는가의 문제이다. 이 문제는 스포츠가 과연 도덕성을 함양시킬 수 있느냐의 문제에 대한 해답과 관련된 가장 핵심적인 문제이다. 이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많은 학자들의 관심과는 달리 그다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스포츠 활동과 도덕적 추론 능력과의 관계를 규명하려는 연구는 주로 도덕적 추론 능력과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같은 연령층의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도덕적 추론 능력이 높으냐 그렇지 않으면 낮으냐를 검증해 보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스포츠와 도덕적 추론 능력의 관계에 대한 연구로서 대표적인 것은 Bredemier와 Shield (1984a, 1986a)의 연구이다. 이 연구들은 대학과 고등학교 수준의 남녀 농구선수들과 같은 연령층 학생들의 도덕적 추론 능력의 성숙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일상생활과 스포츠 활동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상적인 곤경상황을 제공하여 이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같은 연령층의 일반 학생보다 운동선수들이 두 가지 상황 모두에서 도덕적 추론 능력이 열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포츠와 도덕적 추론능력과의 관계에서 고려할 수 있는 두 번째 문제는 종목의 특성에 따라서 참여하는 사람들의 도덕적 추론 능력에 차이가 있느냐의 문제이다. 종목에 따라서 스포츠는 축구나 농구와 같이 신체적 접촉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스포츠가 있는가 하면 배구나 탁구와 같이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는 스포츠도 있다. 신체적인 접촉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스포츠에 참여하는 선수들은 스포츠 상황에서 도덕적인 공경상황에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는 스포츠보다 많다. 또한 축구나 배구와 같은 종목의 스포츠는 참여하는 선수들의 상호 의존도가 높은데 비하여 기계체조나 양궁과 같은 종목의 선수들은 상호 의존도가 매우 낮다. 상호 의존도가 높은 스포츠는 항상 동료선수를 의식해야 하기 때문에 상호 의존도가 낮은 스포츠와는 다른 경험을 제공할 것이 예상된다.

이를 규명하기 위해 Bredemier와 Shield는 앞서 소개한 연구에서 수영선수들의 도덕적 추론 능력을 측정해 본 결과 수영선수들의 도덕적 추론 능력은 농구선수들의 경우처럼 일반 학생들과 차이가 나지 않았다. 즉 수영선수들의 도덕적 추론 능력은 일반

학생들보다 일상생활 장면에서 약간 낮았으나 스포츠 상황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Bredemeier와 Shield (1984a, 1986a)의 연구 결과는 우리에게 수영선수와 농구선수의 도덕적 추론 능력이 다른 것은 그것이 비접촉 스포츠여서 인가? 와 같은 의문을 던져 준다.

Bredemeier, Weiss, Shield, & Cooper(1986)는 4-7학년 어린이들의 스포츠 참여 및 관심과 도덕적 추론 능력 그리고 공격 성향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접촉이 많은 스포츠에 참여하는 소년과 소녀들은 스포츠에의 참여 정도와 관심이 높을수록 도덕적 추론 능력이 미숙하고 공격적 성향이 높았음을 보고하고 있다. 이 연구와 Bredmeier와 Shield(1984b, 1986a)의 연구는 우리에게 스포츠 참여와 도덕적 변인의 관계를 중재하는 요소는 다른 무엇보다도 스포츠 종목의 구조적 특성일 수 있을 것이라는 중요한 시사를 주고 있다.

선수들이 참여하는 경기수준도 스포츠와 도덕적 추론의 문제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금까지 스포츠 참여 경력이나 참여수준과 도덕적 추론능력과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규명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나 스포츠 참여경력이 많을수록 참여하는 경기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공격행동이 많이 일어난다는 Silva(1983)의 연구 결과와 Bredemeier와 그녀의 동료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연구는 경력이나 참여수준과 도덕적 추론 능력과 관계에 대한 추론을 가능하도록 한다. 이러한 추론을 더욱 뒷받침하는 연구들이 있다. Bredemeier(1985)는 남・여 고등학교와 대학교 농구 선수들에게 일상생활과 스포츠 경기 상황에서 일어나는 신체적인 접촉이 없이 일어나는 위험 행동에서부터 상대를 불구가 될 수 있게 하는 행동에 이르기까지 6단계로 되어 있는 상황을 제시하고 그것을 합법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를 물었다. 이 연구에서 피험자들이 도덕적 성숙도가 높을수록 위험행동을 불법이라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었고 고등학교 선수들이 대학의 선수들보다 이러한 행위를 불법이라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 연구 결과를 가지고 선수의 경력이나 참여하는 경기수준이 도덕적 추론 능력과 관계되어 있다고 추론하기에는 이르다. Bredemeier, Weiss, Shield, & Cooper(1987)에 의하여 이루어진 후속 연구는 경력이나 경기 수준과 도덕적 추론

능력의 관계를 추론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주고 있다. 이 연구에 의하면 도덕적 추론 능력이 낮을수록 위험한 공격 행동을 정당한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었고 공격적인 성향이 뚜렷하였다. 이처럼 선수로서의 경력이나 경기 수준이 높을수록 도덕적 추론 수준이 낮고 도덕적 추론 수준이 낮을수록 공격행동을 정당하게 받아들이고 공격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은 경력이나 경기 수준이 높아질수록 도덕적 추론 능력이 낮을 수 있다는 추론을 가능하게 하여 준다. 도덕 발달에 대한 인지발달이론은 인위적인 공격상황에 대한 반응을 토대로 연구되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따라서 개인이 가상적인 공경상황에 응답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실제로 접하는 도덕적 곤경상황에서도 추론하고 행동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과연 사람들의 도덕적 추론 단계만으로 그 사람의 도덕적 행동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은, 사실 도덕적 추리 능력이 단순히 사고와 판단 그리고 추리의 수준에만 관련이 있고 실제 행동과는 관련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Toner & Potts(1981)의 연구에 따르면 어린 아동의 경우 도덕적 판단만으로 남을 속이거나 규범을 위반할 수 있는 상황에서 실제 행동을 예측할 수 없었다. 그러나 고학년 아동이나 청소년, 그리고 젊은이의 경우에는 도덕적 추론 능력과 행위 간에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었다(Blasi, 1983). 도덕적 추론 능력으로 도덕적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이다.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Bredemier와 Shield (1984b)는 도덕적 추론 능력의 단계와 실제 행동과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서 그들은 대학생 남녀 농구선수들의 도덕적 추론 능력의 성숙도와 선수들의 공격행동을 측정하였다. 선수들의 공격행동은 코치들에게 경기 중 공격행동을 하는 비율에 따라 선수들의 순위를 정하도록 하였다. 코치가 정한 순위를 공격행동 점수로 하였을 때 도덕적 추론 능력이 낮은 사람이 공격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경향을 보였다. 즉, 도덕적 추론 능력에 있어서 낮은 단계인 전 인습단계 점수는 높은 공격 점수와 관련되어 있었고 높은 단계인 후 인습 단계는 낮은 공격 점수와 관련되어 있었다. 물론 이 연구는 공격행위를 실제로 관찰한 결과를 자료로 활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신뢰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 인지론적 발달 이론가들은 개인의 도덕적 추론수준은 여러 가지 다른 상황에서도 비교적 향

상성을 유지한다고 주장한다. 개인의 도덕적 추론 수준이 곧 그 사람의 전체적인 인지 발달 수준을 반영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논의했던 스포츠 관련 연구에서 밝혀진 선수들의 도덕적 추론 능력이 낮다는 증거들은 스포츠가 도덕적 추론 능력을 마비시킨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것인지는, 설사 이러한 증거들이 스포츠 활동이 도덕성을 마비시킨다는 증거는 아닐지라도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문제에 직면하여 Bredemeier와 Shield(1983)는 Kohlberg 등(1972)의 '감옥의 곤경(Prisons' dilemma) 상황'을 스포츠 상황에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다. Kohlberg 등(1972)에 의하면 감옥은 일상생활과는 다른 도덕적 추론이 요구되는 '예외적인 상황'이다. 그들의 이러한 결론은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죄수들의 도덕적 추론 능력을 조사한 결과로 얻어진 것이다. 그들은 죄수들에게 감옥에서 부딪칠 수 있는 가상적 곤경 상황과 일상생활의 곤경 상황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반응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죄수들은 감옥의 곤경상황에서 일상의 곤경상황에서 보다 더 낮은 단계의 도덕적 추론을 하고 있었다. 이 연구를 통하여 그들은 감옥과 같이 도덕적으로 낮은 규범이 지배하는 집단에 소속되어 있을 때 집단의 도덕적 분위기가 개인에게 강요되어 보다 높은 추론 능력이 있는 사람조차도 낮은 추론을 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감옥이라는 '예외적인 상황'이 일상과는 다른 도덕적 추론을 하게 한다는 것이다. Bredemeier와 Shield(1983)는 선수들이 도덕적 추론 능력이 낮은 이유를 스포츠 상황이 감옥과 같이 '예외적 상황'이라는 가정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스포츠 상황은 그 구조가 감옥과 같이 예외적인 판단을 요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들에 의하면 우선 스포츠 경기는 일정한 공간과 시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상생활과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분리되어 있다. 또한 스포츠 경쟁에는 심판의 휘슬, 시간을 알리는 부저, 장소를 알리는 깃발, 선수들의 유니폼, 시합전후의 의식과 행사 등 여러 가지 심벌이 스포츠의 세계를 일상의 세계와 분리시킨다. 이러한 심벌은 스포츠의 성격인 '세계 속의 세계(world within world)'라는 분위기를 창조하고 강화한다. 더구나 스포츠의 세계는 인위적인 규칙과 역할에 의하여 지배되고 아무런 내적인 의미와 가치가 없는 승리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세계이다. 따라서 스포츠 상황은 감옥과 같이 '예외적인 상황'이라는 것이다.

스포츠가 예외적인 상황이라는 가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Bredemmeier와 Shield(1984a)는 선수들로부터 얻은 스포츠 상황의 도덕적 추론 점수와 사회적 상황에서 얻은 도덕적 추론 점수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일상생활 장면에서 도덕적 추론 수준이 스포츠 상황에서 보다 운동 종목이나 학교 수준, 성별, 그리고 선수로서의 위치에 관계없이 높았다.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Bredemeier와 그녀의 동료들(1986b)은 게임추론 이론을 제안하였다. 이 이론에 의하면 스포츠의 독특한 특성이 스포츠 상황에서 도덕적 미성숙의 특징인 자기중심성(egocentrism)을 도덕 판단의 지배 원리가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상황이 개인의 도덕적 추론 형식에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은 판단의 기준을 자신의 욕구만족에 두는 성향을 말한다. 사실 스포츠는 모든 사람의 이익을 동등하게 생각해야 하는 도덕적 의무를 보류하고 즐겁고 사소한 도덕적 일탈로써의 자기중심적 행동을 허용한다. 경쟁이 서로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소원이나 목표나 욕망을 자신의 것과 동등하게 취급할 여유가 없는 것이다. 이처럼 스포츠 경쟁은 어느 정도의 자기중심적 판단을 필요로 하는 구조이다. 때문에 미숙한 도덕적 판단을 합법화한다. 그러므로 세심한 계획과 엄격한 규칙의 적용만이 스포츠 활동에서 자아 중심성 판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결과들을 막고 참여자를 보호 할 수 있다. 그러나 스포츠상황이 예외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개인을 일상의 도덕적 속박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 선수들은 여전히 인간이기 때문에 도덕적 책임을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 스포츠가 실제 세계 안에서 존재하고 실제 세계와의 관계를 끊을 수 없는 한 게임 추론이 기본적인 도덕적 규범을 대치할 수는 없는 것이다. 게임추론이 합법적인 것으로 남아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스포츠에서 자기중심적 판단을 단지 놀이로서 해야 한다.

스포츠가 게임추론이론에서와 같이 스포츠의 독특한 도덕적 추론 형식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현실 생활과 유리된 상태에서 논의되어진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논의한 스포츠 참여와 도덕적 미성숙에 대한 우려는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 상황은 다르다. 수준 높은 경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스포츠는 게임추론

이론의 '예외적인 상황' 이라는 특성을 잃고 스포츠의 범위를 넘어선 일상생활의 도덕적 추론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물론 수영과 같은 경기는 경쟁 동안 대인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도덕적 교환이나 협상이 없다. 따라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반면에 농구와 같은 스포츠는 선수들 간의 상호 의존도가 높아 경기 중 다양한 형태의 대인관계가 교환된다. 이러한 스포츠 활동은 일상생활의 장면과 매우 유사하다. 스포츠에서의 도덕 판단과 일상에서의 도덕 판단이 혼동되기 쉬운 것이다. 특히 프로스포츠와 같이 수행에 따라 보상을 받는 경우 스포츠 활동에서의 도덕적 판단과 일상생활에서의 도덕적 판단은 구분되지 않는다. (Bredemeier & Shield, 1983). 스포츠경기에서의 도덕 판단 기준이 일상생활에서도 그대로 활용될 것이 예상되는 것이다. 앞 절에서 인용한 연구 결과들에서 스포츠선수들의 도덕적 추론 능력이 일반인들보다 낮고 접촉 스포츠 선수가 비 접촉 스포츠 선수보다 낮으며, 경력이 많은 선수가 적은 선수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난 것은 바로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스포츠 활동과 도덕적 행동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스포츠 상황에서 순서를 지킨다든지 다른 이와 협조하는 일과 같은 친 사회적(prosocial) 행동에 관심을 두고 있다. 이들 연구들은 대체로 스포츠 경쟁이 도덕적 행동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Kleiber와 Robert(1981)는 초등학교 고학년 어린이들에게 8일 동안 발야구 경기를 시키고 협동과 이타행동을 경기에 참여하지 않은 집단의 어린이들과 비교하였다. 그 결과 발야구 경기를 한 어린이들의 이타행위가 현저하게 줄어들어 있었다. Orlick(1981)도 두 개의 학교에서 5세 어린이들을 18주 동안 협동적 게임과 전통적인 게임에 참여시키고 어린이들이 과자를 다른 반의 어린이들과 함께 나누는 정도를 관찰하였다. 관찰 결과는 예측한 대로 경쟁적 게임에 참여한 어린이들의 나눔 행동이 협동적 게임에 참여한 어린이들의 나눔 행동보다 적었지만 일관성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협동적 게임에 참여한 한 학교 어린이들의 나눔 행동은 증가한 데 비하여 다른 학교 어린이들의 나눔 행동은 증가하지 않았다. 경쟁적 게임에 참여한 어린이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한 학교 어린이들의 나눔 행동은 현저하게 줄어든 데 비하여 다른 학교 어린이들의 나눔 행동은 줄어들지 않았다. 이처럼 스포츠 활동에의 참여

는 도덕성의 발달을 돕는 다기보다는 훼손하는 측면이 강하다. 스포츠의 속성이 경쟁을 그 본질로 하기 때문이다 과연 스포츠 활동은 Bredemeier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자기중심성을 놀이하는 장이 될 때에만 도덕성의 훼손을 줄일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은, Bredemeier의 주장에 따르면 스포츠 활동은 세밀한 계획과 엄격한 지도자에 의하여 지도되어야 할 것이다. 즉, 스포츠가 도덕 훈련의 장이 되기 위해서는 활동이 어디까지나 교육활동으로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스포츠 활동이 세심한 계획과 지도하에 교육적인 분위기에서 이루어질 때 도덕적 발달과 도덕적 행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가 있어 주목된다.

Giebink와 McKenzie(1985)는 체육시간과 레크리에이션시간에 소년들의 반사회적 행동을 고치기 위하여 지시, 칭찬, 모델링 그리고 보상을 사용한 결과 스포츠맨다운 행동은 증가하였고 반사회적 행동은 현저하게 줄었음을 보고하고 있다. 이 연구는 표본이 4명으로 너무 작기 때문에 일반화하기에는 미흡함이 있지만 스포츠 활동의 장이 이른바 '축소된 사회' 임을 고려할 때 스포츠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훌륭한 도덕성 훈련의 장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Hellison(1990)과 그의 동료들 또한 이와 유사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그들은 범죄에 빠지기 쉬운 청소년들에게 책임감을 심어주기 위한 체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20여년동안 기울여온 경험을 바탕으로 체육프로그램을 잘 활용하면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청소년들에게 자아 조절, 타인의 권리 존중, 친 사회적 행동들을 기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Bredemeier, Weiss, Shield 와 Shewchuk (1986)의 연구는 잘 계획되어 지도되는 스포츠 프로그램이 도덕성을 발달시킬 수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보여주고 있다. 이들은 6주 동안 스포츠 캠프에 참여한 5-7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스포츠 활동의 도덕성 발달에 대한 영향을 검증하기 위한 현장실험을 하였다. 어린이들은 도덕 발달 이론에 따라 통제집단을 포함한 세 집단으로 나뉘어 세 집단 모두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정당한 경기, 서로 나누기, 언어적 신체적 공격, 옳고 그름 등과 같은 도덕적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였다. 세 집단 중 한 집단은 교사나 동료들이 시범을 보인 친 사회적 행동을 했을 때 강화를 받는 사회학습 집단이었고, 다른 한 집단은 교사가 클래

스에서 어린이들 간에 도덕적 곤경이 일어날 때 도덕적 토론을 유도하는 인지론적 발달 집단이었으며 나머지 한 집단은 교사가 지시하는 규칙에 따르는 전통적인 체육학습 방법으로 지도하는 통제 집단이었다. 그 결과 사회적 학습 집단과 인지론적 발달 집단은 도덕적 추론 능력이 의미 있게 발달하였으나 통제집단은 변화가 없었다. 이 연구 결과는 스포츠와 인간발달에 관심이 있는 모든 이들에게 중요한 시사를 던져주고 있다. 스포츠 활동이 도덕성 발달에 공헌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은 스포츠가 경쟁을 그 본질로 하기 때문에 수많은 도덕적 갈등 상황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일 것이다.

4. 청소년의 여가 선용

가. 여가의 개념

현대사회에서의 여가 현상이 삶의 중요한 영역으로 등장하고, 하나의 중요한 사회현상으로 인식되면서 여가라는 용어에 대한 일반적 개념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분석하는 입장에 따라 그 개념과 정의에 대한 이론들이 학자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명확히 규정하기란 쉽지 않다.

여가란 Latin어의 'Licere'에서 연유한 말로서 일이나 작업으로부터 떠나도록 허용된다. (to be free) 즉'허락'이란 뜻이다. 당시의 뜻은 귀족계급은 일을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지적, 문화적, 예술적 활동을 할 자유를 부여받고 있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Greece시대에는 leisure의 뜻으로 'Scole'라는 말이 사용되었으며, 스콜레(Scole)는 레져(leisure)와 Education의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어 현재의 학교(School)의 어원이 되었다.

여가에 대해서 그리스 시대에는 높은 진리를 추구하는 명상이라는 의미에서 시작해서 이후에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다양하게 개념을 정의 내려왔다. 흔히 여가를 정의할 때면 잉여시간, 레크리에이션, 휴양, 스포츠, 즐거움, 오락 등 다양한 개념을 떠올리게

된다. 떠올리는 단어가 많은 만큼 우리는 여가에 대한 다양한 정의를 가지고 있으며, 개념의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진다. 비록 여가의 개념에 대해 학자들의 많은 논의가 있어 왔고 진행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널리 인정되고 있는 개념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여가는 시간으로서의 여가이다. 여가는 하등의 구속을 받지 않은 자유로운 시간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서 자유로운 시간으로서의 여가를 말하고 있으며 이 견해는 현재까지도 지배적인 견해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하루 24시간 가운데 생리적 기능 유지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노동의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견해는 Parker(1972)의해서 주장되어 오고 있다.

Nash(1960)에 의하면 '여가는 노동, 수면과 아울러 기타 필요한 활동에서 벗어난 자유시간에 관련되고 있다.'고 하였으며, 여가는 '일에서 해방된 시간, 자유 시간, 나 자신의 시간, 자기의 취미를 즐길 수 있는 시간, 그리고 휴양'이라고 하였다. 여가는 생활의 실제적 필요가 동반된 활동이 끝난 후의 자유 시간으로 여가의 일반적 개념은 1일 24시간 중에서 일이나 수면, 기타 필수적인 것에 바쳐진 시간을 제외한 시간(여유시간)으로서 규정되고 있다.

여가시간을 공식으로 표시한다면 아래와 같다.

※ 일상생활시간 - (직장시간 + 수면시간 + 생활준비시간 + 가사시간 +
부업시간 + 식사시간 + 교통시간 + 기타)

※ 생활준비시간(세면, 용변, 목욕, 몸치장 등 생리위생시간을 뜻함)

위에서 말한 여가의 개념을 정리하자면 여가는 노동시간 이외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간적 개념의 여가는 단순히 자유시간의 개념을 넘어서 여가는 자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동시간을 단축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둘째, 활동개념으로서의 여가이다 '여가는 개인이 직장이나 가정, 사회에서 과해진 의무로부터 해방되었을 때 휴식을 위해서, 기분전환을 위해, 또는 이득과는 무관한 지식이나 능력의 양성, 자발적인 사회참여, 자유로운 여가를 활동개념으로 보는 이 견해는 자유시간에 행하는 자발적 활동을 뜻하며 여가에 대한 정의는 휴식, 기분전환, 자기

개발 등 세 가지의 기능으로 압축되며, 나아가 이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각자가 자기취미에 의해서 행하는 여러 가지 활동의 총체'라는 뜻도 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여가를 자유 시간에 일어나는 개별 활동으로서 본다는 점에서 시간으로 보는 관점과 확연히 구별할 수 있다. 여가 활동으로서의 정의는 여가시간 중에 행하여지는 활동으로 해석되며, 여가는 그 내용이 참가자에게 중요한 뜻을 갖는 것으로 활동자체에 목적이 있으며,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만, 시간과 활동 차원에서 고찰 할 수 있다(Dumazedier,1974).

이는 자유 시간 중에 일어나는 활동 중에서도 경제적 목적과 각종 의무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활동만이 여가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유시간이 곧 여가라고 할 수 없으며, 자유 시간 중에 의무와 노동으로부터의 자유, 기분 전환성, 재 생산성의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의 활동만을 여가로 규정한다.

셋째, 의식 개념으로 여가를 볼 수 있다. 여가란 자유시간이며, 자유 시간에서 행하는 활동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 이와는 반대로 여가란 즐거움이나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태도나 정신상태(state of mind or state of being)를 말하는 개념으로도 주장되고 있다.

여가에 관해서 선구적 개념규정을 했던 Lundburg(1934),는 전자의 여가를 객체로서 규정하고 있는데 대해서, 후자의 여가를 주체의 측면에서 규정하고 있다 (Lundburg외, 1934). 그리스의 철학자 Aristoteles에 의하여 대표되는 고전적 여가 정의는 여가를 존재의 상태(State of being)로 보고, 삶의 목적으로서 여가 그 자체를 영위하여야 한다고 주지시키고 있다.

이 견해의 핵심은 여가를 시간적 개념에서 벗어난 어떤 활동에서 오는 심적 태도나 정신 상태를 말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 Dahl(1971)은 '오늘날 인간이 바라는 여가란, 자유시간이 아니라 자유정신으로 즉 취미나 즐거움을 더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쁜 일정으로부터 심리적으로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신의 은총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평화감이다'라고 하였다. 여가를 시간이나 활동 그 자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의 심리적, 정신적 의식 또는 자유의 질적 내용에서 여가의 기준을 구한다.

Dahl(1971)은 '오늘날 인간이 바라는 여가는 자유시간이 아닌 자유정신으로써, 취미나 즐거움을 더해 가는 것이 아니고 바쁜 일정으로부터 심리적 해방을 시켜줄 수 있는 신의 은총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평화감이다'라고 하였다.
즉, 아무리 자유 시간을 가졌다 하더라도 마음이나 정신상태가 자유스럽지 못하고 평화스럽지 못하면 도리어 긴장과 불안과 초조, 스트레스에 쌓여 안절부절하기 때문에 이를 여가라 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기술한 내용을 정리하면, 여가는 시간적, 활동적, 의식적 여가 개념이다. 여가는 생리적 필수 시간과 노동시간을 제외한 여가 시간에 자신이 자유롭게 선택한 활동에서 만족감을 느끼고 내적으로 편안한 상태에서 자아실현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나. 여가의 필요성

여가생활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새로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소양을 갖추는 훈련기회를 제공해준다. 여가활동을 통한 자기표현·자기해방·자기만족 달성의 경험은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자세로 생활에 임하게 도움을 주게 된다. 그러므로 청소년에게 여가의 순기능을 제공하고 권장하는 반면, 역기능은 극소화해 그들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삶에 임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해야 한다.

청소년 여가활동의 긍정적인 면을 네가지로 보고 있다. 첫째, 청소년의 여가활동은 인격형성에 효과적이다. 여가활동은 성숙기에 접어드는 그들에게 신체적·정신적·사회적·정서적으로 바람직한 인격형성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청소년기의 여가 선용은 매우 중요하다. 여가활동을 통해 습득된 지혜는 성인이 되어서도 여가를 선용하는 밑거름이 된다.

둘째, 사회적 인간관계 형성의 측면에 있어서도 필요하다. 청소년기에는 집단적 활동을 하기 쉽고 좋아하는 시기인 만큼, 그들의 집단생활 속에서 여가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면 원만한 의사소통과 문제해결의 능력을 키워줄 것이다. 올바른 여가활동은 또래를 진지하게 만나고 깊이 있는 사귐을 통해 서로 이해하면서 성장하도록 도와준

다.

셋째, 여가활동은 신체적 변화와 자아정체의 심리적위기·사회구조적 긴장과 불안한 감정의 찌꺼기를 발산하고 활기찬 자신감을 갖게 한다. 여가활동은 숨겨져 있는 창조적인 능력을 계발하고 발휘하게 함으로써 주체적 상상력을 키워 줄 것이다.

넷째, 비행 예방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건전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면, 청소년 문화를 창조하고 일탈행동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여가활동은 장래 직업선택의 예측 인자이며 일의 성취도와도 관련이 있다. 학자들이 청소년들의 여가활동을 중요하게 다루는 이유도 문화를 창출하고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인간이 되게 하는 까닭에 있다(김주영, 2000).

일반적으로 문화가 발달한 나라일수록 청소년기는 길어지고 여가시간도 많아진다. 청소년들은 생리·신체적 발달이 빨라지는 대신, 가정과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이유기가 단축되면서 친구들과의 집단생활의 시기도 점점 앞당겨지고 있다. 여가에 대한 욕구를 가정이나 학교에서 충족시켜 줄 수 없다면, 청소년들은 나름대로의 여가를 추구하려고 하고 잘못된 시간을 보내게 된다. 이 경우 개인적인 여가비용이 부족하거나 상대적으로 적다고 느끼게 되면 불만과 스트레스가 쌓인다. 이런 불만과 스트레스는 청소년들의 발달과정에 정신적·신체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친구관계에 있어서 원만한 생활을 방해함으로서 사회화 과정에도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이와 같은 연유로 청소년 여가활동은 상업적이고 쾌락적인 성인의 여가활동에서 보호되어야 하며, 그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지도력이 필요하다. 청소년의 적절한 여가선용은 현재생활을 보람 있고 가치 있는 것으로 전환 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비하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어져야 한다. 청소년 여가활동을 총체적으로 파악하여 건전한 여가활동은 활성화시키고, 여가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은 최소화하는 사회적·정책적 방안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김주영, 2000).

다. 여가활동 유형

여가활동 유형은 분류기준과 방법에 따라 상이한 형태로 구분된다. 여가활동이 상호 유사한 내면적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활동 유형을 구분할 수 있는 분류 기준의 다양성에 그 원인이 있다.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여가활동 유형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Mckechnie(1974)는 여가활동을 주로 손과 도구로 이용하는 조직적 활동, 재료를 이용하여 대상을 만드는 공작적 활동, 활동자의 지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활동, 일상 주변에서 행할 수 있는 일상적 활동, 그리고 활발한 신체 활동을 필요로 하는 스포츠 활동으로 분류하였다. Epperson(1997)은 여가활동을 관람 활동, 야외 레크레이션 활동, 개인소집단 활동, 기계적 스포츠 활동, 클럽 리조트 별장 활동으로 분류하였고 여가의 유형을 준여가(semi-leisure), 수동적 여가(passive leisure), 완전 여가(total leisure)로 나누고 준여가는 신체회복 활동, 학습, 종교 활동, 조직 활동 등을 포함시켰고, 수동적 여가는 음악 감상, TV 시청, 독서, 신문 구독, 영화 감상 등을 포함 시켰으며, 완전 여가는 관람, 오락, 사교 활동과 스포츠, 능동적 여가 및 휴양 등을 포함시켰다.

또한 여가 활동을 다른 사람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 혼자 할 수 있는 개인 활동,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의 기회가 제한되어 있고 주로 무생물을 이용하는 병행 활동,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신체적 활동을 통하여 활발한 상호작용을 하는 결합 활동 등으로 분류하였다.

Gold(1988)는 여가 활동을 활동 경험에 기초하여 활동의 주된 경험이 신체적 노력인 신체적 여가활동의 주된 경험이 사회적 상호작용인 사회적 여가, 문화, 교육, 창조 및 심리적인 활동인 인지적 활동, 자연 자원을 이용하는 환경 관련적 여가의 네가지로 구분하였으며 여가행동을 시간의 이용가치에 따라 저차원의 여가에서 고차원의 여가에 이르는 여섯 가지로 나누고 있다.

첫째, 타인을 위한 봉사는 여가활동 중 가장 바람직한 활동이다. 둘째, 창조 및 창작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활동이다, 셋째, 운동, 등산 등 적극적 활동에 참여하는 활동이

다. 넷째, 타인의 활동이나 작품을 관람, 감상을 통하여 자신의 감정이 이입되는 활동이다. 다섯째, 여가활동은 사회나 개인을 위해 가치 있는 활동은 아니며, 영화, TV, 라디오 등의 관람의 일부가 여기에 속한다. 여섯째, 가장 저차원의 여가활동은 범죄, 약물 남용에 의한 약물 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 등의 활동으로 개인과 사회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친다.

한편 Iso-Ahoal(1980)는 스포츠 활동, 사회 활동, 공작 활동 등으로 여가를 분류하였으며 행위자의 여가형태를 기준으로 '하는 여가'인 능동적 여가와 '보는 여가'인 수동적 여가를 분류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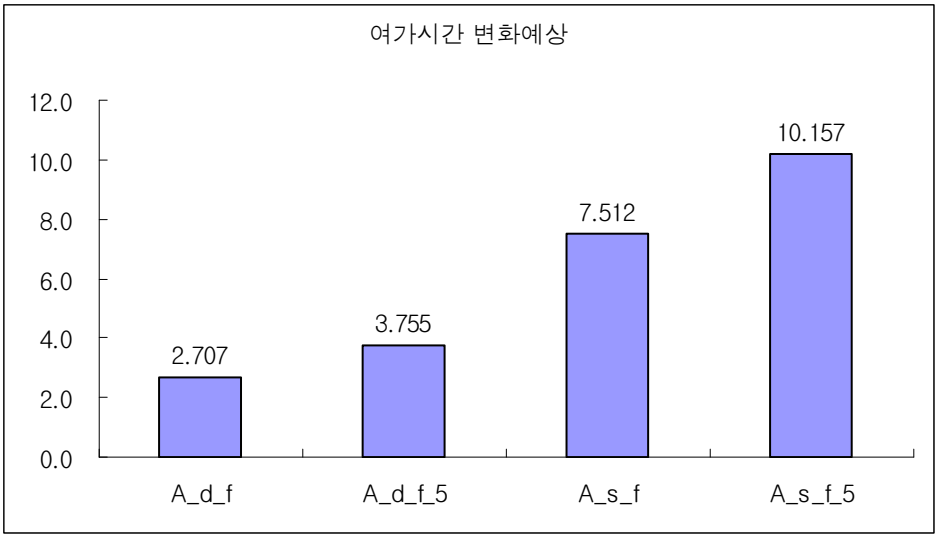
Kelly(1990)는 여가 활동을 스포츠 활동, 야외 레크레이션 활동, 예술 활동, 대중문화 활동, 여행과 관광 활동으로 분류하였다. 그는 이러한 형태가 일반적인 여가의 구성 요소이지만 각각은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하였다. 여가형태는 발달과 참가의 역사를 가지며 각각은 환경, 건물, 그리고 자연과 관계는 여가 경험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하였다. 이 여가활동 유형은 많은 자원들과 역사에 기초하여 삶의 과정을 거치면서 다양화되고 수세기를 걸쳐 변화된 문화와 사회적 내용에 의해 변화된다.

이와 같은 여가 활동의 유형은 분류 형태나 내용에 있어 매우 상이함을 보이고 있다. 결국 이러한 여러 가지 분류 형태의 차이는 여가 활동이 개인의 내적인 만족을 위해 자유롭게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가 활동의 유형을 명확하게 분류 할 수 있는 일관성 있게 설정하는데 있어 많은 어려움이 상존한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

라. 주 5일제와 스포츠 활동

주 5일제가 본격 도입되어 정착된다면 생활체육 또한 크게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소수계층에 한정된 생활스포츠의 영역이 더욱 확대되고 대중화 될 것이며, 훨씬 다양한 스포츠 영역이 등장할 것이다. 특히, 자본 집약적인 고급 레저형 스포츠가 대중화 될 수 있을 것이다. 청・중년층에게는 모험적이고 자극적인 스포츠가 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청·중년층 이상에서는 쉽고 건강과 관련된 스포츠가 더욱 선호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망은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공간과 시설이라는 변수를 고려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이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관련하여 어느 정도 현실화 될 수 있는지가 주요 관건이고, 민간 주도로 이루어질 상업적인 스포츠 사업도 주요 고려 변수이다(최병익, 2005).



<그림-2> 청소년의 여가시간 변화 예상 (최병익, 2005).

A_d_f(평일 여가시간), A_d_f(주 5일제 후 평일 여가시간),

A_s_f(휴일 여가시간), A_d_f_5(주 5일제 이후 휴일 여가시간)

현재의 청소년들의 여가시간은 평일은 2.077시간, 주말의 여가시간은 7.512 시간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주 5일제 수업 실시 후의 여가시간의 변화예상은 평일 3.755시간, 주말 10.157로 모든 여가시간이 증가하리라 예상할 수 있다.

문화관광부가 1986년부터 3년 주기로 전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국민생활체육활동 참여 실태조사를 통하여 나타난 2003년도의 국민 여가활동 실태는 다음과 같다(문화관광부, 2004).

국민의 평균 여가시간은 평일 3.25시간, 토요일은 5.1시간, 그리고 공휴일이나 일요일

등 휴일은 6.6시간이다. 여가시간에 즐기는 여가활동은 TV시청 19.7%, 운동・스포츠 활동 19.2%, 인터넷, 통신, 게임 19.2%, 낮잠 등 단순 휴식 14.2%, 음악・영화 감상 10.9%, 집안정리 7.9%, 독서 3.6%, 여행 2.0%, 장기 및 바둑 1.2%, 경기관람 0.4%, 기타 1.7%이다. 여가활동 유형을 연도별로 비교해 보면, TV시청은 크게 감소(1986년 29.5%에서 2003년 19.7%)한 반면, 인터넷과 PC게임은 크게 증가(2000년 9.8%에서 2003년 19.2%)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인터넷의 발달에 따라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 생활체육 참여율은 전혀 하지 않는다가 22.5%, 한달에 2-3번 이하 18.2%, 일주일에 1번 19.5%, 일주일에 2-3번 19.9%, 일주일에 4-5번 8.5%, 매일 11.4%로 나타나고 있어,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사람은 전체의 77.5%이다. 이 중 일주일에 2-3번 이상 규칙적으로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사람은 39.8%로 나타났다. 생활체육 참여종목은 육상・조깅・속보가 26.6%로 가장 높고, 등산 13.4%, 보디빌딩 6.4%, 맨손체조・줄넘기 6.1%, 수영 5.4%, 축구 5.1%, 인라인스케이트 4.6%, 자전거 4.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국의 2,128명의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한 체육과학연구원(2001)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평일 평균 여가시간은 5시간이상(26%)이 가장 많았으며, 2시간정도(21.4%)와 3시간정도(20.7%)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청소년들이 개인적으로 여가를 즐기기 위한 단체나 클럽활동의 참여 수준도 낮았으며, 여가활동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지만(83.0%) 여가활동의 필요 이유는 주로 생활을 즐기거나(27.9%) 학교생활의 피로를 풀기위한 휴식(21.6%)의 목적에서 여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스포츠 활동 같은 적극적인 활동보다는 소극적이고 비활동적인 여가유형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청소년들은 자신이 보내고 있는 여가생활에 대해서 불만족(28.6%)이 만족(23.9%)보다 많았으며, 여가생활의 불만족의 이유로 시간이 없어서(34.5%)와 여가시설과 장소의 부족(25.5%) 등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

청소년들이 평일이나 주말에 주로 보내는 여가의 유형은 대부분 TV시청과 같은 소극적 활동과 낮잠, 잡담, 음악 감상에 여가시간의 대부분을 할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최병익, 2005).

마. 여가의 기능

Cohen(1991)은 2개의 기준을 가지고 여가의 기능을 설명하였다. 하나의 기준은 여가의 기능이 단기적인 문제 해결 혹은 장기적인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이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기준은 여가의 기능이 개인적 수준인지 아니면 사회적 수준인지에 의해서 구별하였다.

먼저, 단기적인 문제의 해결과 관련된 기능은 주로 개인과 사회생활에서 야기되는 부정적 문제를 해결하고 완화시키는 기능을 한다. 이러한 기능은 이미 발생한 결과에 대한 대처라는 의미에서 과거 지향적인 속성을 지닌다. 특히, 여가는 사회 정화를 담당하기 때문에 세속화된 현대 사회일수록 여가의 이러한 보상 기능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것이다(Cohen, 1991).

이러한 여가의 사회 문제 해결 기능은 산업화, 전문화, 분업화, 도시화 등 산업 사회에서 발생한 개인적, 사회적 요인 즉, 신체 활동의 감소, 정신적 스트레스 및 긴장, 노동에서의 소외, 물질적 인간관계로 인한 정서적 빈곤 등에 대한 치료하고 해결하는 기능을 의미한다.

다른 한편으로, 여가가 갖는 또 다른 본질적인 기능인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기능은 여가 선용의 결과로 나타나는 미래 지향적인 기능으로, 특히 이러한 삶의 질 향상은 현대사회에서 중심적인 여가 기능으로 자리 잡게 된다. 개인적 수준에서 보면 여가의 삶의 질 기능은 조로 개인의 자아실현과 성취로 요약된다. 그리고 사회적 수준에서 보면 사회 변화와 문화의 창조를 들 수 있다.

여가 사회에서는 생리적 및 안전 욕구의 상위 욕구들인 사회적 욕구,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 그리고 자아실현의 욕구를 추구하는 것이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건이다. 현대 사회에서는 이와 같은 상위 욕구의 만족이 노동에서 보다, 여가에서 효과적으로 충족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인간이 상위 욕구를 충족하는데 기본적인 조건이 되는 활동의 다양성, 내재적 동기, 지각된 자유, 활동에서 오는 유능감, 그리고 자기 표현성 등의 요소들을 골고루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사회적 수준에서 삶의 질에 관한 여가의 기능은 사회 변화와 문화 창조의 기

능으로 집약할 수 있다. 여가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문화에 있어서 핵심적 요소일 뿐만 아니라, '여가 문화'라는 용어에서처럼 그 자체로서 하나의 문화를 형성할 수 있다. 즉, 여가는 인간의 삶 속에서 문화를 창조하고, 전승하며, 발전시키는 기본 토양이 된다(임번장, 1992).

여가 행동에서 여가 동기가 실현되고 심리적 체험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하나의 활동을 하는 동안에도 비교적 지속적인 순환을 한다. 그러나 일련의 경험 과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그 과정 속에서 체험하는 내용을 통해 여가 참여자 개인은 의식적이거나 무의식적으로 무엇인가를 얻게 될 것이다. 이러한 여가 경험의 결과는 경험 과정의 일부라기보다는 경험의 누적을 통해 참여자가 얻게 되는 부산물을 의미한다. 여가 경험의 결과는 여가의 기능적 측면이라는 주제로 연구되어 왔는데, 이 기능적 측면을 처음 설파한 사람은 Aristotle이었다. 그 후에도 대부분의 여가 연구들은 여가 활동이 가져오는 개인적, 사회적 기능의 측면을 언급하고 있다. 여기서는 여가 기능의 측면을 단기적인 것과 장기적 인 것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것이다.

단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여가의 결과는 매우 다양하다. 우선 신체적 측면의 결과를 들 수 있다. 가령, 휴식이라는 여가를 통하여 신체 피로의 회복 즉, 에너지를 보충함으로써 생리적 리듬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여가는 단순히 에너지의 보충이 아니라 신체적 능력을 증진시킬 수도 있다. 예컨대, 신체적 건강은 신체 활동을 요구하는 형태의 여가에서 공통적인 부산물이 된다. 스포츠와 같은 활발한 신체 활동은 그 자체가 신체의 피로를 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신체의 건강 유지와 운동 능력을 향상시켜 준다. 이러한 여가는 장기적으로 신체적 발달을 가져올 것이다.

여가를 통해서 얻는 것 중에서 심리학자들의 관심을 끌었던 것은 인지적 능력의 발달이다. 놀이 과정의 공통적인 인지 과정은 동화이며, 동화란 인지 확장의 의미를 지닌다. 놀이 과정에서 환경의 새로운 자극을 자신의 기존인지 체계로 이해할 수 없을 때 자기의 의지 체계를 확장시켜야만 그 자극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새로운 자극에 익숙해진다는 것은 자신의 인지 체계 확장이 이미 성립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여가는 자발성을 띠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로운 상상력과 창의력이 개입하게 된다. 실제로 놀기를 좋아하는 아동들이 보다 창조적이며, 창의성은 놀이 상황과 같은 쾌활한 환경에서 조장된다고 알려져 있다. 가령, 소꿉놀이 같은 사회극 놀이는 아동의 지능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보고가 있다. 그 외에도 여행과 같은 여가는 견문

을 넓힐 수 있는 기회로 여겨져 왔다.

그리고 여가를 통해서 얻는 개인적인 결과물 중에서 중요한 것이 정서적 측면이다. 예컨대 여가의 치료 기능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여가 행동 자체를 치료 목적으로 활용되기도 하는데, 여가 경험을 통하여 정서적 안정을 얻게 되고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도 있다. 그리고 여가를 통하여 '학습된 무력감'(learned helplessness)을 미리 막을 수도 있고, 학습된 무력감으로부터 벗어날 수도 있다. 가벼운 운동과 같은 여가 경험을 함으로써 기분전환의 느낌을 가질 수 있고, 명상과 같은 취미는 정서적 안정을 유도하는 기능을 한다. 가령, 성인이나 노인들(정년 퇴직자)이 겪는 소외감, 우울, 무공감증(apathy) 등은 내재적 동기가 강한 여가 경험을 통해 극복될 수 있다(성영신 등,1996).

여가 결과에는 사회적 능력과 관련한 것들도 있다. 개인은 여가 상황의 상대자와 끊임없는 교류를 통해서 대인 관계의 기술을 습득하게 되고 협동과 조화의 기술을 내면화하게 된다. 경쟁 집단의 구성원과 자기 집단의 구성원에 대한 자신의 역할이 다른 것을 알게 됨으로써 자신이 취해야 할 사회적 태도의 구분도 배우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사회적 기술의 습득은 여가를 통한 개인의 사회화 과정(Socialization through leisure)에서 핵심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지금까지 여가 행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단기적인 결과들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보다 장기적으로 풍부한 여가 경험은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다. 여가를 통하여 자기표현이 이루어지고 창의력이 실현되며, 인지적, 정서적, 신체적 능력이 고양된다면 자기 존중감은 고양될 것이고, 삶에서의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정신 건강 점수가 높은 사람일수록 여가에 더욱 적극적인 모습을 띨 것이며, 인생 초기의 적극적인 여가 활동 참여와 그에 대한 만족은 성인기에 적극적인 여가 참여와 만족을 유발할 뿐 아니라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적응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여가와 삶의 질과의 관련성을 밝히기 위한 경험적인 연구 노력은 1970년 이후에야 시작되었다. 그 후 체계적인 연구가 축적됨에 따라 개인의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여가 관련 변인이 속속 규명되어 왔는데, 이 중 대표적인 변인으로 여가 만족, 몰입, 능동적 여가 활동, 그리고 여가 참여, 각성 수준 등을 들 수 있다.

Beard와 Ragheb(1980)에 의해 여가 만족에 대한 객관적 측정 도구로서 여가 만족 척도(Leisure Satisfaction Scale:LSS)가 개발되면서부터 여가 활동과 삶의 질 사이에 내재된 사회 심리학적 메카니즘을 밝히기 위한 연구 노력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여가 만족과 삶의 질에 대한 연구에서 얻어진 공통된 결과는 여가 만족과 인지된 삶의 질간에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이다(Iso-Ahola, 1980; Ragheb & Griffith, 1982; Tinsley & Tinsley, 1986). 즉, 여가와 삶의 질의 관계에서 여가 만족은 양자간의 매개 변인 또는 관계 변인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Csikszenmihalyi(1975)의 몰입(flow)이 여가학의 중요한 이론으로 정립됨에 따라, 여가 활동과 삶의 질에 관한 연구에서 여가 만족의 변인 외에 몰입이라는 또 하나의 중요한 매개 변인을 밝혀냈다. Csikszenmihalyi에 따르면 몰임 경험은 인간의 활동 중 외부의 보상과 관련 없이 활동 자체가 목적이 될 때 발생되며, 여가 활동은 일상생활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대표적인 자목적적 활동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재적으로 동기유발된 여가 활동을 통해서 충분히 몰입 경험을 얻게 되고 결과적으로 삶의 질 고양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것이다.

여가 활동의 형태와 삶의 질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능동적 여가가 수동적 여가에 비하여 삶의 질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향후 여가와 관련된 현상은 사회의 근본적인 구조적 변화로 인하여 지금까지의 여가 특성과는 또 다른 변모된 모습을 띠게 될 것이다. 즉, 현대 산업 사회에서 수단적 가치를 지향하며 행해졌던 여가가 앞으로는 그 자체의 가치를 추구하는 자기 충족적 가치를 지향하게 될 것이다(김문겸, 1993). 또한 여가 활동의 전개 방향 역시 개인주의적이며, 개방적이고, 대중적이며, 자유방임적, 그리고 상업주의적 형태를 띠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동시에 여가의 획일화, 모방화, 위장화, 향락화 등 역기능적 현상을 수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여가의 잠재적 역기능 요소를 극복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Ⅲ.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 설정은 2005년도 신체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전라남도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고등학생을 모집단으로 선정한 후, 연구 설계에 준하여 표본을 추출하였다. 즉 표본 표집 틀을 작성하고 학교유형별(인문계, 실업계), 성별(남, 여), 지역별(도시, 농어촌)로 구분 하여 고등학생 1,100명을 집단 표집 하였다. 표집된 1,100명중 설문지에 참여한 인원은 1,053명이었으나 무응답 7부와 불성실한 30부를 제외한 1,016부를 분석에 사용했다.

가.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표 4>은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나타낸 표이다. 성별 분포는 남학생이 51.2%, 여학생 48.8%로 나타났고, 학교유형으로는 인문계53.6%, 실업계가 46.4%, 지역으로는 도시 52.1%, 농어촌 47.9%로 나타났다. 부모의 직업으로는 농수산업 21.2%, 서비스업 17.2%, 엔지니어닝 12.7%, 전문직 6.0%, 행정사무직 12.9%, 기타 29.9% 순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학력은 고졸 50.1%로 제일 높았으며, 대졸은 23.4%였다. 어머니의 학력도 마찬가지로 고졸이 55.0%, 대졸은 11.0%였다. 월 소득은 100만원 미만이 16.2%, 100-149만원 16.0%, 150-199만원 14.2%, 200-249만원 15.6%, 250-299만원 10.2%, 300-400만원 11.3%, 401만원이상 6.8%순으로 나타났다.

<표 4> 조사 대상의 일반적 특성

일반적특성		N	%
성별	남자	520	51.2
	여자	496	48.8
학교유형	인문계	545	53.6
	실업계	471	46.4
지역	도시	529	52.1
	농어촌	487	47.9
부모직업	농수산업	214	21.2
	서비스업	174	17.2
	엔지니어링	128	12.7
	전문직	61	6.0
	행정사무직	130	12.9
	기타	302	29.9
	(결측값)	7	-
학력_부	중졸이하	264	26.6
	고졸	497	50.1
	대졸이상	232	23.4
	(결측값)	23	-
학력_모	중졸이하	336	34.0
	고졸	543	55.0
	대졸이상	109	11.0
	(결측값)	28	-
월소득	100만원미만	165	16.2
	100-149만원	163	16.0
	150-199만원	144	14.2
	200-249만원	159	15.6
	250-299만원	104	10.2
	300-400만원	115	11.3
	401만원이상	69	6.8
	기타	97	9.5
계		1,016	100.0

<표4> 조사 대상 일반적 특성에서 부모 직업중 부와 모의 직업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부와 모 중 한 분만 직업을 조사했다.

2. 조사도구

가. 여가 선용 및 도덕성 측정도구

여가 선용 측정도구는 조일(2001)이 개발한 '여가 선용 검사'를 본 연구에 적합한 내용으로 수정 보완하여 3가지 하위영역의 신체 기능적 여가 선용, 인지적 여가 선용, 정서적 여가 선용 등으로 나누어 총 25문항으로 구성하였고, 도덕성 측정도구는 박효정 외 1명(2001)이 개발한 '도덕성지표 검사'와 구본행(2002) '도덕성검사'를 5가지 하위영역의 준법성, 건전성, 책임성, 친절성, 정직성 등 총 2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표 5> 여가 선용 하위요인별 개념 및 문항 수

하 위 요 인	개 념	문항수
신체 기능적 여가 선용	여가 활동을 통해 신체기능을 향상시키는 활동	9
인지적 여가 선용	여가 스포츠를 인식하는 것으로서, 참여자가 습득하게 되는 여가 스포츠에 대한 인식	10
정서적 여가 선용	여가 활동을 통해 느끼게 되는 희노애락 같은 다양한 감정	6
계		25

<표 6> 도덕성 하위별 개념 및 문항수

하 위 요 인	개 념	문항수
준 법 성	법, 규범, 관습 등을 지키려는 경향성	11
건 전 성	일탈된 행동이나 생각을 하는 경향이 적은 정도	5
책 임 성	자신이 맡은 일을 타인에게 미루지 않고 정한 기간 내에 완수하려고 하는 경향성	6
친 절 성	상대방에게 대하는 자세와 배려하려는 마음	4
정 직 성	자신의 사소한 잘못이나 결함을 숨기지 않고 솔직히 드러내는 경향성	1
계		27

나. 설문지 구성과 내용

고등학생의 신체활동 프로그램이 청소년의 여가 선용 및 도덕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하여 배경변인은 성별, 학교유형, 지역, 부모직업, 부・모 학력, 월 소득 등 총 7문항이며, 독립변인은 참여 실태에서 활동유형(특기적성, 클럽활동, 생활체육활동, 기타활동), 참여횟수, 참여기간, 참여동기, 결정도움, 정보원 등 총 6문항으로 설정하였다.

<표 7> 설문지 구성

구성 지표	구성내용	문항수
일반적 특성	성별, 학교유형, 지역, 부모직업, 부모학력, 월 소득	7
참여 실태	활동유형, 참여횟수, 참여기간, 참여 동기, 결정도움, 정보원	6
여가 선용	신체 기능적, 인지적, 정서적 여가선용	25
도덕성	준법성, 건전성, 책임성, 친절성, 정직성	27
계		65

(1) 예비검사

예비검사(pilot test)는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하였다. 1차 예비검사는(pilot test) Y시에 재학 중인 남・여 고등학생 중 본 연구의 표집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100명을 대상으로 신체활동 프로그램이 청소년의 여가 선용 및 도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련하여 제시된 설문내용의 적합성 및 설문 문항이 연구에 적용 가능한 내용인지를 파악하고, 조사대상자가 설문지 응답시 의미가 통하지 않거나 이해하기 어려움이 있는 단어나 문장 혹은 내용을 지적하도록 요구하여 지적된 사항은 2차 예비검사 설문지 개정시에 반영하여 수정하였다.

2차 예비검사(pilot test)는 3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재학 중인 남・여 고등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1차 예비검사를 통하여 수정된 설문내용의 적합성 및 설문 문항이 연구에 적용 가능한지를 검토한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고 수정・보완하여 완성하였다.

3. 측정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

각 변수의 신뢰도는 Cronbach-alpha계수가 0.60이상으로 나타나 대체로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여가 선용에 대한 Cronbach-α값은 0.9658이며, 도덕성에 대한 Cronbach-α값은 0.8130으로 나타났다.

<표 *8*> 여가선용 및 도덕성 신뢰도 분석

변수	하위변수	문항수	Cronbach-alpha
여가 선용	신체기능적 여가 선용	9	0.9258
	인지적 여가 선용	10	0.9237
	정서적 여가 선용	6	0.8806
	종합	25	0.9656
도덕성	준법성	11	0.8396
	건전성	5	0.8219
	책임성	6	0.7789
	친절성	4	0.6617
	정직성	1	-
	종합	27	0.8130

Cronbach-alpha계수는 상관관계계수로 해석하는데 '0'에서 '1'까지 변화한다. 특정조사에서 사용한 측정 항목은 같은 현상을 측정하기 때문에 측정 항목 간에 계산한 알파계수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가정한다. Cronbach-alpha계수는 여러 측정 항목을 통해 실제로 실시한 조사와 다른 항목으로 이루어지는 유사한 조사와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값으로 해석한다. 따라서 하나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 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척도를 이용할 경우에 해당 문항에 대하여 가능한 모든 반분신뢰도를 구하고 이들의 평균을 산출한 것이 되므로 각 항목들의 신뢰성을 평가하는 지표가 된다.

여가 선용에 대한 질문 25문항에 대하여 주성분 분석을 통해 분석을 실시한 결과 3개 요인으로 집약된다. 첫째는 신체활동 참여에 대한 기능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어 '신체 기능적 여가 선용'으로 명명하였으며, 둘째는 신체활동에 대한 정서적 접근 문항으로 구성돼 '정서적 여가 선용'으로, 셋째는 신체활동에 대한 인식에 관한 문항으로 묶여 '인지적 여가 선용'으로 정의하였다.

도덕성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5개 하위요인으로 분류되었다. 요인 1은 11개 문항으로 묶여 '준법성'이라고 정의했다. 요인 2는 문항 15를 비롯 5개 문항이 묶이는 것으로 '건전성'이라고 표현했으며, 요인 3은 책임성, 요인 4는 친절성, 요인 5는 정직성으로 정의하였다.

<표 9> 여가 선용에 대한 요인분석

하부요인	요인별 문항	신체기능적	정서적	인지적
신체 기능적 요인	문항 19	.799	.162	.307
	문항 18	.793	.177	.207
	문항 20	.718	.218	.412
	문항 21	.599	.186	.472
	문항 17	.585	.429	.253
	문항 22	.565	.339	.525
	문항 9	.562	.496	.334
	문항 14	.545	.431	.296
	문항 16	.519	.471	.311
정서적 요인	문항 3	.186	.750	.287
	문항 5	-.078	.713	.282
	문항 4	.339	.703	.281
	문항 2	.403	.670	.193
	문항 7	.412	.605	.274
	문항 6	.471	.593	.234
	문항 1	.554	.578	.107
	문항 8	.453	.570	.232
	문항 13	.470	.532	.435
	문항 12	.359	.480	.440
인지적 요인	문항 25	.244	.276	.765
	문항 24	.348	.261	.753
	문항 23	.418	.233	.720
	문항 15	.138	.425	.585
	문항 11	.385	.405	.466
	문항 10	.419	.461	.4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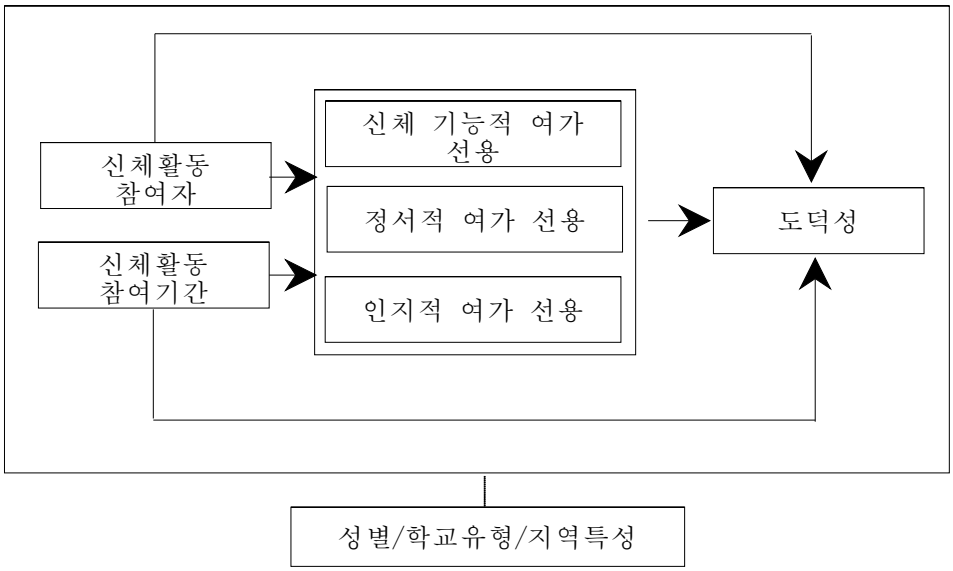
요인추출 방법: 주성분 분석. 회전 방법: Kaiser 정규화가 있는 베리멕스.

<표 *10*>도덕성에 대한 요인분석

요인	문항	준법성	건전성	책임성	친절성	정직성
준법성	문항 11	.694	.106	.106	.023	-.062
	문항 13	.677	.093	.092	.004	-.185
	문항 24	.657	.018	-.050	.159	-.052
	문항 17	.649	.054	-.068	-.046	.073
	문항 27	.645	.056	-.041	.027	-.052
	문항 22	.599	.313	-.024	-.003	-.011
	문항 2	.595	.145	-.079	-.022	.264
	문항 25	.537	.178	-.124	.175	.038
	문항 23	.503	.435	-.030	.080	.171
	문항 3	.460	.093	.101	-.155	.239
	문항 10	.450	.428	.027	-.155	.089
건전성	문항 15	.130	.815	-.023	-.060	.055
	문항 19	.140	.784	-.026	.012	-.088
	문항 14	.087	.739	-.046	-.095	.021
	문항 18	.234	.737	.046	.027	-.058
	문항 16	.277	.578	.272	-.084	-.117
책임성	문항 5	-.072	.046	.810	.137	.085
	문항 6	.024	.087	.784	.161	.100
	문항 4	-.123	.137	.770	.080	-.076
	문항 7	.018	-.034	.585	.306	-.022
	문항 20	.036	-.238	.498	.107	.453
	문항 21	.050	-.245	.441	.131	.338
친절성	문항 9	.024	-.048	.210	.740	.073
	문항 8	.002	.096	.326	.656	-.186
	문항 1	.041	-.047	.105	.614	.219
	문항 12	.075	-.270	.171	.595	.269
정직성	문항 26	.011	.050	.072	.221	.708

요인추출 방법: 주성분 분석. 회전 방법: Kaiser 정규화가 있는 베리멕스

4. 연구모형



<그림 3> 연구모형

5. 자료처리방법

본 연구의 통계처리는 SPSS(10.0)과 AMOS(4.0) 통계패키지 Package를 이용하였으며, 코딩작업이 완료된 자료는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여 결측값을 정화하고, 입력 오류가 있는지를 검토하여 자료의 정확성을 높이는데 주력하였다. 즉 자료 입력 오류를 확인한 후 통계적 분석을 실시하였고 구체적인 자료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가 선용과 도덕심에 대한 질문 항목에 대한 함축을 위해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의 회전방법으로는 Varimax법을 이용하여 Eigen-value값을 기준으로 요인의 수를 결정하였다.

둘째, 요인에 대한 자료의 신뢰도 분석은 내적일관성을 검증하는 Cronbach-alpha값

을 통해 파악하였다.

세째, 성별, 학교유형, 학생의 거주 지역별 특성에 따른 여가 선용과 도덕성에 대한 차이분석은 t-test를 실시하였으며, 신체활용 참여횟수, 참여기간, 참여유형별 차이분석은 one-way ANOVA를 실시하였다.

네째, 변수간 인과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경로별 유의성을 파악하는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기 위해 공분산구조모형분석을 실시했다. 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10.0)과 AMOS(4.0)을 이용하였다.

Ⅳ.연구 결과 및 고찰

가설 *1*에 대한 검증

가설 1 : 신체활동 프로그램이 성별에 따른 청소년의 여가 선용과 도덕성의 관계에 대해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1) 성별에 따른 여가 선용 인식 비교

<표 *11*> 성별에 따른 여가 선용 차이분석

변수	구분	인문계					실업계					전체				
		M	±	SD	t	p	M	±	SD	t	p	M	±	SD	t	p
신체기능	남자	3.90	±	0.79	8.278	0.000	3.44	±	0.77	4.973	0.000	3.68	±	0.81	9.276	0.000
	여자	3.28	±	0.95			3.07	±	0.82			3.18	±	0.90		
인지적	남자	3.54	±	0.82	6.333	0.000	3.24	±	0.78	2.508	0.012	3.40	±	0.82	6.409	0.000
	여자	3.06	±	0.96			3.06	±	0.80			3.06	±	0.89		
정서적	남자	3.42	±	0.87	4.178	0.000	3.15	±	0.73	2.332	0.020	3.29	±	0.81	4.688	0.000
	여자	3.08	±	1.03			2.99	±	0.80			3.03	±	0.94		
여가선용	남자	3.64	±	0.75	6.900	0.000	3.29	±	0.71	3.613	0.000	3.48	±	0.75	7.504	0.000
종합	여자	3.14	±	0.93			3.04	±	0.76			3.10	±	0.86		

신체활동 프로그램에 따른 청소년의 여가 선용은 남·여간 인식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남학생의 경우 여가 선용에 대한 인식은 평균 3.48로 나타나 여학생의 평균 3.10보다 높았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인문계와 실업계 모두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여가 선용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나타나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p<0.001$)

여가 선용 하위 변수인 신체 기능적 여가 선용, 인지적 여가 선용, 정서적 여가 선용에서도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더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있어 여가 선용 신체활동 프로그램이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가설1-1은 채택되었다.

2) 성별에 따른 도덕성 인식 비교

<표 *12*> 성별에 따른 도덕성 차이분석

변수	구분	인문계			실업계			전체		
		M ± SD	t	p	M ± SD	t	p	M ± SD	t	p
준법성	남자	3.31 ± 0.73	-8.172	0.000	3.33 ± 0.70	-4.709	0.000	3.32 ± 0.71	-9.253	0.000
	여자	3.80 ± 0.67			3.62 ± 0.63			3.72 ± 0.65		
건전성	남자	2.30 ± 0.73	-6.965	0.000	2.47 ± 0.76	-1.676	0.094	2.38 ± 0.75	-6.330	0.000
	여자	2.79 ± 0.91			2.59 ± 0.78			2.70 ± 0.86		
책임성	남자	3.46 ± 0.73	-0.073	0.942	3.27 ± 0.66	4.277	0.000	3.37 ± 0.70	2.476	0.013
	여자	3.47 ± 0.72			3.01 ± 0.66			3.26 ± 0.73		
친절성	남자	3.79 ± 0.69	0.036	0.971	3.65 ± 0.72	4.226	0.000	3.73 ± 0.71	2.784	0.005
	여자	3.79 ± 0.70			3.36 ± 0.74			3.60 ± 0.75		
정직성	남자	3.31 ± 1.34	-0.975	0.330	2.89 ± 1.28	-1.124	0.261	3.11 ± 1.33	-1.572	0.116
	여자	3.42 ± 1.24			3.02 ± 1.18			3.24 ± 1.23		
도덕성 종합	남자	3.23 ± 0.42	-7.554	0.000	3.19 ± 0.37	-1.216	0.224	3.21 ± 0.40	-6.640	0.000
	여자	3.53 ± 0.49			3.23 ± 0.40			3.39 ± 0.48		

신체활동 프로그램에 따른 도덕성 인식에 대하여 성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덕성은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대한 남학생의 평균은 3.21이며, 여학생은 3.39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있다.($p<0.001$)

도덕성을 세부적으로 분석해 볼 때, 신체활동 프로그램에 따른 준법성, 건전성에서는 인문계 여학생이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책임성, 친절성에서는 실업계 남학생이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p<0.001$) 따라서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통한 도덕성은 남・여간 이해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세부 요인인 신체활동 프로그램에 따른 정직성에 있어서는 남・여간 차이가 없이 비슷한 경향을 보여주었다.($p>0.05$)

가설 *2*에 대한 검증

가설 2 : 신체활동 프로그램이 지역특성에 따른 청소년의 여가 선용과 도덕성의 관계에 대해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1) 지역특성에 따른 여가 선용 인식 비교

<표 *13*> 지역특성에 따른 여가 선용 차이분석

변수	구분	인문계			실업계			전체		
		M ± SD	t	p	M ± SD	t	p	M ± SD	t	p
신체기능	도시	3.86 ± 0.78	6.992	0.000	3.28 ± 0.83	0.618	0.537	3.58 ± 0.86	5.225	0.000
	농어촌	3.33 ± 0.98			3.24 ± 0.79			3.29 ± 0.90		
인지적	도시	3.61 ± 0.83	8.158	0.000	3.13 ± 0.79	-0.770	0.442	3.37 ± 0.85	5.437	0.000
	농어	3.00 ± 0.91			3.18 ± 0.80			3.08 ± 0.87		
정서적	도시	3.57 ± 0.90	8.050	0.000	3.03 ± 0.76	-1.185	0.236	3.31 ± 0.88	5.295	0.000
	농어	2.94 ± 0.93			3.12 ± 0.78			3.02 ± 0.87		
여가선용	도시	3.69 ± 0.78	8.270	0.000	3.16 ± 0.74	-0.360	0.719	3.43 ± 0.80	5.704	0.000
종합	농어	3.10 ± 0.88			3.19 ± 0.75			3.14 ± 0.82		

청소년의 여가 선용은 도시와 농어촌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도시의 경우 여가 선용에 대한 인식은 평균 3.43로 나타나 농어촌 평균 3.14보다 높았다. 이러한 차이는 인문계에서는 그대로 나타나지만 실업계에서는 지역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문계의 경우 농어촌 학생보다는 도시 학생이 여가 선용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p<0.001$)

여가 선용 하위 변수는 신체 기능적 여가 선용, 인지적 여가 선용, 정서적 여가 선용 모두 농어촌 학생 보다 도시 학생이 더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있어 여가 선용 신체활동 프로그램이 농어촌 학생보다는 도시 학생에게 더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설2-1은 채택되었다.

2) 지역특성에 따른 도덕성 인식 비교

<표 *14*> 지역특성에 따른 도덕성 차이분석

변수	구분	인문계			실업계			전체		
		M ± SD	t	p	M ± SD	t	p	M ± SD	t	p
준법성	도시	3.52 ± 0.84	-1.239	0.216	3.49 ± 0.63	0.617	0.538	3.50 ± 0.75	-0.658	0.511
	농어촌	3.59 ± 0.62			3.45 ± 0.73			3.53 ± 0.68		
건전성	도시	2.76 ± 0.92	5.869	0.000	2.42 ± 0.76	-3.236	0.001	2.59 ± 0.86	2.320	0.021
	농어촌	2.34 ± 0.74			2.65 ± 0.78			2.47 ± 0.77		
책임성	도시	3.61 ± 0.74	4.557	0.000	3.13 ± 0.66	-0.767	0.443	3.37 ± 0.74	2.425	0.015
	농어촌	3.33 ± 0.68			3.17 ± 0.68			3.26 ± 0.68		
친절성	도시	3.83 ± 0.70	1.138	0.256	3.54 ± 0.74	0.679	0.497	3.68 ± 0.73	0.907	0.365
	농어촌	3.76 ± 0.68			3.49 ± 0.75			3.64 ± 0.72		
정직성	도시	3.31 ± 1.30	-1.047	0.296	2.81 ± 1.24	-2.701	0.007	3.07 ± 1.30	-2.833	0.005
	농어촌	3.42 ± 1.28			3.13 ± 1.21			3.30 ± 1.26		
도덕성 종합	도시	3.43 ± 0.55	2.745	0.006	3.19 ± 0.36	-1.228	0.220	3.31 ± 0.48	1.089	0.276
	농어촌	3.32 ± 0.40			3.23 ± 0.41			3.28 ± 0.41		

신체활동 프로그램으로 나타난 도덕성 인식에 대해서는 지역적 특성에 따른 인문계와 실업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도덕성의 세부 변수인 건전성에서는 도시가 평균 2.59로 농어촌의 평균 2.47보다 높았으며, 도시의인문계열군이 실업계열군보다, 농어촌의 실업계열군이 인문계열군보다 건전성이 높게 나타났다. 책임성은 도시에서 평균 3.37로 농어촌의 평균 3.26보다 높았다. 인문계는 도시와 농어촌 간에 편차가 있으나 실업계에서는 유의도가 낮게 나타난다.

신체활동 프로그램에 따른 정직성은 농어촌 학생이 평균 3.30으로 도시의 평균 3.07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실업계열의 도시와 농어촌간 정직성부분에서 차이가 있으나 ($p<0.05$) 인문계열의 도시와 농어촌간 차이는 없었다. 반면, 준법성과 친절성에는 지역특성에 따른 각 계열간 차이는 없다.($p>0.05$)

가설 3에 대한 검증

가설 3 : 신체활동 프로그램이 학교유형에 따른 청소년의 여가 선용과 도덕성의 관계에 대해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1) 학교특성에 따른 여가 선용 인식 비교

<표 *15*> 학교특성에 따른 여가 선용 차이분석

변수	학교유형	N	M	±	SD	t	p
신체기능	인문계	543	3.59	±	0.93	6.003	0.000
	실업계	470	3.26	±	0.82		
인지적	인문계	543	3.30	±	0.92	2.773	0.006
	실업계	470	3.15	±	0.80		
정서적	인문계	543	3.25	±	0.97	3.245	0.001
	실업계	470	3.07	±	0.77		
여가 선용	인문계	543	3.39	±	0.88	4.320	0.000
	실업계	470	3.17	±	0.74		

학교 특성에 따른 청소년의 여가 선용은 인문계와 실업계가 서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인문계의 경우 여가 선용에 대한 인식은 평균 3.39로 실업계의 3.17보다 높아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이 같은 차이는 인문계에서 여가 선용에 대한 높은 관심도로 풀이된다.($p<0.001$)

신체 기능적 여가 선용에 대한 인식에서는 인문계에서 평균 3.59로 나타나 실업계 평균 3.26보다 높았다. 인지적 여가 선용은 인문계가 3.30으로 실업계 3.15보다 높았으며, 정서적 여가 선용은 인문계 3.25, 실업계 3.07로 나타나 모두 실업계 학생보다 인문계 학생이 더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신체활동 프로그램에 따른 여가 선용은 실업계보다는 인문계에서 긍정적으로 반응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설3-1은 채택되었다.

2) 학교특성에 따른 도덕성 인식 비교

<표 16>학교특성에 따른 도덕성 차이분석

변수	학교유형	N	M ± SD	t	p
준법성	인문계	538	3.56 ± 0.74	1.933	0.054
	실업계	462	3.47 ± 0.68		
건전성	인문계	538	2.54 ± 0.86	0.341	0.733
	실업계	462	2.53 ± 0.77		
책임성	인문계	538	3.47 ± 0.72	7.153	0.000
	실업계	462	3.15 ± 0.67		
친절성	인문계	538	3.79 ± 0.69	6.120	0.000
	실업계	462	3.51 ± 0.74		
정직성	인문계	538	3.37 ± 1.29	5.118	0.000
	실업계	460	2.95 ± 1.24		
도덕성 종합	인문계	538	3.38 ± 0.48	5.937	0.000
	실업계	462	3.21 ± 0.39		

신체활동 프로그램에 따른 도덕성 인식에 대해 학교 유형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도덕성 인식은 실업계 학생보다 인문계 학생에게 더 긍정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문계 학생 평균은 3.38이며, 실업계 학생은 3.21이다. 세부 요인 가운데 건전성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지만 책임성, 친절성, 준법성, 정직성에서는 인문계가 실업계보다 더 높게 반응하였다.($p<0.001$)

가설 *4*에 대한 검증

가설 4 : 신체활동 프로그램 참여빈도가 청소년의 여가 선용과 도덕성의 관계에 대해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1) 신체활동 참여횟수에 따른 여가 선용 인식 비교

<표 *17*> 신체활동 참여횟수별 여가 선용에 대한 차이분석

변수	참여횟수	N	M	±	SD	t	p
신체기능 여가 선용	1회	438	3.39	±	0.88	1.809	0.144
	2회	266	3.42	±	0.89		
	3-4회	127	3.50	±	0.87		
	5회이상	164	3.57	±	0.97		
인지적 여가 선용	1회	438	3.15	±	0.84	3.387	0.018
	2회	266	3.26	±	0.82		
	3-4회	127	3.41	±	0.87		
	5회이상	164	3.28	±	1.01		
정서적 여가 선용	1회	438	3.11	±	0.87	3.241	0.021
	2회	266	3.20	±	0.90		
	3-4회	127	3.37	±	0.83		
	5회이상	164	3.10	±	0.93		
여가 선용 종합	1회	438	3.23	±	0.80	2.349	0.071
	2회	266	3.30	±	0.82		
	3-4회	127	3.43	±	0.81		
	5회이상	164	3.34	±	0.92		

신체활동 참여횟수별 여가 선용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해 볼 때 주당 참여횟수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하위 요인인 인지적 여가 선용과 정서적 여가 선용에 있어서는 주당 3-4회 신체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인식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차이가 있었다.($p<0.05$) 이에 대해 주1회 이하 참여하거나 일주일 내내 참여하는 경우는 여가 선용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게 반응하였다.

2) 신체활동 참여횟수에 따른 도덕성 인식 비교

<표 *18*> 신체활동 참여횟수별 도덕성 차이분석

변수	월평균횟수	N	M ± SD	t	p
준법성	1회	429	3.56 ± 0.70	2.044	0.106
	2회	265	3.54 ± 0.73		
	3-4회	124	3.43 ± 0.74		
	5회이상	164	3.43 ± 0.70		
건전성	1회	429	2.59 ± 0.85	3.739	0.011
	2회	265	2.58 ± 0.81		
	3-4회	124	2.54 ± 0.78		
	5회이상	164	2.35 ± 0.78		
책임성	1회	429	3.37 ± 0.72	1.665	0.173
	2회	265	3.27 ± 0.70		
	3-4회	124	3.25 ± 0.69		
	5회이상	164	3.33 ± 0.75		
친절성	1회	429	3.72 ± 0.73	3.515	0.015
	2회	265	3.55 ± 0.74		
	3-4회	124	3.65 ± 0.75		
	5회이상	164	3.75 ± 0.68		
정직성	1회	428	3.19 ± 1.29	0.418	0.740
	2회	265	3.24 ± 1.18		
	3-4회	123	3.13 ± 1.34		
	5회이상	164	3.11 ± 1.38		
도덕성종합	1회	429	3.35 ± 0.46	3.133	0.025
	2회	265	3.29 ± 0.45		
	3-4회	124	3.24 ± 0.41		
	5회이상	164	3.24 ± 0.43		

신체활동 프로그램 참여횟수에 따라 나타나는 도덕성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p<0.05$) 신체활동 참여횟수가 주 1회이하인 경우에서 도덕성 인식이 평균 3.35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주 2회 참여하는 경우가 도덕성 평균 3.29, 주 3회 이상 참여하는 경우는 도덕성이 3.24로 나타난다.

따라서 신체활동 참여횟수가 많은 학생보다 적은 학생일수록 도덕성에는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어 신체활동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정서적 측면을 고려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세부 요인별로 볼 때 건전성과 친절성에서 참여 횟수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으며, 다른 요인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다.

가설 5에 대한 검증

가설 5 : 신체활동 프로그램 참여기간이 청소년의 여가 선용과 도덕성의 관계에 대해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1) 참여기간에 따른 여가 선용 인식 비교

<표 *19*> 신체활동 참여기간별 여가 선용에 대한 차이분석

변수	참여기간	N	M ± SD	t	p
신체기능 여가선용	6개월이하	446	3.26 ± 0.91	14.536	0.000
	12개월이하	285	3.55 ± 0.84		
	24개월이하	121	3.54 ± 0.81		
	2년이상	128	3.77 ± 0.93		
인지적 여가선용	6개월이하	446	3.02 ± 0.87	20.913	0.000
	12개월이하	285	3.35 ± 0.82		
	24개월이하	121	3.39 ± 0.79		
	2년이상	128	3.60 ± 0.90		
정서적 여가선용	6개월이하	446	2.98 ± 0.87	14.077	0.000
	12개월이하	285	3.29 ± 0.85		
	24개월이하	121	3.26 ± 0.88		
	2년이상	128	3.45 ± 0.95		
여가 선용 종합	6개월이하	446	3.09 ± 0.83	19.044	0.000
	12개월이하	285	3.41 ± 0.78		
	24개월이하	121	3.41 ± 0.75		
	2년이상	128	3.63 ± 0.88		

신체활동 참여기간별로 여가 선용에 대한 인식 차이를 분석해 볼 때 신체활동 참여기간이 장기적일수록 높게 반응했다.($p<0.001$) 참여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평균 3.63, 24개월 이하와 12개월 이하에서는 평균 3.41로 같았으며, 6개월 이하에서는 평균 3.09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세부 변수에서도 비슷했다. 즉, 신체 기능적 여가 선용, 인지적 여가 선용, 정서적 여가 선용에 대한 인식은 신체활동 참여기간이 길수록 높게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2) 신체활동 참여기간 따른 도덕성 인식 비교

<표 *20*> 신체활동 참여기간별 도덕성 차이분석

변수	참여기간	N	M	±	SD	t	p
준법성	6개월이하	441	3.46	±	0.69	1.615	0.184
	12개월이하	279	3.58	±	0.74		
	24개월이하	119	3.54	±	0.72		
	2년이상	128	3.50	±	0.74		
건전성	6개월이하	441	2.47	±	0.79	1.872	0.133
	12개월이하	279	2.60	±	0.81		
	24개월이하	119	2.55	±	0.86		
	2년이상	128	2.62	±	0.93		
책임성	6개월이하	441	3.21	±	0.69	7.681	0.000
	12개월이하	279	3.38	±	0.72		
	24개월이하	119	3.47	±	0.74		
	2년이상	128	3.47	±	0.75		
친절성	6개월이하	441	3.60	±	0.75	3.394	0.017
	12개월이하	279	3.76	±	0.66		
	24개월이하	119	3.70	±	0.71		
	2년이상	128	3.75	±	0.81		
정직성	6개월이하	440	3.13	±	1.30	0.614	0.606
	12개월이하	278	3.26	±	1.28		
	24개월이하	119	3.20	±	1.26		
	2년이상	128	3.18	±	1.30		
도덕성(종합)	6개월이하	441	3.23	±	0.39	6.937	0.000
	12개월이하	279	3.37	±	0.46		
	24개월이하	119	3.35	±	0.51		
	2년이상	128	3.36	±	0.53		

신체활동 참여기간별로 반응하는 도덕성을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해 볼 때 참여기간이 6개월 이하와 그 이상으로 나뉘어 차이가 현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p<0.001$)

신체활동 참여기간이 6개월 이하에서는 평균 3.2이지만 6개월 이상에서는 평균 3.4 정도로 나타나 장기적 참여가 도덕성에 긍정적으로 반응한다.

세부 요인에서는 책임성과 친절성이 참여기간에 따른 유의적이 차이를 보여주었으며, 준법성, 건전성, 정직성에서는 차이가 없다.

가설 *6*에 대한 검증

가설 6 : 신체활동 프로그램 참여유형에 따른 청소년의 여가 선용과 도덕성의 관계에 대해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1) 신체활동프로그램 참여유형에 따른 여가 선용 인식 비교

<표 *21*> 신체활동 참여 유형별 여가 선용 인식 차이

변수	활동유형	N	M ± SD	t	p
신체기능	특기적성	154	3.19 ± 0.87	8.372	0.000
	클럽활동	471	3.56 ± 0.85		
	생활체육활동	212	3.45 ± 0.94		
	기타활동	161	3.30 ± 0.92		
인지적	특기적성	154	3.12 ± 0.83	8.636	0.000
	클럽활동	471	3.36 ± 0.84		
	생활체육활동	212	3.20 ± 0.89		
	기타활동	161	2.99 ± 0.91		
정서적	특기적성	154	3.02 ± 0.83	6.187	0.000
	클럽활동	471	3.28 ± 0.88		
	생활체육활동	212	3.11 ± 0.91		
	기타활동	161	3.01 ± 0.90		
여가 선용(종합)	특기적성	154	3.12 ± 0.80	8.438	0.000
	클럽활동	471	3.41 ± 0.80		
	생활체육활동	212	3.27 ± 0.86		
	기타활동	161	3.11 ± 0.86		

신체활동 참여 유형별로 여가 선용에 대한 인식이 다른 것으로 분석됐다. 여가 선용은 클럽활동을 하는 학생에게서 다른 학생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며, 이어 생활체육활동 참가자, 특기정성 참가자, 기타 순이다.

신체 기능적 여가 선용, 인지적 여가 선용, 정서적 여가 선용 등 세부 요인에서도 클럽활동 참가학생들이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유의적인 차이를 드러난다.($p<0.001$)

2) 신체활동 참여유형에 따른 여가 선용 인식 비교

<표 *22*> 신체활동 참여유형별 도덕성 인식 차이

변수	활동유형	N	M	± SD	t	p
준법성	특기적성	150	3.54	± 0.67	1.085	0.354
	클럽활동	465	3.51	± 0.75		
	생활체육활동	210	3.45	± 0.73		
	기타활동	161	3.58	± 0.61		
건전성	특기적성	150	2.60	± 0.76	5.236	0.001
	클럽활동	465	2.62	± 0.85		
	생활체육활동	210	2.37	± 0.79		
	기타활동	161	2.47	± 0.81		
책임성	특기적성	150	3.11	± 0.65	11.011	0.000
	클럽활동	465	3.45	± 0.73		
	생활체육활동	210	3.20	± 0.69		
	기타활동	161	3.30	± 0.69		
친절성	특기적성	150	3.57	± 0.68	2.096	0.099
	클럽활동	465	3.71	± 0.73		
	생활체육활동	210	3.60	± 0.77		
	기타활동	161	3.71	± 0.72		
정직성	특기적성	149	3.12	± 1.22	1.907	0.127
	클럽활동	464	3.24	± 1.27		
	생활체육활동	210	3.01	± 1.32		
	기타활동	161	3.25	± 1.33		
도덕성(종합)	특기적성	150	3.26	± 0.37	6.048	0.000
	클럽활동	465	3.35	± 0.48		
	생활체육활동	210	3.20	± 0.41		
	기타활동	161	3.32	± 0.43		

신체활동 참여유형별 도덕성을 종합적으로 차이 분석한 결과 클럽활동 참여 학생들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참여유형에 따른 도덕성에 대해 차이를 보인다.($p<0.001$)

클럽활동 참가자들의 도덕성 인식은 평균 3.35로 가장 높고 이어 기타 3.32, 특기적성 3.26, 생활체육활동 3.20순으로 나타난다.

세부요인별로 건전성과 책임성에 참여유형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반면, 준법성, 친절성, 정직성에서는 유형별로 차이가 없다.

가설 7에 대한 검증

가설 7 : 성별, 지역별, 학교유형별 특성에 따른 신체활동 프로그램이 청소년의 여가 선용과 도덕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1) 여가 선용과 도덕성 상관관계

<표 *23*> 여가 선용과 도덕성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

	신체기능	인지적	정서적	준법성	건전성	책임성	친절성	정직성	여가 선용
인지적	.832	1							
	.000	.							
정서적	.817	.788	1						
	.000	.000	.						
준법성	-.108	-.073	-.076	1					
	.001	.021	.017	.					
건전성	-.068	.045	.038	.443	1				
	.032	.155	.231	.000	.				
책임성	.333	.314	.341	-.052	-.053	1			
	.000	.000	.000	.101	.092	.			
친절성	.309	.241	.285	.016	-.119	.493	1		
	.000	.000	.000	.612	.000	.000	.		
정직성	.103	.075	.114	.075	-.019	.217	.227	1	
	.001	.018	.000	.018	.543	.000	.000	.	
여가 선용	.949	.946	.906	-.093	.002	.349	.295	.101	1
	.000	.000	.000	.003	.953	.000	.000	.001	.
도덕성	.111	.146	.166	.793	.577	.447	.411	.280	.146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신체활동 프로그램에 따른 여가 선용과 도덕성과의 관계를 상관관계분석을 통해 검토해 보면 상관관계 계수 r=.146, p=0.001로 나타나 유의하지만 상관성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여가 선용 전체적으로는 책임성과 가장 밀접한 관계(r=.349)를 갖고 있고, 이어 친절성(r=.295)도 관련성이 있었다. 그러나 여가 선용에 대한 인식이 준법성과는 역의 관계로 나타나 문제점을 안고 있다. 도덕성 전체적으로는 여가 선용 하위 변수와 약한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여가 선용과 도덕성의 직접적인 관련성보다는 신체활동 참여프로그램을 통해 간접적 효과를 파악해 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2) 신체활동 참여변수가 여가 선용에 미치는 영향분석

<표 *24*> 여가 선용에 대한 영향분석

변수	변수	B	SE	β	t	p
신체기능적 여가 선용	참여횟수	.055	.024	.068	2.238	.025
	참여기간	.107	.026	.124	4.066	.000
	성별	-.483	.053	-.269	-9.104	.000
	학교유형	-.312	.055	-.173	-5.690	.000
	지역	-.321	.053	-.179	-6.009	.000
인지적 여가 선용	참여횟수	.052	.024	.066	2.117	.035
	참여기간	.163	.026	.194	6.195	.000
	성별	-.321	.053	-.183	-6.039	.000
	학교유형	-.104	.055	-.059	-1.886	.060
	지역	-.305	.054	-.174	-5.697	.000
정서적 여가 선용	참여횟수	.020	.025	.025	.803	.422
	참여기간	.126	.027	.148	4.617	.000
	성별	-.242	.055	-.136	-4.387	.000
	학교유형	-.149	.057	-.083	-2.611	.009
	지역	-.294	.056	-.165	-5.284	.000

신체활동 참여빈도, 기간, 성별, 학교유형, 지역특성에 따라 여가 선용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신체 기능적 여가 선용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인은 표준화계수(β)의 크기로 파악할 수 있는데 성별 요인이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 기능적 여가 선용에 있어서는 가장 영향이 큰 변수는 성별(남성=0, 여성=1, β=-.27)이며, 다음 영향요인으로 지역(0=도시, 1=농어촌, β=-.179), 학교유형(0=인문계, 1=실업계, β=-.173), 참여기간(β=.124), 참여횟수(β=.068) 순으로 나타난다.

남학생일수록 신체 기능적 여가 선용을 적극적으로 인식하게 하며, 여학생은 신체 기능적 여가 선용에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어 성별 특성이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남학생과 여학생의 신체 기능적 여가 선용에 대한 관심이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p<0.001$).

인지적 여가 선용에서는 신체활동 참여횟수와는 무관하지만 참여기간이 길수록, 남학생, 인문계학생, 도시 지역 학생이 더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게 된다.

정서적 여가 선용에서는 지역 변수(β=-.17)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농어촌보다는 도시에서 정서적 여가 선용에 관심을 더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참여기간이 길수록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신체활동 참여변수가 도덕성에 미치는 영향분석

<표 *25*> 신체활동 참여여부와 학생특성에 따른 도덕성에 대한 영향분석

변수	B	SE	β	t	p
참여횟수	-.026	.013	-.065	-2.032	.042
참여기간	.039	.014	.091	2.840	.005
성별	.181	.028	.201	6.458	.000
학교유형	-.143	.029	-.158	-4.938	.000
지역	-.028	.028	-.031	-.991	.322

신체활동 참여빈도, 기간, 성별, 학교유형, 지역특성에 따라 도덕성에 미치는 관계분석 결과 성별에 따라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며, 다음으로 학교유형, 신체활동 참여기간, 참여횟수 순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신체활동 프로그램에 따른 도덕성은 여학생(β=.20)에게서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되며, 실업계보다는 인문계((β=-.16)에서 그리고 프로그램 참여기간(β=.09)이 길수록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청소년기에는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고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는 행동 수행과 가치관을 정립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치관과 도덕성을 정립시키는데 신체활동 참여프로그램이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4) 신체활동 여가 선용 인식이 도덕성에 미치는 영향분석

<표 *26*> 신체활동 여가 선용이 도덕성에 미치는 영향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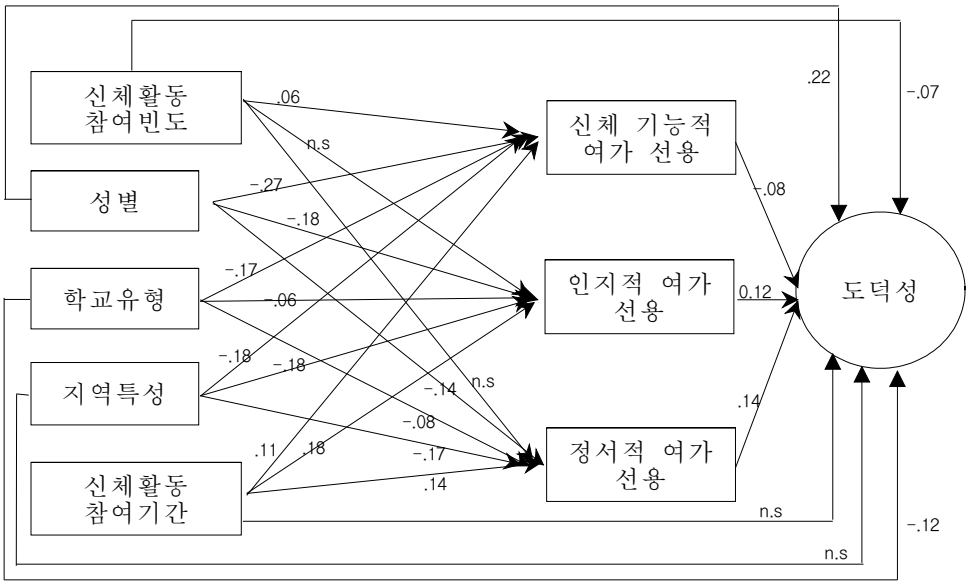
독립변수	B	SE	β	t	p
신체기능적 여가 선용	-.066	.032	-.132	-2.074	.038
인지적 여가 선용	.054	.031	.105	1.766	.078
정서적 여가 선용	.096	.029	.191	3.324	.001

신체활동 여가 선용 프로그램이 도덕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그 내용에 따라 달리 나타났다. 즉 인지적 여가 선용 즉 여가 선용의 필요성만 인식하는 경우 도덕성에는 무관($p>0.05$) 하지만, 신체 기능적 여가 선용과 정서적 여가 선용은 도덕성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게 돼 이러한 점에 국한하여 여가 선용의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회귀분석 결과, 학생들의 여가 선용이 도덕성을 제고 시키는 데는 정서적 여가 선용 활동($\beta=.19$)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신체 기능적 측면을 강조하는 여가 선용 활동을 중시하는 것은 도덕성($\beta=-.13$)에 부정적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여가 선용은 신체 기능적 특성을 개발하는 직접적 의미가 아니라 정서적 가치를 동반해야한다. 또한 올바른 여가 선용에 대한 인식을 위해서는 여가 활동과 관계한 클럽활동의 참여가 필요하다.

가설 8에 대한 검증

가설 8 : 신체활동 프로그램 참여 실태와 환경적 특성이 청소년의 여가 선용활동을 거쳐 도덕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림 4> 신체활동 참여 및 환경적 특성이 여가 선용과 도덕성에 대한 경로분석 최초 모델

<표 27> 최초 경로분석의 모델적합도(*Fit Measures*)

지수		측정치	수용 부합기준	판정
절대부합지수	Chi-square	2048.7 p<0.001	0.05이상	표본수 과다로 수용허용
	RMR(평균자승잔차)	-	-	결측치 분석으로 제외
	GFI(기초부합지수)	-	-	결측치 분석으로 제외
증분부합지수	NFI(표준부합지수)	0.90	0.9이상	수용
	TL(Tucker-Lewis index)	0.66	0.9이상	부적합

<표 *28*> 모형 수정후 경로분석의 모델적합도*(Fit Measur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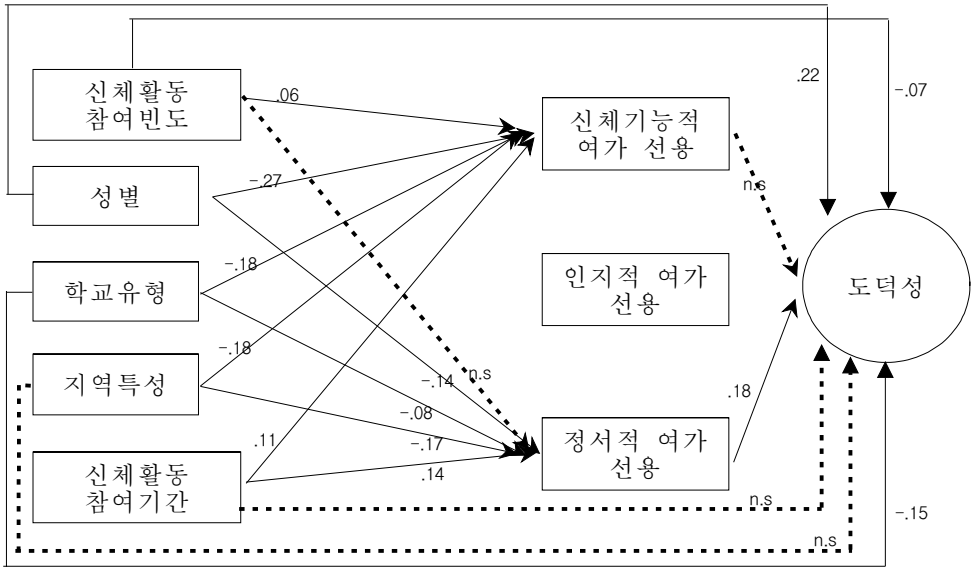
지수		측정치	수용 부합기준	판정
절대부합지수	Chi-square	1185.9 p<0.001	0.05이상	표본수 과다로 수용허용
	RMR(평균자승잔차)	-	-	결측치 분석으로 제외
	GFI(기초부합지수)	-	-	결측치 분석으로 제외
증분부합지수	NFI(표준부합지수)	0.94	0.9이상	수용
	TL(Tucker-Lewis index)	0.81	0.9이상	한계수용

본 연구는 신체활동 참여 변수와 환경요인이 여가 선용 프로그램을 거쳐 도덕성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구조적으로 분석하였다.

신체활동 참여를 통해 여가 선용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참여확대를 통해 도덕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게 된다.

경로분석은 AMOS(4.0) 구조모형분석을 통해 모형의 적합도를 검토했다. 모형의 적합도는 절대부합지수와 증분부합지수를 통해 검토할 수 있는데 절대부합지수는 경로모형의 표본에 결측치가 포함된 분석을 실시했기 때문에 판정기준으로 적용할 수 없다. 카이제곱검증에서 유의도 5%를 초과해야 하지만 표본수 과다 자료에서는 유의한 값이 나오게 되므로 수용이 허용된다. 이는 표본 크기가 200이상으로 증가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유의적인 차이의 오류라고 할 수 있다.(조선배, LISREL구조방정식 모델, 영지문화사 2005, p.103) 또한 증분부합지수 가운데 표준부합지수가 0.90으로 측정돼 모형을 수용할 수 있지만 TL지수는 0.66으로(0.90이상 수용, 0.80이상 한계수용)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일부 모형의 수정이 요구된다.

따라서 여가 선용 변수를 투입한 도덕성에 미치는 영향요인 회귀분석결과 인지적 여가 선용이 도덕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없었기 때문에, 해당 변수를 제거하고 수정경로분석을 실시했다. 수정 분석 결과 표준부합지수는 0.94로 증가되고, TL지수도 수용범위로 진입해 모형이 타당한 것으로 판정된다.



<그림 5> 신체활동 참여 실태 및 환경적 특성이 여가 선용과 도덕성에 대한 경로분석 수정 후 모델

<표 29> 신체활동 참여 프로그램과 도덕성에 대한 경로분석 결과

독립변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 효과
성별	0.22*	-0.02	0.20*
학교유형	-0.15*	-0.01	-0.16*
지역	0.00	-0.03	-0.03
참여기간	0.06	0.02	0.08*
참여횟수	-0.07*	0.00	-0.07*
정서적 여가 선용	0.18*	-	0.18*
신체 기능적 여가 선용	-0.01	-	-0.01

신체활동 프로그램은 개인적 또는 학교유형, 지역적 특성이 고려되어야 건전한 여가 선용으로 정착될 것으로 여겨진다. 최근 불건전한 오락문화에 쉽게 노출돼 있는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도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여가 선용 프로그램의 개발이 다각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경로분석 결과 신체 기능적 여가 선용이 도덕성에 미치는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신체 기능적 여가 선용은 주당 신체활동 참여빈도와 참여기간에 비례적으로 반응하며,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실업계보다는 인문계학생이, 농어촌보다는 도시학생에게서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신체활동 여가 선용이 신체 기능적 요소만을 강조하기 때문에 도덕성 인식과는 무관한 것으로 파악된다.

정서적 여가 선용에는 남학생, 인문계, 도시지역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하며, 신체활동 참여기간이 길수록 비례하며, 또 정서적 여가 선용은 도덕성 제고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주게 된다.

신체활동 참여변수와 여가 선용이 도덕성에 미치는 경로분석의 전체적인 틀을 이해하는 데는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 효과의 비교분석으로 가능하다.

여가 선용을 통한 도덕성에 미치는 총 효과는 성별 특성이 가장 크게 작용한다. 이어 정서적 여가 선용, 학교유형, 신체활동 참여기간, 참여횟수 순으로 반응하게 된다.

여가 선용의 간접효과는 남학생에게서 증가(여학생 β=-.02)하며, 인문계에서는 여가 선용을 거치면서 도덕성 인식을 증대시키게 된다. 신체활동 참여기간에 따라 도덕성과는 무관하지만 여가 선용을 거치면서 도덕성 인식을 제고시키고 있다.

신체활동 참여횟수는 여가 선용이라는 간접효과와 관계없이 도덕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해 오히려 매일 참여하는 것보다는 주당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신체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도덕성과의 관계는 여학생 보다는 남학생에게서 효과를 발휘하게 되며, 지역, 학교유형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 신체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은 성별 또는 환경특성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부분인 것이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청소년들이 신체활동 프로그램에 따른 여가 선용과 도덕성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여가 선용을 통한 도덕성을 분석함으로써 균형적이고 효율적인 신체활동 활성화와 청소년이 올바르게 성장해 가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조사 대상자는 2005년도 신체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전라남도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고등학생을 모집단으로 선정한 후, 연구 설계에 준하여 표본을 추출하였다. 즉, 표본표집 틀을 작성하고 학교유형별(인문계, 실업계), 성별(남・여), 지역별(도시, 농어촌)로 구분하여 1,100명을 집단 표집 하였다. 통계방법으로는 SPSS(10.0)과 AMOS(4.0) 이용하였다.

1. 결 론

1) 신체활동 프로그램의 성별에 따른 청소년의 여가 선용과 도덕성의 관계

여가 선용에 대한 남학생 평균은 3.48로 여학생 3.10보다 높았으며. 신체 기능적 여가 선용, 인지적 여가 선용, 정서적 여가 선용 모두 남학생이 더 긍정적 이었으며, 도덕성은 남학생 평균은 3.21, 여학생은 3.39로 여학생이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2) 신체활동 프로그램의 지역 특성에 따른 청소년의 여가 선용과 도덕성의 관계

지역 특성에서 여가 선용에 대한 도시 학생 평균은 3.43으로 농어촌 학생 3.14보다 높았다. 신체 기능적 여가 선용, 인지적 여가 선용, 정서적 여가 선용 모두 도시 학생이 높았으며, 도덕성에서는 도시 학생이 평균 2.57로, 농어촌 학생 2.47보다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책임성은 도시 학생이, 정직성은 농어촌 학생이 높게 나타났다.

3) 신체활동 프로그램의 학교유형에 따른 청소년의 여가 선용과 도덕성의 관계

학교 유형에 따른 여가 선용은 인문계 평균 3.39로 실업계의 3.17보다 높아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이와 같은 차이는 인문계에서 여가 선용에 대한 높은 관심도로 풀이된다. 도덕성 인식은 실업계 학생보다 인문계 학생에게 더 긍정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4) 신체활동 프로그램 참여빈도와 청소년의 여가 선용과 도덕성의 관계

신체활동 참여빈도가 하위 변인인 인지적 여가 선용과 정서적 여가 선용에 있어서는 주당 3-4회 참여하는 학생들이 인식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체활동 참여횟수가 주 1회이하인 경우 도덕성 인식이 평균 3.35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주 2회 평균 3.29, 주 3회 이상 참여하는 경우는 도덕성이 3.24로 나타났다.

5) 신체활동 프로그램 참여기간과 청소년의 여가 선용과 도덕성의 관계

참여기간 대한 인식 차이를 볼 때 신체 기능적 여가 선용, 인지적 여가 선용, 정서적 여가 선용에 대한 참여기간이 길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참여기간이 6개월 이하에서는 평균 3.23이지만 6개월 이상에서는 평균 3.36 정도로 나타나 장기적 참여가 도덕성에 긍정적으로 반응하였다.

6) 신체활동 프로그램 참여유형에 따른 청소년의 여가 선용과 도덕성의 관계

참여 유형별 여가 선용은 클럽활동을 하는 학생이 제일 긍정적으로 인식하며, 이어 생활체육활동, 특기정성, 기타 순이다. 도덕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클럽활동 참여 학생들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7) 성별, 지역별, 학교유형별, 특성에 따른 신체활동 프로그램이 청소년의 여가 선용과 도덕성의 상관관계

여가 선용과 도덕성은 상관관계 r=0.146로 나타났으며, 특히 책임성, 친절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활동 참여기간은 길수록 또한 성별은 남학생이며, 학교유형은 인문계, 지역특성에서는 도시학생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8) 신체활동 프로그램 참여 실태와 환경적 특성이 청소년의 여가 선용 활동을 거쳐 도덕성의 경로분석

신체 기능적 여가 선용은 주당 신체활동 참여빈도와 참여기간에 비례적으로 반응하며,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실업계보다는 인문계학생이, 농어촌보다는 도시학생에게서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신체활동 여가 선용이 신체 기능적 요소만을 강조하기 때문에 도덕성 인식과는 무관한 것으로 파악된다.

정서적 여가 선용에는 남학생, 인문계, 도시지역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하며, 신체활동 참여기간이 길수록 영향력을 주게 된다.

2. 제언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신체활동은 생존뿐만 아니라 안전능력, 정신적 성숙 및 사회성 발달의 향상을 위한 필수적인 활동이다. 또한 신체활동을 통하여 자기 중심화에서 탈피하면서 여러 가지 풍부한 사회적 관계를 맺게 된다. 함께 운동을 하면서 협동적, 경쟁적 관계를 맺게 되며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며 규칙 지키기, 협동하기, 스포츠 정신 등의 운동의 기본원리를 체득함으로써 타인과의 상호협조, 자율성, 활동성과 같은 긍정적 성향의 인성이 형성, 발달되는 것이다. 즉, 청소년들은 신체활동을 통하여 움직이는 능력을 확대하고 신체의 인지능력 및 정교한 신체의 사용방법을 통하여 긍정적, 창조적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정신적 성숙과 사회적 발달을 촉진시키게 되는 것이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여가 선용과 도덕성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할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은 측면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된다.

첫째, 신체활동 프로그램이 학교유형이나 지역특성에 따라 참여하는 형태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사후 연구자는 종단적 신체활동 프로그램 실시를 통해 여가 선용과 도덕성의 변화 추이를 규명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신체활동 프로그램이 청소년들의 여가 선용과 도덕성에 관한 학교프로그램과 지역사회 프로그램과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등 설문지 구성을 더욱 다양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

셋째, 주 5일제 실시에 따른 청소년들의 여가 선용이 현재의 입시위주 교육제도 하에서도 올바른 여가 선용으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도시와 농어촌의 지역적 특색과 인문 계열과 실업 계열의 면학적 환경을 고려한 여가선용프로그램과 도덕성 함양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보다 건전한 신체활동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강남국(1999). 여가사회의 이해. 서울: 형설출판사.

강동환(1996). 학교 교육을 통한 청소년의 올바른 여가활동. 한양대학교 체육과학 16집, 69-76.

고재혁(1987). 한국청소년의 도덕성발달과 그 교육육적 함의.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교육부(1995). 교육계혁의 추진방안. 서울: 보경문화사.

곽병선(2000). 한국사회의 도덕성지표 개발연구. 한국교육개발원.

곽병선(2001). 도덕성 의식 및 행위에 관한 의견 조사지. 한국교육개발원.

구본행(2002). 청소년의 레크리에이션활동 참여정도와 도덕성 및 사회적 관계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구창모(1991). 체육환경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구창모(1994). 스포츠와 청소년문제. 한국스포츠 사회학회 세미나.

구창모(1998). 청소년과 여가스포츠. 서울: 도서출판 태근문화사.

국민생활체육협의회(1997). 청소년 체육활동 욕구 및 실태조사.

국민생활체육협의회(1998). 청소년 체육 활동 욕구 및 실태 조사. 서울대학교 출판부.

김동진(2000). 청소년의 체육활동 참여 실태와 욕구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미정(2003). 청소년의 여가활동과 여가 만족에 관한 연구. 순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 민(1999). '청소년동아리활동의 교육적 의의와 활성화방안' 우리는 이런 동아리활동을 원해요. 구리: 구리YMCA.

김문겸(1993). 여가의 사회학. 서울: 한울아카데미.

김병성(1985). 학교교육과 교육격차.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김상철(2001). 청소년의 스포츠 활동 참가가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성국(2001). 스포츠 참여를 통한 청소년들의 인격 형성 비교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성태(1990). 발달심리학. 서울: 법무사.

김신숙(2001). 과외체육활동이 청소년의 사회성발달에 미치는 효과.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정래(2001). 청소년의 반사회적 경향과 레크리에이션 활동참가유형 및 선호경향 과의 관계분석.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정묵, 박종인.(1997). 청소년의 여가문화 특성과 레크리에이션 지도 방향. 청주대학교 교육과학연구. 11(2) 57-69.

김종선(1985). 여성스포츠 활성화 방안. 이화여자대학교 체육대학 체육학술세미나 논문집.

김주영(2000). 청소년 복지를 위한 여가생활 지원방안에 관한연구. 한국청소년연구원.

김치조(1993). 여가활동으로서의 스포츠 활동참여와 스포츠 활동만족, 직무만족 및 생활만족의 공변량 구조분석. 서울대학교 체육연구소 논집 제14권, 제2호, 95-109.

김학진(1997). 중학교 클럽활동 실태와 개선에 관한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형태(1989). 청소년기 자아정체감의 발달 및 측정에 관한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형태, 오익수, 김원중, 김동일(1996). 청소년학업상담. 서울: 청소년 대화의 광장.

남궁달화(1988). 도덕적 문제해결의 절차와 방법. 교육학연구. 26(2).

도종수외1(1994). 신세대의 특성 이해를 위한 의식 조사 연구. '청소년 육성관련 정책개발 및 연구(Ⅱ)' 한국청소년개발연구원.

모창배(1993). 여가활동 참여유형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실증적 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문용・운득헌(1997b). 여가활동 선호도와 자아정체감 간의 관계. 한국체육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제 35 회. 한국제육학회.

문용린(1994). 청소년의 도덕성, 법의식발달, 비행경향성 및 법 교육 실태에 관한연구. 서울: 창신사.

문화관광부(2004). 체육백서. 문화관광부.

문화관광부(1999). 청소년 체력향상을 위한 여가체육활동 활성화 방안. 문화관광부.

문화관광부(1999). 청소년백서. 서울인쇄공업주식회사.

문화체육부(1994). 국민생활체육활동 참여 실태조사. 한국체육교학연구원.

문화체육부(1995). 국민여가활동 참여 실태조사. 문화체육부.

문화체육부(1996). 국민여가활동실태조사.

박광민(1998). 청소년의 문화의식과 여가활동 실태조사 연구. 명지대학교 연구논문집, 18, 361-371.

박상욱(1999). 청소년 여가활동 참가와 참가우형이 심리적 안정감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아청(1987). '청소년과 아이덴티터'. 서울: 배영사.

박영민(1986). 청소년과 사회체육. 한국 사회체육 진흥회. 서울: 보경문화사.

박원임(1994). 도시주부의 여가활동 및 여가시간에 관한 조사 연구. 박원임 교수 회갑기념논문집: 210-332.

박정현(2000). 청소년의 체육활동 참가와 학교생활 적응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효정, 정관희(2001). 한국인의 도덕성 의식 및 행위에 관한 의견조사. 한국교육개발원.

석숙희(1999). 청소년 여가활동 참여유형과 활성화 방안.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성영신, 외1명(1996). 여가의 심리적 의미. 한국 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1996. Vol. 9, No. 2. 17-40.

양병한, 김종구(1994). 종교가 도덕성에 미치는 영향. 창원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제7집.

염두승(2003). 청소년 후기 스포츠 활동 참여에 따른 자아정체감 및 사회적 관계.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오순근(1994). 스포츠참가와 도덕성 발달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오정석(1994). 체육적 앎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위성식(1990). 사회체육학 개론. 한국 학술 자료사.

위성식, 이제홍(1995). '사회체육 프로그램 구성의 이론과 실제' 서울: 대경출판사.

위성식, 이제홍(1997). 사회체육학개론. 서울: 대경출판사.

이계학(1994). '가치관 교육 원리 교수・학습과정,' 교육개발, 1월호.

이승훈(1996). 청소년의 여가생활양식과 비행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유찬(1995). 스포츠 활동과 지역공동체 의식형성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장호(1982). 청소년의 바람직한 상과 그 구현방안. 한국청소년1. pp49-55. 한국청소년연맹.

이종영(1996). 삶을 질을 위한 운동과 스포츠의 역할, 스포츠 사회과학적 접근. 제15회 국민체육진흥 세미나 논문집.

이종재(2003). 한국중등학생의 생활 및 문화 실태 분석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이현정(1997). 청소년의 생활체육 참가가 여가만족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임번장(1986). 청소년 비행과 스포츠. 청소년과 사회체육. 한국사회체육진흥회.

임번장(1989). 2000년대 체육의 역할. 한국체육의 오늘과 내일: 문화체육부 신설에 대한 토론, 한국체육학회.

임번장(1990). 스포츠사회학. 2급 경기지도자 연수교재. 한국체육과학연구원.

임번장(1992). 미래사회와 생활체육. 한국체육학회. 제11회 국민 체육진흥 세미나 자료집, 9-27.

임번장(1993). 국민생활체육: 생활체육 프로그램 순회지도 사업운영지침서.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임번장 외(1986). 청소년의 스포츠사회화 과정에 관한 경로 분석적 연구. 1986년도 연구논총. 서울올림픽 스포츠과학 학술대회 조직위원회.

임번장 외(1987). 청소년의 스포츠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체육학회 하계 세미나 발표집. 한국체육학회.

정인석(1985). 현대교육심리학. 서울: 재동문화사.

조 일(2001). 스포츠 특기적성 프로그램이 청소년의 여가 선용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좌명훈(2000). 중・고등학생의 도덕성 함양에 관한 조사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주찬종(2001). 중・고등학생의 체육클럽활동 참가가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채국병(2003). 청소년의 스포츠 활동 참여와 자아개념과의 관계. 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체육과학연구원(2001). 스포츠생활화를 통한 청소년 육성방안.

체육부(1989). 국민생활체육활동 참여 실태조사.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체육연구소.

최규순(1986). 중고생의 신체활동에 대한 태도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병익(2005). 주5일제 도입과 청소년 스포츠 활동 증진방안. 문화관광부.

최성열(2001).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자아정체감간의 관계. 한국아동학회, 제10권, 제1호. 119-120.

최재석(1982). 현대가족연구. 서울: 일지사.

하지원(1993). 아동의 스포츠 참가와 사회성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육개발원(2003). 한국 중등학생의 생활 및 문화 실태분석.

한국교육개발원(2000). 한국사회의 도덕성 지표 개발 연구(I).

한국청소년연구원(1992). 청소년 생활실태 및 의식조사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1993). 청소년 심리학. 서울: 도서출판 서원.

한국청소년개발원(2001). 청소년백서 2001. 한국청소년개발원.

한상용(2000). 과외자율체육활동이 스트레스 해소에 미치는 효과.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함종규(1994). 특별활동의 이론과 실제. 서울: 배영사.

허남걸(1999). 중학생의 여가활동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허성욱(2002). 한국과 중국의 청소년 동아리활동에 관한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홍인숙(2003). 청소년의 여가활용 방안에 관한연구.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황승희(2003). 댄스스포츠 참여자들의 여가 만족도 분석. 국민대학교 스포츠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中國教育百科全書編輯委員會編,(1991). 中國教育百科全書, 北京 : 海洋出版社.

遠藤昭彦,(1993). 道德教育 探究, 東京 : 酒井書店.

Adelson, J.(1980). Handbook of Adolescent Psychology. New York: John Wiley & Sons.

Antonucci, T. C., & Akiyama, H.(1987). Social network in adult life and A preliminary examinayion of the convory model. Journal of Gerontolgy, 42, 5, 519-527.

Akin, T.(1995). et al., character Education in American's School, Innerchoice Publishing Co.

Bauer, R. A.(1996). 'Detection and Anticipation of Impact: The Nature of the Task.' In Social Indicators, Cambridge: MIT Press.

Beard, J G. & Ragheb, M. G. (1980). Measuring leisure satisfaction.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2(1), 20-33.

Blasi, A. (1983). Moral cognition and moral action: A theoretical perspective. Developmental Review,3, 178-210.

Bredemeier, B. (1985). Moral reasoning and perceived legitimacy of intentionally injurious sport acts. Journal of Sport Psychology, 7 110-124.

Bredemeier, B., & Shields, D.(1984a). Divergence in moral reasoning about sport and life. Sociology of sport Journal. 1, 348-357.

Bredemeier, B., & Shields, d.(1984b). The utility of moral stage analysis in the understanding of athletic aggression. Sociology of Sport Journal, 1138-149.

Bredemeier, B., & Sshields, D.(1986a). Moral growth among athletes and non-athletes: A comparative analysis: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47, 7-18.

Bredemeier, B., & Shields, D.(1986b). Game reasoning and interactional morality.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47, 257-275.

Bredemeier, B., & Shields, D.(1993). Moral psychology in the context of sport. In R. N. Singer, M. Murphey, & L. K. Tennant(Eds.) Handbook of research on sport psychology.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New york.

Bredemeier, B., Weiss, M. Shields, D. & Cooper, D.(1986). The relationship of port involvement with children's moral reasoning and aggression dencies, Journal of sport Psychology,8,304-318.

Bredemeier, B., Weiss, M. Shields, D. & Cooper, D.(1987).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legitimacy judgements and their moral reasoning, aggression tendencies, and sport involvement. Sociology of Sport Journal. 4, 48-60.

Bredemeier, B., Weiss, M. Shields, D. & Cooper, D. & Shewchuck, R.(1986). Promoting moral growth in a summer sport camp: The implementation of theoretically grounded instructional strategies. Journal of Moral Education. 15,212-220.

Burr, W. R. (1970). Satisfation with various aspects of Marriage over the cycl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2(1), 29-30.

Campbell, K. E., Marsden, P., & Hulbert, J. S.(1986). Social resources and Socioeconomic staus, Social Network 8, 97-117.

Campbell, A. & P. E. Converse(eds.), The Hunan Meaning of Social Change, N.Y

Cohen(1991). Making a New peail Indastrial Workers in Chicago.

Cooper, C. L., & Marshall, J.(1976). Organizational Sources of Stress: A Review of the Literature Relating to Coronary Heart Disease and Mental Health. Journal of Occupational Psychology, 11-28.

Csikszentmihalyi, M.(1975). Beyond boredom and anxiety. San Francisco: Jossey-Bass.

Dahl, G. J.(1971). Time Work and Leisure, New York: Christian Century Foudation.

DeCarlo, T. J.(1974). Recreation participation patterns and successful again. Journal of Gerontology, 19(4), 416-422.

Dumazedier, G.(1974). Sociology of leisure. New York: Elsevier.

Dumazedier, G.(1967). Toward a society of Leisure. London, Collier-Macmillan.

Epperson, A. F.(1997). Private and commercial ecreation.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12-16.

Erickson, E.(1963). childhood and society(2nd ed.) New York W. W. Norton

Erikson, E. H.(1963). Childhood and Society, W. W. Norton. N. Y. 273.

Figler, S. K. (1981). Sport and play in american life. P. A.:Saunders college press.

Fisher(1981). 'Transitions in the Mother-Daughter Relationship' J. of Marriage and the Family 43.

Gergen, K.(1991). The saturated self-dilemmas of indentity contemporary life. New York: Basic Books.

Giebink, M . P. & McKenzie, T. c.(1985). Teaching sportsmanship in physical education and recreation: An analysis of intervention and generalization efforts. Journal of Teaching Physical Education, 4, 167-177.

Gold ale, T.L, & Gdby, G.C(1988). The evdution of leisure Historical Perspectives. State college, P.A: Venture Publishing.

Hellison, D. Lifka,B.& Georgiadis, N.(1990). Physical education for disadvantaged youth: Chicago story.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 dance, 61, 36-46

Hirst, P. H.(1999). 'the demands of moral education-reason, virtues, practices', in Halstead, M. & T. H. McLaughlin(ed.), Education IN Morality, pp.105~117,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Iso-Ahola, S. E. & Weissinger, E.(1990). Perceptions of boredom in leisure.: Conceptualization, reliablity and validity of the leisure boredom scale.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2(1), 1-17.

Kelly, R.(1982). Leisure Cpractice-inc. Englewood clifts. N. J.

Kleiber, D A. & Roberts, G. C.(1981). The effects of sport in the development of social character: an exploratory investigation. Journal of Sport hology, 3, 114-122.

Kohlberg, L.(1969). Stages in the development of moral thought and action, NY: Holt and Rinehart.

Kohlberg L. Hickey, J. & Scharf, P.(1972). The justice structure of the prison: A theory and intervention. The Prison Journal, 51. 3-14.

Kymlicka, W., 'Education for citizenship' in Halstead, M. & T. H.

Leonard, W. M.(1980). Asociolgical perspective of sport. Minnapolis. MN: Burgss Publishing Company.

Leonard, W. M.(1986). Asociolgical perspective of sport.(3rd). Minnapolis. MN: Burgss Publishing Company.

Lewin, K.(1935). Dynamic Theory of Personality. N.Y.: McGraw-Hill.

Loy, J. W. & Ingham. A(1973). play, games and sport in the psychosocila develoment of children youth. In G. L. Parick(ED), Physical activity: Human gowth and develoment (pp257-302). New York: Academic press.

Mckechnie, G. E.(1974). the psychological structure of leisure: past behavior. Journal of leisure Research, 6, 27-45. Brown.

Nash, J. B.(1960). Philosophy of recreational and leisure. Iowa: William.

Oakeshott, M.(1962). The tower of Babel, Rationalism in Politics, London: Mothuen,

Orlick, T.(1981). Positive socialization via cooperative games. Developmental Psychology, 17, 126-129.

Parker(1972). The Future of work and Leisure. London: macgibbon and Kee

Piaget, J.(1932). The moral judgment of the child, New York: Free Press, 1965, (Originally Published).

Piaget, J. (1965). The moral judgement of the child. New York. Free Press.

Pieper, J.(1952). Leisuire the Basis of Culture London, Faber.

Power, F, C.(1994). Moral development. Encyclopedia of human behavior. Academic Press, Vol. 3.pp. 203-217.

Sherman,(1987). The Fabric of Character-Aristotle's Theory of Virtue, Oxford: Clarendon Press,

Silva, J. M.(1983). The perceived regitimacy of rule violating behavior in sport. Journal of Sport Psychology, 5. 438-448.

Snyder, E. & Spreitzer, E.(1983). Social aspects of sport(2nd Ed.).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Toner, I. J. & Potts, R.(1981). Effects of modelled rationales on moral behavior, moral choice, and level of moral judgement in children, Journal of Psychology, 107, 153-162.

Wankel, L. M., & B. G.(1990). The psychological and social benefits of sport and physical activity.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2(2), 167-182.

<부록1> 설문지

신체활동 프로그램이 청소년의
여가 선용 및 도덕성에 미치는 영향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는 신체활동 프로그램에 따른 청소년의 여가 선용 및 도덕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며, 연구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질문에 대한 답은 맞고 틀린 답이 없습니다. 읽고 느끼신 대로 솔직하게 대답하여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05년　　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체육학과 박사과정

사　상　순

☞ 아래의 문항은 사회 인구학적 배경에 관련된 문항입니다. 해당되는 번호에 V 로 표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생의 성별은?
   (1) 남 (2) 여

2. 학생의 학교는?
   (1) 인문계 (2) 실업계

3. 귀하의 지역은? (읍 단위 이하는 농어촌입니다)
   (1) 도시 (2) 농어촌

4. 부모님의 직업은?
   (1)농수산업 (2)서비스업 (3)엔지니어링 (4)전문직(5)행정사무직(6)기타

5. 아버지의 학력은?
   (1) 중졸 (2) 고졸 (3) 대졸이상

6. 어머니의 학력은?
   (1) 중졸 (2) 고졸 (3) 대졸이상

7. 부모님의 월수입은?
   (1)100만원미만 (2)100-149만원 (3)150-199만원 (4)200-249만원
   (5)250-299만원 (6)300-400만원 (7)401만원이상

☞ 다음은 신체활동에 관련된 문항입니다. 해당되는 번호에 V로 표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체활동 프로그램이란? 학생들이 학교 정규 수업시간외에 체육특기적성(방과후 활동) 참여나, 체육 관련된 클럽활동참여, 또는 학생 개인이 지역체육시설(헬스장, 볼링장, 태권도장, 스포츠댄스 등)에 자발적으로 참여 계획적으로 신체활동 하는 것을 말한다.

1. 신체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유형은?
   (1)특기적성(방과후 활동) (2)클럽활동 (3)생활체육 (4)기타활동

2. 신체활동은 주 몇 회를 참여하고 있습니까?
   (1)1회 (2)2회 (3)3-4회 (4)5회이상

3. 신체활동의 참여 기간은?
   (1)6개월이하 (2)12개월이하 (3)24개월이하 (4)25개월이상

4. 신체활동에 참가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1)특기와 소질을 계발하기 위하여 (2)체육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있어서
   (3)친구들과 친하게 위하여 (4)건강과 체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5)마땅히 할 일이 없고 스트레스 해소를 위하여 (6)기타( )

5. 신체활동에 참가를 결정할 때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1)선생님 (2)부모님 (3)친구 (4)선배 (5)본인

6. 신체활동에 관련 정보는?
   (1)학교 체육교사가 안내한다.
   (2)친구들을 통해서 정보를 얻는다.
   (3)신문이나 언론을 통해서 얻는다.
   (4)소속팀의 홍보를 통해서 얻는다.
   (5)기타( )

☞ 다음은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통하여 여가 선용 측면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해당되는 번호에 V로 표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그렇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그렇다
1. 참여하고 있는 신체활동은 매우 흥미롭다.	①	②	③	④	⑤
2. 신체활동이 개성과 특기 발달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3. 신체활동과 관련된 지식들을 얻게 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4. 신체활동은 자부심을 갖게 한다.	①	②	③	④	⑤
5. 신체활동을 위한 시설이나 학습 자료가 충분하다.	①	②	③	④	⑤
6. 신체활동이 재미있어 그 시간이 기다려진다.	①	②	③	④	⑤
7. 신체활동은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8. 신체활동을 한 후 체력이 향상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9. 신체활동이 더 유익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신체활동이 정서발달에 도움을 준다.	①	②	③	④	⑤
11. 신체활동이 성격 변화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12. 신체활동이 여가의 기회를 더 많이 주었다.	①	②	③	④	⑤
13. 신체활동을 통해 다양한 기량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4. 신체활동이 운동기능을 더 향상 시켰다.	①	②	③	④	⑤
15. 신체활동이 다른 학과 시간에도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16. 신체활동 수준이 자신에게 적합하다.	①	②	③	④	⑤
17. 지금하고 있는 종목을 졸업 후에도 여가선용으로 계속할 생각이다.	①	②	③	④	⑤
18. 지금까지 학교생활 경험으로 보아 신체활동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19. 신체활동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20. 신체활동은 나에게 성취감을 느끼게 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21. 신체활동은 친구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2. 신체활동은 다양한 기량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3. 신체활동은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갖게 한다.	①	②	③	④	⑤
24. 신체활동은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25. 신체활동은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 다음은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통하여 도덕성의 측면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해당되는 번호에 V로 표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그렇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그렇다
1. 나는 웃어른께 존댓말을 쓰며 정중하게 대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남의 물건을 슬쩍한 일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일을 거들기 보다는 옆에서 구경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4. 해야 할 일은 항상 제때에 해치우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5. 시작한 일은 끝장을 내고 만다.	①	②	③	④	⑤
6. 내가 할 일을 남에게 미루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7. 약속시간은 정확히 지킨다.	①	②	③	④	⑤
8. 재활용 쓰레기는 분리수거 한다.	①	②	③	④	⑤
9. 전화는 항상 친절하게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10. 차마 입 밖에 낼 수 없을 정도로 나쁜 일을 생각할 때가 가끔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청소시간에 적당히 눈치를 보며 때우거나 도망친다.	①	②	③	④	⑤
12. 이웃 어른을 만나면 인사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귀찮은 일이 생기면 꾀병을 부리는 일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4. 내가 아는 사람 중에는 싫은 사람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5. 때때로 욕설을 퍼붓고 싶어지는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16.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 미루는 일이 가끔 있다.	①	②	③	④	⑤
17. 시험 시간에 부정행위를 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8. 일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불평할 때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19. 때때로 기분이 좋지 않을 때는 짜증이 난다.	①	②	③	④	⑤
20. 남들은 나를 비교적 믿어주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1. 낼 돈은 반드시 기한 내에 내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2. 이따금 지저분한 농담을 하고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23. 경우에 따라서는 규칙을 무시하고 행동한다.	①	②	③	④	⑤
24. 인터넷상에서는 서로가 잘 알지 못하므로 예의를 지킬 필요가 없다.	①	②	③	④	⑤
25. 극장에 표 없이 들어가도 들킬 염려만 없다면 아마 나도 그렇게 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6. 물건을 사고 난 후 거스름돈을 더 받았다면 돌려준다.	①	②	③	④	⑤
27. 거짓말을 하고 조퇴나 결석을 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부록2>

여가 선용 문항별 *Alpha*

여가선용문항(25문항)	Alpha = 0.9656
1 참여하고 있는 신체활동은 매우 흥미롭다.	0.964
2 신체활동이 개성과 특기 발달에 도움이 된다.	0.964
3 신체활동과 관련된 지식들을 얻게 해준다.	0.965
4 신체활동은 자부심을 갖게 한다.	0.964
5 신체활동을 위한 시설이나 학습 자료가 충분 하다.	0.966
6 신체활동이 재미있어 그 시간이 기다려진다.	0.964
7 신체활동은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0.964
8 신체활동을 한 후 체력이 향상되었다.	0.964
9 신체활동이 더 유익하다고 생각한다.	0.964
10 신체활동이 정서발달에 도움을 준다.	0.964
11 신체활동이 성격 변화에 도움이 된다.	0.965
12 신체활동이 여가의 기회를 더 많이 주었다.	0.964
13 신체활동을 통해 다양한 기량과 능력을 발휘 할 수 있다.	0.963
14 신체활동이 운동기능을 더 향상 시켰다.	0.964
15 신체활동이 다른 학과 시간에도 도움이 된다.	0.965
16 신체활동 수준이 자신에게 적합하다.	0.964
17 지금하고 있는 종목을 졸업 후에도 여가선용으로 계속할 생각이다.	0.964
18 지금까지 학교생활 경험으로 보아 신체활동이 필요하다.	0.965
19 신체활동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	0.964
20 신체활동은 성취감을 느끼게 해준다.	0.964
21 신체활동은 친구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0.964
22 신체활동은 다양한 기량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0.964
23 신체활동은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갖게 한다.	0.964
24 신체활동은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해 준다.	0.964
25 신체활동은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해 준다.	0.965

도덕성 문항별 *Alpha*

도덕성 문항(27문항)	Alpha = .8130
1 웃어른께 존댓말을 쓰며 정중하게 대한다.	.8118
2 남의 물건을 슬쩍한 일이 있다	.8040
3 일을 거들기보다는 옆에서 구경하는 편이다	.8077
4 해야 할 일은 항상 제때에 해치우는 편이다	.8113
5 시작한 일은 끝까지 마무리를 하는 편이다	.8090
6 내가 할 일을 남에게 미루지 않는다.	.8057
7 약속시간은 정확히 지킨다.	.8107
8 재활용 쓰레기는 분리수거 한다.	.8099
9 전화는 항상 친절하게 받는다.	.8108
10 차마 입 밖에 낼 수 없을 정도로 나쁜 일을 생각할 때가 가끔 있다	.8037
11 청소시간에 적당히 눈치를 보며 때우거나 도망친다.	.8004
12 이웃 어른을 만나면 인사한다.	.8136
13 귀찮은 일이 생기면 꾀병을 부리는 일이 있다	.8028
14 내가 아는 사람 중에는 싫은 사람이 있다	.8090
15 때때로 욕설을 퍼붓고 싶어지는 때가 있다	.8051
16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 미루는 일이 가끔 있다	.8026
17 시험 시간에 부정행위를 한 적이 있다	.8057
18 일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불평할 때가 많다	.8025
19 때때로 기분이 좋지 않을 때는 짜증이 난다	.8059
20 남들은 나를 비교적 믿어주는 편이다	.8130
21 낼 돈은 반드시 기한 내에 내는 편이다	.8147
22 이따금 지저분한 농담을 좋아한다.	.8017
23 경우에 따라서는 규칙을 무시하고 행동한다.	.8000
24 인터넷상에서는 서로가 잘 알지 못하므로 예의를 지킬 필요가 없다	.8044
25 극장에 표 없이 들어가도 들킬 염려만 없다면 아마 나도 그렇게 할 것이다	.8051
26 물건을 사고 난 후 거스름돈을 더 받았다면 돌려준다.	.8149
27 거짓말을 하고 조퇴나 결석을 한 적이 있다.	.8053